2020 광주문화공간매거진 • 2020 Gwangju Cultural Space Magazine

걷는 광주 • Walking Gwangju

001 국윤미술관
002 우제길미술관
003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004 무등현대미술관
005 의재미술관
006 풍암호수공원
007 풍암생활체육공원
008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009 제석산
010 광주시립미술관
011 광주비엔날레
012 풍영정천
013 수완호수공원 & 원당산공원
014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16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구 본관)
017 전일빌딩 245
018 5·18민주화운동기록관
019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020 만귀정
021 벽진서원
022 상무대 엣터(5·18자유공원)
023 서창향토문화마을
024 사직공원
025 양림동 오웬기념각 & 우일선 선교사 사택 & 유진벨선교기념관
026 최승효가옥 & 이장우가옥
027 국립5·18민주묘지
028 무진고성지
029 원효사
030 김봉호 가옥
031 무양서원
032 월봉서원
033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034 광주청년센터
035 미로센터
036 김대중컨벤션센터
037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038 유·스퀘어문화관
039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040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041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042 책문화공간봄 작은도서관
043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044 문화공동체 아우름
045 시화문화마을문화관
046 광산문화예술회관
047 소촌아트팩토리
048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049 광주극장
050 광주독립영화관
051 김냇과
052 민들레소극장
053 베토벤음악감상실
054 아하갤러리
055 예술공간 집
056 유림서점
057 충장서림
058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059 페드로하우스+보아져스
060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061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062 포레스트 971
063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064 광주 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문화원)
065 광주패밀리랜드자동차극장 광주시네마파크
066 너릿재유아숲체험원
067 산수도서관
068 발산 벽화거리
069 상록도서관
070 전평제 수변공원
071 월산 근린공원
072 제봉산 마법의 숲 체험원
073 푸른길도서관
074 푸른길4구간 이음길
075 광주어린이대공원
076 광주시민의숲
077 광주호 호수생태원
078 무등도서관
079 광주송정도서관
080 1913 송정역시장

2020 광주문화공간매거진 • 2020 Gwangju Cultural Space Magazine

걷는 광주 • Walking Gwangju

서문

도시에도 관상이 있고 첫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매우 화려하고 스펙터클하여 순식간에 시감각을 매혹하는가 하면, 어떤 도시는 정갈하고 오래된 한식당처럼 고즈넉한 인상을 주기도 하며, 또 어떤 곳은 에너지와 활기가 넘쳐서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기엔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광주를 살아가는 토박이 주인들이 알지 못하는 첫인상은 어떨까. '광주문화공간 매거진'은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주는 화려하거나 눈에 두드러지는 인상보다는 오래, 가까이에서 보면 볼수록 숨겨진 매력이 한없이 샘솟는 도시입니다. 전통 있는 음식문화와 문화·예술계 인물들 그리고 인권·평화의 도시. 그래서 미향·의향·예향의 이름을 모두 가진 이곳은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가려진 면면들이 너무나 많다는 배부른 고민이 들었습니다. 『광주문화공간매거진』에서는 광주인들에겐 너무 익숙하여 미처 그 매력을 알지 못했던 문화공간들의 진면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그릇은 물과 같아서 문화공간의 범주를 단편적으로 정의 내리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문화를 공부하거나 문화기획과 현장을 넘나들며 광주의 청년으로 살고 있는 필자로 구성된 기획팀에게는 까다로운 숙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기획팀과 문화기관협의회는 '코로나19 시대에도 걱정 없이 만끽할 수 있는 일상 속 야외공간'일 것, 그러나 '광주의 빼어난 문화의 역사와 전통도 아낌없이 자랑할 것', 또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즐길 것'을 공간 선정의 잣대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구별로 찾은 문화공간은 테마별로 다시 분류하여 총 80개 소의 공간 소개글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테마별 장소는 '역사문화공간' 18개소, '문화실현공간' 16개소, '일상문화공간' 17개소, '도시생활공간' 15개소입니다. 덧붙이자면 주로 공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개별 방문객들에게는 추억이 서린 사적인 장소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 등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보다는 각 필자들의 개성 있는 시각이 드러나도록 '편람'이 아닌 '매거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문화공간들의 정보와 필자들의 시선 위에 독자들만의 개인적인 기억이 덧입혀지기를 바랍니다.

한편 광주문화기관협의회는 2013년 광주지역 문화 관련 기관들이 처음으로 뜻을 함께하여 발족한 후 현재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광주문화기관 정례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회동을 시작하였고, 첫해의 회동은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청사진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기관들 간의 협력과 연대가 만들어갈 가능성의 폭은 그만큼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자체 정례회의를 이어가던 문화기관협의회는 점차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혀가고, 협력사업과 공동사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광주광역시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기관 간 공동사업과 협력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실 중 하나로 작년 공동정보지 『광주문화기관·단체 디렉토리북』에 이어 올해 『광주문화공간매거진』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광주문화기관·단체 디렉토리북』에 담을 수 없었던 광주문화의 섬세한 면면들을 조금이나마 이번 매거진에 채웠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기관들이 협력하여 광주의 문화적 자산들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공동의 과제에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 한 권으로 담아내기에는 광주의 문화적 자원이 너무 풍부하고 다양함을 사뭇 깨닫는 과정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면이 한정된 책의 특성상 정보를 선별하거나 축소되어야 함에 따라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기꺼이 자료조사에 응하여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 12.

광주문화기관협의회

광주문화재단(간사기관)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국립광주과학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김대중컨벤션센터
아시아문화원

차례

메인테마 • Main Theme

동구 • Dong-gu 16

001 국윤미술관
002 우제길미술관
003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004 무등현대미술관
005 의재미술관

서구 • Seo-gu 26

006 풍암호수공원
007 풍암생활체육공원
008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남구 • Nam-gu 34

009 제석산

북구 • Buk-gu 40

010 광주시립미술관
011 광주비엔날레

광산구 • Gwangsan-gu 48

012 풍영정천
013 수완호수공원 & 원당산공원
014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역사문화공간 • Historical Culture Space

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8
016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구 본관) 62
017 전일빌딩 245 66
018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0
019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74
020 만귀정 78
021 벽진서원 82
022 상무대 옛터(5·18자유공원) 86
023 서창향토문화마을 90
024 사직공원 94
025 양림동 오웬기념각 & 우일선 선교사 사택 & 유진벨선교기념관 98
026 최승효가옥 & 이장우가옥 102
027 국립5·18민주묘지 106
028 무진고성지 110
029 원효사 114
030 김봉호 가옥 118
031 무양서원 122
032 월봉서원 126

문화실현공간 • Cultural Realization Space

033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132
034	광주청년센터	136
035	미로센터	140
036	김대중컨벤션센터	144
037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148
038	유·스퀘어문화관	152
039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156
040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160
041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164
042	책문화공간봄 작은도서관	168
043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172
044	문화공동체 아우름	176
045	시화문화마을문화관	180
046	광산문화예술회관	184
047	소촌아트팩토리	188
048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192

일상문화공간 • Life culture space

049	광주극장	198
050	광주독립영화관	202
051	김냇과	206
052	민들레소극장	210
053	베토벤음악감상실	214
054	아하갤러리	218
055	예술공간 집	222
056	유림서점	226
057	충장서림	230
058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234
059	페드로하우스+보야져스	238
060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242
061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246
062	포레스트 971	250
063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54
064	광주 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문화원)	258
065	광주패밀리랜드자동차극장 광주시네마파크	262

도시생활공간 • Urban Life space

066	너릿재 유아 숲 체험원	268
067	산수도서관	272
068	발산 벽화거리	276
069	상록도서관	280
070	전평제 수변공원	284
071	월산 근린공원	288
072	제봉산 마법의 숲 체험원	292
073	푸른길도서관	296
074	푸른길4구간 이음길	300
075	광주어린이대공원	304
076	광주 시민의 숲	308
077	광주호 호수생태원	312
078	무등도서관	316
079	광주송정도서관	320
080	1913 송정역시장	324

부록

-	색인 • Index	330
-	문화기반시설 현황	332

동구 — 예술 산책길

001 국윤미술관

002 우제길미술관

003 광주문화재단 광주전통문화관

004 무등현대미술관

005 의재미술관

서구 — 풍요로운 산책길

006 풍암호수공원

007 풍암생활체육공원

008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남구 — 구름다리 산책길

009 제석산

북구 — 초록신사를 만나는 산책길

010 광주시립미술관

011 광주비엔날레

북구 — 초록신사를 만나는 산책길

012 풍영정천

013 수완호수공원 & 원당산공원

014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메인 테마

Main Theme

write. 김천응

동구

예술 산책길

국윤미술관—우제길미술관—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무등현대미술관—의재미술관

의재미술관

미술관 가는 길

특별하다는 건, 예측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반복을 벗어나는 일이며, 일상을 비켜나 있는 사태들이다. 특별한 산책을 떠나보자. 10월의 어느 가을,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고, 인공의 공원이 아닌 자연의 풍광 속으로 빠져드는 산책과 오랜만의 예술 경험으로 소중한 내 삶에 선물을 해보면 어떨까?

광주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의 발길을 넉넉히 품에 안아준 곳은 당연히 무등산 국립공원일 터이다. 무등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예술적 감흥을 불러일으킬 미술관들과 공연장이 잇달아 자리를 잡은 동구의 증심사 입구로 들어서는 길은 특별하다. 게다가 가을의 정취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어느 멋진 10월'이지 않은가?

소태동 배고픈 다리를 지나 증심사 입구로 들어서면 슬슬 공기와 풍경이 달라지고 있음이 감지된다. 무등산 미술관 거리, 제2 예술의 거리, 운림동 아트밸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의재로'의 시작이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곳은 국윤미술관이다. 2008년 7월 개관한 이곳은 국중효 작가와 윤영월 작가의 성씨가 만나 탄생한 이름이다.

국윤미술관

우제길미술관

상설전시장인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에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상시로 전시되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 작가의 개인전과 기획전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혹시, 문이 닫혀있거든 당황하지 말고 입구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상주하고 있는 큐레이터가 어느새 달려와 친절한 해설과 함께 안내해준다.

국윤미술관을 나오면 거리의 표지판들이 미술관 거리에 들어섰음을 더욱 실감하게 해준다. 다음은 우제길 미술관으로 향해보자. 제2순환도로 고가를 지나 의재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무등산에 성큼 다가 섰음을 느낄 수 있다.

운림중학교 앞에서 좌회전 길을 택하면 곧이어 우제길 미술관이다. 한국미술평론가협회가 선정한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100인 중 한명으로 선정 된 우제길 화백이 운영하는 미술관이다. 그는 '처연한 남도의 빛을 표현한 작가'로 상징된다. 광주 동구 운림동의 명소로 자리 잡은 우제길 미술관은 본래 개인 작업실로 지어졌으나 승효상 건축가의 손길이 닿으면서, 지난 2014년에 '빛의 이미지'를 살려내는 현재의 미술관으로 멋지게 탈바꿈했다. 지하에는 작업실과 자료실이 있으며 지상은 열린 복합 문화공간으로 미술품 전시,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예술가와 후원자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야외 조각공원, 공연장, 카페 등 다양한 문화공간과 예술 상품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이 소통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문화예술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헌하는가

를 보여주는 곳이다. 포근하고 푹신한 의자들이 놓인 1층의 카페에서 바라보는 야외 경치와 2층의 미술관에서 보이는 무등산 전경은 창문의 프레임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된다.

미술관 관람을 마치고 여기서부터 산책을 시작하고 싶다면 산자락을 오른쪽 시야에 두고 미술관을 나온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자. 5분 정도를 걷다 보면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켰음직한 커다란 붉은색 벽돌 건물이 보인다.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이다. 여기서부터 산책로가 시작된다. 계곡물 소리에 귀가 씻기고, 가을옷 갈아입기 시작한 나무들에 눈이 씻긴다. 계곡 쪽으로 나무 울타리가 이어지는 산책길이 참 푸르다.

쭉 오르다 보면 커다란 한옥 양식의 건물과 더불어, 무등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행렬에 갑자기 휩싸이게 된다. 왼편으로 조금만 걸음을 옮기면 광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광주문화관광 1번지 전통문화관이 있다. 좌측의 솟을대문으로 들어서면 너덜마당, 야외공연장, 전시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무등산 아래 자리 잡은 김에 한옥의 이름들도 '서석당', '입석당'으로 현판을 걸었다. 무형문화재 예능, 기능 보유자 22인과 전통공연단체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전통문화 위주의 예술공연과 문화행사로 시민들을 초청한다. 특히나 10월은 풍성한 전통문화체험과 축제, 주말 상설공연이 베풀어진다. 산책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즐길 수 있도록 오늘 진행되는 행사시간을 확인하고 전단지 한 장을 챙겨 솟을대문을 다시 나서자.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조금만 걷다 보면 오른편에 증심사 지구 공원주차장이 나타나고 맞은편에 미색으로 단장한 세련된 감각의 무등현대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무등산의 품 안에 빨리 안기고 싶다면 미술관 관람은 내려오는 길로 미뤄두어도 좋겠지만, 조금 전 우제길 미술관에서 만난 예술적 감흥을 이어가고 싶다면 무등현대미술관으로 성큼 들어서 보자.

이곳은 2007년 10월 개관한 이래 무등산 인근의 공방의 장인들과 함께 지역문화의 소통과 커뮤니티형성에 힘쓰며, 광주의 예술인과 시민들의 예술향유를 위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대 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는 기획전시, 초대전시, 특별전시 등을 기획해 현대미술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일반인들의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현대 미술이 나아갈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미술관이다. 차림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곳은 산책과 등산을 나온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은가.

무등현대미술관을 나와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차량 출입 통제선이 등장한다. 번잡한 식당가를 오른편으로 물리고 나면 본격적인 무등산 산책이 시작된다. 증심교에 이르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산세가 드러나지 않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보도블록 길이다. 서둘러 숲길 산책의 즐거움을 맛보고 싶으면 오른쪽 샛길로 빠지면 된다. 엉뚱한 길로 들어설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슬슬 다리에 뻐근함이 느껴질 즈음 증심교 앞 갈림길이 나타나 선택을 요구한다. 곧바른 길이 의재 미술관 가는 길이다.

술래잡기하듯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계곡 물줄기를 지나 증심교와 경사진 길을 넘어가면 '굳세고', '공손한' 사람, 의재(毅齋) 허백련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의재미술관이 나타난다.

무등현대미술관

의재 허백련 선생은 무등산 계곡에 은거하며 예술가로서의 세속적 성공에 마음 두지 않고 겸허하고 청빈하게 사상가, 실천적 계몽가로서의 삶을 살다간 분이시다. 생전에 선생의 삶은 미술관의 건축적 안배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 직렬로 배치된 세 개의 건물은 현대식 건물임에도 주변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심지어 미술관 전시실로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반투명의 완만한 경사로는 조금 전까지 등산로를 오르던 몸의 감각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세심한 배려와 자연을 거스르지 않았던 선생의 인품을 보여준다. 그래서인지 의재 미술관은 어느 계절에 방문해도 운치가 있다.

의재 미술관은 의재 선생의 올곧은 삶과 비범한 예술혼, 부드러운 무등산의 자연을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01년에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은 작품이다. 의재 미술관에 들어서면 바로 뮤지엄샵이 있고 유리로 된 왼쪽 벽은 마치 유리병풍처럼 무등산의 자연을 그대로 보여준다. 구름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돌면 기획전시를 위한 전시실 1, 2가 있고 다시 완만한 경사로를 지나면 상설 전시실이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의재 선생의 각 시기별 대표작과 미공개작들이 새로운 기획으로 전시되고 선생이 남긴 편지와 사진 등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미술관 뒤로 10여 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의재 선생이 애정을 쏟아 가꾸었던 5만여 평의 녹차 밭 춘설다원이 나온다.

미술관을 나와 계곡의 다리를 건너면 등산로에서 비켜나 있는 길이라 운치가 다르다. 벌써 다음번 봄을 싹 틔우려 대지에 낮게 깔린 수북한 낙엽들은 발 길 아래로 바스락 바스락 낮은 탄성을 지른다. 계곡을 건너자마자 관풍대와 춘설헌, 의재 묘소 표지판이 나타난다. 고목기둥에 매어진 옛 표지판과 현대식 표지판이 다투지 않고 나란하다. 의재 묘소로 향하는 계단을 물리고 오른쪽으로 접어들면 휘장처럼 허공을 가로지르고 있는 쓰러진 나무가 보인다. 마치 일부러 가로지른 듯 하지만 쓰러져 누운 나무다. 짧은 길이 아쉽게 아름답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담하고 아담한 춘설헌이 눈길을 끈다. 아직도 의재 선생이 화로에 춘설차를 우려내며 붓을 들고 계실 것만 같다.

춘설헌을 나오는 길, 더 작은 오솔길을 따라 오르면 돌계단이 보이는데 그 위에 의재 선생의 묘소가 있다. 단정한 봉분이 아름다운 묘소에 누운 의재 선생은 생전에 흰 도포 자락을 날리며 오르내리시던 사랑하고 아끼시던 무등산과 차, 나무를 바라보고 계신다. 묘소 입구의 묘비에는 '한평생 산수를 그리고 산수 속에 누우신 이여'로 시작하는 노산 이은상이 지은 시가 새겨져 있고 오솔길 양옆으로는 생전에 즐기시던 야생차들이 파릇하게 자라고 있다.

이쯤에서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올라오는 길에 챙겨둔 전통문화관 공연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되짚어 내려가려면 2, 30분은 남겨두어야 한다. 무등현대미술관까지 들렀다 가려면 더 여유를 가져야 한다. 특별한 산책을 마친 하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느새 가을밤이 이슥하니 찾아들고 있다. 미술관 거리를 벗어날 때쯤 뒤를 돌아 무등산 위로 뜬 달을 한 번 바라보자. 찰나에 불과한 인생과, 변치 않는 자연의 도도함을 언제나 공평하게 비추어주는 달빛이 교교하다.

국윤미술관

시　　설 |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자료실, 홍림창작스튜디오
년　　도 | 2008
운영시간 | 10:00~18:00 / 월요일 휴무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82
연 락 처 | 062-232-7335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yywol

우제길미술관

시　　설 | 전시실, 교육실, 아뜰리에, 사무실, 야외 소공연장,
　　아트샵, 카페테리아
년　　도 | 2001
운영시간 | 주중 11:00~18:00 / 주말 12:00~18:00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40-6
연 락 처 | 062-224-6601
홈페이지 | http://www.wooart.co.kr

광주전통문화관

시　　설 | 1F_새인당, 서석당, 안내실, 너덜마당, 입석당,
　　무형문화재 전수관 / B1_무형문화재 전수실,
　　기획운영팀 사무실, 주차장
년　　도 | 2012
운영시간 | 09:00~18:00 / 연중무휴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22
연 락 처 | 062-670-8550
홈페이지 | http://www.gtcc.or.kr

무등현대미술관

시　　설 | 전시실1~2, 교육관
년　　도 | 2007
운영시간 | 10:00~18:00(3월~10월) /
　　10:00~17:00(11월~2월)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9
연 락 처 | 062-223-6677
홈페이지 | http://www.mdmoca.co.kr

의재미술관

시　　설 | 의재미술관 전시실, 관풍대, 문향정, 춘설헌,
　　의재 묘소, 녹차밭
년　　도 | 2001
운영시간 | 9:30~17:30(하절기 4~10월) /
　　9:30~17:00(동절기 11월~3월) /
　　마감 30분 전 입장
　　매주 월요일, 설·추석 연휴 휴무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155
연 락 처 | 062-222-3040
홈페이지 | https://www.uijaemuseum.org/

서구

풍요로운 산책길

풍암호수공원—풍암생활체육공원—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풍암호수공원

보드라운 흙과 초록의 나무와 잔잔히 찰랑대는 물.

선선한 가을 저녁 사람들의 발길을 야외로 이끌어내는데 이만한 것 외에 무에 있을까.

서구의 풍암동과 금호동의 경계에 놓인 풍암호수공원은 광주 서구에 삶의 둥지를 튼 사람들을 절로 꾀어낸다. 이 시간 즈음이면 풍암 택지지구(1지구, 2지구)를 빠져나와 풍암순환로를 가로지르는 사람들의 행렬과 금호동에서 빠져나온 행렬이 메카를 향해 성지순례라도 떠나듯이 물가로 물가로 이어진다. 금호동이든 풍암동이든 어느 방향에서 출발했건 풍암 호수를 빙 둘러 걷는 산책길에서 서로는 스치고 마주치게 되어 있다.

풍암1지구 대주아파트 앞 사거리 신호등을 지나 내리막길 산책로로 들어서면 바로 전에까지 번잡하던 차도가 시야에서 금세 사라지고 잔잔한 호수의 물결이 눈에 들어온다. 언제나 그렇듯 찰랑거리고 고요한 물결은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혀준다. 발아래의 푹신한 느낌은 콘크리트가 아닌 흙을 밟고 있음을 알려준다. 팔을 높이 올려 활기찬 기지개를 몇 번 켜면 다리에 힘이 절로 들어간다.

널따란 풍암호수공원의 일렁이는 물결은 산책하는 내내 눈길을 사로잡고, 곳곳에 피어난 노랑, 빨강, 보라색의 꽃들을 바라보며 선선한 가을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다 보면 한 두 바퀴의 산책은 어느새 금방이다. 어둠 사위가 더 내려 앉을 때까지 서너 바퀴는 더 돌아봄이 좋다. 여유롭게 걷다 보면 산책의 묘미를 돋구어줄 양념들은 곳곳에 즐비하다.

앙증맞게 심어진 주말농장 텃밭, 능소화와 다래, 청포도를 심어 만들어 놓은 초록의 덩굴 터널과 발아래 호수의 물결을 두고 걸을 수 있는 나무다리들, 중간중간 언제든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버드나무와 등나무가 드리워진 쉼터와 정자들,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가지를 드리운 솔숲을 걷는 호사, 단번에 눈을 사로잡는 거대한 조형물, 게다가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하게 하늘로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호수의 분수들은 그야말로 풍암호수공원의 명물임이 틀림없다.

산책을 즐기다 보면 저절로 발길을 끄는 장소가 있다. 아담한 크기의 풍암호수작은도서관이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 호수를 바라보고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곳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자고 했을까? 절로 감탄과 고마운 마음이 든다. 규모는 작지만 유명한 문학 작품들과 아동용 도서, 최근의 신간까지 도서의 구성이 알차다.

가을의 산책길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식인데 경치가 아름다운 도서관에서의 독서라는 애피타이저까지 곁들이면 잊지 못할 만찬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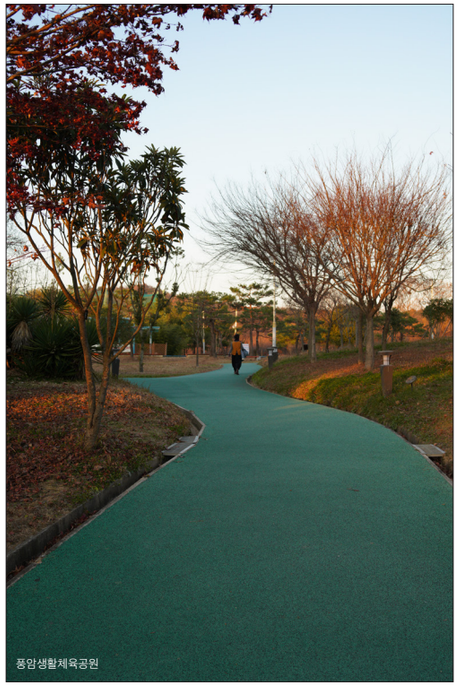
풍암호수공원

참, 한 가지 중요한 걸 잊을 뻔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풍암호수공원이 광주 곳곳의 이웃들을 불러 모으는 때가 있으니 바로 계절의 여왕 5월이다. 이유인즉, 매년 5월이 되면 호수공원의 한쪽에 자리한 장미원에 140여 종 1만 9000주에 달하는 형형색색의 장미가 만개하여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른다. 2.2 킬로미터에 이르는 호수 산책로에도 덩굴장미가 피어 말 그대로 꽃길을 산책할 수 있게 된다. 이때가 되면 장밋빛과 경관조명과 연신 터지는 카메라의 플래시가 한데 어우러져 호수공원의 봄밤이 낮보다 환하게 변모한다.

장미원이 개장할 즈음엔 음악회와 거리공연, 각종 체험행사들도 함께 어우러져 자연스레 축제장으로 탈바꿈한다. 짐작건대, 풍암동과 금호동에 삶의 터전을 둔 사람들이라면 휴대전화 갤러리에 장미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을 게 분명하다.

풍암호수공원의 역사는 상당히 길다. 70여 년 전에 농업용 목적으로 지어진 후 풍암택지 개발과 더불어 호수공원으로 거듭나면서 연일 3 천여 명, 날씨 좋은 주말이면 1만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발길을 반기어주며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풍암호수공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일상을 살아가며 산책의 시간을 삶 속에 품고 산다는 건, 하루가 저물어져 갈 즈음 딱딱한 콘크리트에 지친 발에게 물컹물컹한 흙을 밟게 해주고, 블루라이트에 시달린 눈에는 초록빛을 선물해주며, 네모난 서류와 냄새에 지친 코에는 신선한 바람과 물가의 내음을 맡게 해주는 일이다. 산책의 시간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시간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다.

주말이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들도 분주하게 서두르지 않아서 좋은 토요일 늦은 오전의 여유가 좋다. 미리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지 않은 토요일 오후, 따사로운 볕이 자꾸만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을 한다. 이런 때에 제격인 야외나들이 장소 중 하나가 풍암생활체육공원과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이다.

아이들의 놀잇감과 돗자리, 음료와 간단한 간식을 사서 풍암생활체육공원으로 나서보자. 풍암생활체육공원으로 들어서는 길은 두 군데이다. 주월동 쪽에서 풍암동 방향으로 가파른 고갯길을 넘자마자 오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입구와 금호동 쪽 방향에서 월드컵경기장을 지나 풍암동 쪽으로 오는 길에 있는 입구, 두 군데 모두 50여 대가 들어서도 넉넉한 주차장이 있다.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들어오는 방향에는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고 생활 체육공원과 사이좋게 맞닿아 있다.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은 최근에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새 단장을 하고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름에 걸맞게 정성스레 선별된 아동도서가 책장을 빼곡히 채우고 있고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맞춘 각종 편의 시설들과 서고를 조성해 이용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나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편안하게 방에 앉아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열람실은 가장 인기가 많은 공간이다.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은 그 이름에 걸맞게 '생태', '환경', '에코', '체험'의 제목을 내걸고 도서관과 공원 주변 환경을 이용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주 운영하고 있으니 방문하기 전 홈페이지를 유심히 들여다볼 일이다.

도서관 옆에는 생태연못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한눈에 들어온다. 얕은 수심의 그다지 크지 않은 연못이지만 노랑. 빨강의 커다란 비단잉어와 붕어, 개구리들이 살고 있고 연못을 둘러 사시사철 파릇한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연못을 가로질러 놓인 앙증맞은 나무다리에 올라서면 어디에선가 잉어와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쳐와 발밑에서 큰 입을 뻐끔거린다. 나무다리 위 밧줄 난간에 매달린 아이들이 물고기를 발견하고 연신 신나게 재잘거린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무다리를 건너 연못가에서 자라나는 초록의 수생식물들에 눈길을 건네다보면 풍암생활체육공원이 금세 나타난다. 야트막한 오르막을 오르면 넓디넓은 풍암생활체육공원이다. 오른편으로는 넓고 푸르른 잔디운동장이, 왼쪽으로는 아기자기한 동산들 사이로 조성해놓은 산책로가 사방팔방으로 뻗어 있다.

공원이 주는 선물을 한 아름 받아들고 가을 오후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연을 날리는 아빠와 아들, 돗자리를 펴고 이웃들과 어울려 간식을 먹으며 웃음꽃을 터트리는 엄마들, 아빠가 멀리 찬 축구공을 신나게 쫓아가는 형과 동생, 글러브를 끼고 야구공을 주고받는 아이들. 오매불망이라는 이름을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붙여 단풍나무들로 줄을 세운 산책로에는 빠른 걸음으로 운동 중인 젊은이들, 팔짱을 끼고 담소를 나누며 산책 중인 모녀, 강아지를 앞세우고 걷기에 열중하는 어르신들, 인근 주민들이 일상의 중력을 벗어나 가벼운 나들이와 산책길에 나선 모습이 산뜻하고 가벼웁다. 공원은 사시사철 정성 들여 관리가 되는 덕분에 잔디가 깔린 어느 곳에나 가족들과 함께 돗자리를 깔고 앉으면 행복의 풍경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돗자리에 앉아 있기가 지루해지고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싶다고 말할 때쯤에는 산책을 하며 공원을 함께 둘러보자.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무등산의 특징을 살려 각 산을 대표하는 자생 야생화를 심어놓은 야트막한 동산들을 오르내리면 '내 놀던 옛 동산'의 추억을 아이들에게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산책로 곳곳에 세워진 시화 작품들도 읽어보고, 60종이 넘는 무궁화를 심어놓은 무궁화 동산도 구경하고, 각종 채소와 과일들을 옹기종기 심어놓은 텃밭에 가면 아이들의 눈은 절로 휘둥그레진다.

그뿐만 아니다. 봄이면 울긋불긋한 철쭉과 들꽃과 벚꽃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오색의 단풍나무들이 옷을 갈아입는 이 공원이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들로 뒤덮인 매립장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아이들과 어울려 공원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놀다 보면 가을의 햇살이 짧고 아쉽기만 하다. 더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곧 어두워져 싸늘해지니 가자고 하는 부모들의 실랑이가 이곳저곳에서 펼쳐진다.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말해주자.

'그럼, 다음 주에 또 오자. 약속!'

풍암생활체육공원

풍암호수공원

시　　설 | 일주산책로(2.2km) / 조경시설(분수 및 터널 등) / 휴양시설(쉼터 및 잔디광장) / 운동시설(2개소) / 교양시설(꽃차원,자연체험학습장, 야외음악당, 생태습지, 장미원, 양서류 서식지) / 편의시설(정자, 화장실, 주차장 등)
년　　도 | 1956년(축조년도) / 1975년(공원지정)
운영시간 | 상시개방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32번지 일원
연 락 처 | 062-360-7580

풍암생활체육공원

시　　설 | 공원시설(광장, 주제정원,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등) / 체육시설(다목적운동장, 농구·배구·족구·게이트볼·정구장 등) / 조경시설(분수, 생태연못 등) / 체력단련시설(가슴펴기, 허리돌리기, 평행봉 등) / 편의시설(정자, 화장실, 주차장 등)
년　　도 | 2006. 3. 29.(공원개장일)
운영시간 | 공원시설_상시개방(식물 관리 필요시 제한)
체육시설_06:00~19:00(하절기 4~10월),
07:00~17:00(동절기 11~3월)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20번지 일원
연 락 처 | 062-360-7580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시　　설 | 1B_주차장 / 1F_아동자료실, 유아자료실, 가족실, 이야기방, 사무실, 화장실 /
2F_다목적실, 생태학습실, 동아리방, 서고, 화장실
년　　도 | 2018
운영시간 | 주중 09:00~18:00 / 주말 09:00~17:00 /
매월 두번째, 네번째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휴무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공원로 8
연 락 처 | 062-350-4584
홈페이지 | https://www.seogu.gwangju.kr/library/

남구

구름다리 산책길

제석산

광주는 무등산을 중심으로 도심 곳곳에 크고 작은 산을 품고 있다. 남구 지역의 봉선동을 품고 있는 제석산도 그중 한 곳이다. 제석산은 봉선동을 U자 모양으로 감싸 안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어머니 산으로 야트막하지만, 그 품은 넉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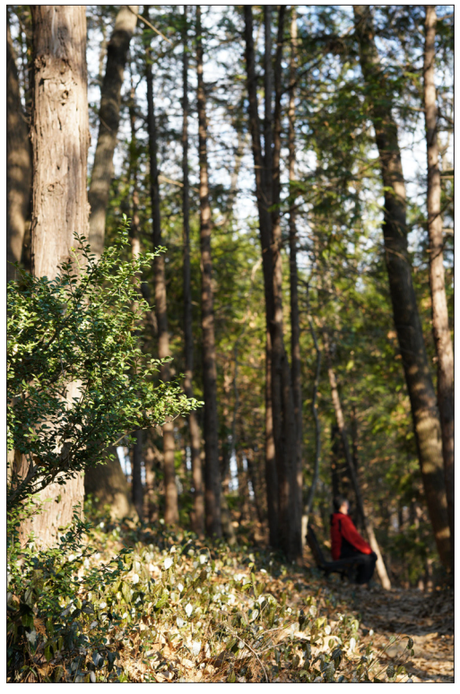
이곳에는 산을 오르지 않더라도 그곳을 지나간 이들은 한 번쯤 보았음 직한 곳이 있다. 고장에서 제법 이름난 명소로 꼽히는 제석산 구름다리이다. 이 다리는 도로공사로 인해 헤어짐의 아픔을 겪었던

제석산 구름다리

진월동과 봉선동의 이별의 아픔을 봉합해주고 있는 셈이다. 제석산을 오르기 위한 여러 진입로 중 구름다리로 곧장 가보자. 구름다리로 가까이 향할수록 높은 곳에 아찔하게 위치한 다리가 제법 스릴 넘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갓길 없는 도로변에 인접해 있지만, 주차는 인근 문성고 주차장을 이용해도 되고 마음씨 좋은 인근 식당 주인이 마당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했다고 하니 호의에 감사하며 그곳 주차장을 이용해도 좋겠다.

구름다리만 보고 호기롭게 덤비다가 계단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높이가 37m인 만큼 계단의 높이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좋겠다. 힘을 내 계단을 오르다 보면 마침내 구름다리를 마주하게 된다. 76m 길이에 폭 2m. 산책길에 동행한 마음 맞는 이, 사랑하는 이와 나란히 걷기 딱 알맞은 너비다. 막상 꽤 높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흔들다리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할 만큼 아찔함을 느껴진다. 문성고 방향에서 올랐다면 다리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왼쪽으로는 봉선동과 방림동의 아파트 숲과 무등산까지, 오른쪽으로는 진월동과 멀리 노대동의 풍경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한때는 제석산의 허리였지만 이제는 끊어져 다시 인공적으로 다리를 놓아 이어진 곳. 그곳이 바로 제석산 구름다리이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아름다운 야경으로도 유명해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밤 산책길을 나섰다면 시시각각 색깔이 변모하며 반짝이는 조명은 몽환적으로 보이기까지 할 것이다.



이제 산책로를 따라 걸어보자. 울룩불룩 땅 위로 꿈틀대는 나무의 뿌리들은 든든하고 곧게 위로 뻗기 위해선 아래로 아래로도 깊고 단단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듯하다. 듬성듬성 심어진 편백나무들 아래로 융단처럼 깔린 마삭줄이 또다시 그곳에서 저들만의 작은 숲을 이루고 있다. 간간히 놓여있는 벤치와 정자는 삶에 지친 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사람들의 날숨으로 뱉어내는 도시의 피로를 거두어가고 마음을 상큼하게 해줄 자연의 에너지를 들숨으로 공급해준다.

제석산 산책로의 매력은 최대한 자연을 해치지 않은 채로 가꾸어 놓은 정겨운 숲길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시원하게 걷다 보면 편백나무, 소나무, 꾸지뽕나무 등 갖가지 수종의 나무들이 산책로를 따라 뚜렷이 구분 지어 늘어서 있다. 봄이면 개나리, 개망초, 찔레, 제비꽃, 자주괴불주머니, 골무꽃 등 봄을 알리는 꽃이, 여름이면 자귀나무, 원추리, 하늘나리, 까치수염 같은 여름꽃이 시원스레 피어 반기어주고 산책길 곳곳에 옮겨놓은 유명 시인들의 시구는 평상시에 잠들어있던 감성과 우뇌를 깨워준다.

제석산의 줄기는 흡사 모세혈관처럼 그 지류가 곳곳으로 뻗어있어 여러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다. 주월동을 시작으로 봉선동을 빙 둘러 그 끝이 설원여고, 숭의중학교까지 이르니 진월동, 봉선동, 방림동 등 어느 방향이든 제석산은 길을 내어준다. 어느 곳을 선택하든 들어선 곳에서 산책로 중심으로 접어들면 우리는 곧 피톤치드와 솔 냄새의 상쾌한 향연에 빠져들게 된다. 한껏 차려입은 등산복 세트가 아니어도, 낮은 굽 신발에 청바지 차림이어도 가볍게 등산할 만큼 적당한 높이와 품으로 주민들을 맞아주는 산이다. 낮은 높이에 너른 산이기에 가볍게 30분에서 길게는 두세 시간까지 그날의 여유시간과 몸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코스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이곳만의 장점이다. 가까운 지인과 맘먹고 나선 산행이라면 가벼운 도시락 하나 챙겨 제석정, 운교정 등의 정자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산행을 이어가도 좋겠다.

그 외에도 2곳의 약수터와 중간 중간 체력단련시설, 벤치들도 곳곳에 놓여있어 산책길을 찾는 이들이 마음 놓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곳이기에 남구청에서도 제석산과 인접한 진월동 대주아파트 인근의 계곡 2곳을 비가 올 때 물이 흐르도록 하는 '레인가든'으로 조성한다고 하니 제석산을 사랑하는 이들은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새로운 제석산의 모습을 기다려 볼 일이다.

사실, 동구 주민들에게 언제든 제 품을 내어주는 제석산은 학교, 도로, 아파트 건설, 터널 공사 등을 이유로 곳곳이 잘리고 허물어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풍성한 동식물들을 키워내는 제석산을 생각하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저절로 떠올랐다. 굳이 배산임수와 같은 풍수지리를 들먹이지 않아도 내가 사는 집 뒤편에 자연 그대로의 푸르른 산이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은 마음마저 푸르러 지는 풍경임이 틀림없다. 그렇기에 제석산이 일상에서 자꾸 가팔라지는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고 복잡한 마음 내려놓고 싶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가고 안길 수 있는 어머니의 품 같은 산으로 남아주리라 믿는다.

제석산

시　　설 | 등산로 / 구름다리
년　　도 | 1999년(구름다리 완공)
운영시간 | 상시개방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일대

북구

초록신사를 만나는 산책길

광주시립미술관—광주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독일의 동화작가 미하일 엔데의 작품 '모모'에서는 현대인들이 회색 신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소중한 삶의 시간을 빼앗기고 피폐해져 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등장한다.

놀라운 통찰력이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회색빛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그렇게 지쳐갈 무렵 영혼의 센서가 깜빡거리며 갈망하는 색깔이 있다. 초록빛이다. 그렇기에 회색과 초록은 가장 먼 거리의 대척점에 있음이 분명하다. 효율과 능률과 성과의 용어가 가득 적힌 서류와 컴퓨터, 해결하고 풀어야 할 문제들에 둘러싸였던 일상에 지쳐갈 무렵 우리에겐 회색 신사가 아닌 초록 신사들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건강한 삶은 긴장과 이완의 균형임을 몸은 스스로 알고 있잖은가

'용봉초록습지', 북구 용봉동에 자리잡은 초록빛의 물기 머금은 습지 공원이다. 초여름에 찾은 '용봉초록습지'는 말 그대로 초록이 지천이다. 초록만으로도 충분할진대 촉촉한 '습지'까지. 그렇기에 이곳은 더욱 특별하다. 습지는 말 그대로 '물기가 있는 축축한 땅'을 말한다. 습지는 거의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 있다. 용봉초록습지의 산책길 초입에서 만난 안내문이 이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용봉초록습지

"용봉초록습지는 원래 산과 얕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자연 샘물이 솟아 나와 물이 맑고 깨끗하며, 왜가리, 물오리, 해오라기 등의 각종 철새가 날아오는 생태습지공원입니다. 공원 안에서는 숲 복원지, 조류관찰대, 계류, 경작지 비오톱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글을 찾아보니 한데 입을 모은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었다니!", "왜 이제야 알았을까?"

공원 내에는 습지뿐만이 아니라 아담한 호수, 생태 탐방로와 예쁜 산책로, 꽃밭, 조류관찰대, 각종 운동 시설들, 게다가 테라스에 앉아 공원을 한눈에 조망하며 차 한잔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카페도 자리 잡고 있다. 여유 있게 1시간쯤 머무르며 초록빛에 함뿍 물들다 보면 어느새 무거운 회색빛은 스르르 사라질 것이다. 벌써 콘크리트들이 뿜어내는 초여름의 열기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계절인데도 이곳은 시원하다. 산책하다 문득, 호수를 바라보니 회색빛 아파트 단지들마저 초록을 두른 호수 안에 풍덩 빠져 있다. 더욱 시원함이 한가득이다.

용봉초록습지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욱 인기가 많은 곳이다. 공원의 분위기가 자연 그대로를 닮아 주인과 반려견 모두가 만족하기에 충분하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이웃들이 많다 보니 공원 내 잔디밭 한쪽에서 자연스레 반려견과 견주들의 즉석 친목 모임이 이뤄진다. 또한, 이곳은 각종 새들이 찾아드는 휴식처이기도 하다. 조류관찰대에서 새들을 관찰하려다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자연 샘물이 솟아 나오듯이 맑기만 하다.

용봉초록습지는 그리 넓지 않다. 그렇기에 산책의 발걸음을 조금만 넓혀보자. 바로 이웃해 있는 비엔날레 전시관과 시립미술관 잔디밭으로.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럼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이 걸었던 곳을 말해달라. 그럼 당신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초록빛 산책길에 미술관을 들르는 당신 영혼의 빛깔은 파릇한 연초록이 분명하다.

비엔날레 전시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격년으로 번갈아 가며 열리면서 광주 시민들에게 예술 경험의 동심원을 넓혀가는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의 구심점이 이곳 비엔날레 전시관이다. 몇 년 전부터 비엔날레 전시관 광장과 용봉초록습지공원 일원은 주민들로부터 주목받는 장소가 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는 봄과 가을, 주말이면 공연과 음악회를 포함해 '공유 장터,' '물물교환 장터', '걷기대회', 등 각종 체험과 공연,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줄을 잇는다. 따스한 봄과 햇살 가득한 가을날 우연히 나선 산책길에서 이 행사들을 만난다면 마다하지 말고 함께 즐길 일이다.

그렇게 더 발걸음을 옮기면 광주역사민속박물관(구 광주시립민속박물관)과 광주시립미술관을 끼고 있는 너른 잔디밭이 한꺼번에 펼쳐진다. 가슴이 탁 트일 정도로 충분히 넓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랜 세월 많은 정성을 들여 잘 가꾸어진 잔디밭임을 알 수 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을 사로잡는 조형물들과 예술가들의 야외전시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 지금 예술공간에 들어와 있음이 점점 실감이 난다. 아니, 예술이 일상의 공간 안으로 걸어 들어와 있는 셈이다.

최근 새 단장을 하고 문을 연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앞에는 옛사람들이 사용했던 고풍스러운 조형물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어 보는 것만으로 추억에 잠기게 한다. 시립미술관 쪽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아이들이 왈칵 달려들고픈 충동이 일기에 충분한 알록달록하고 사랑스러운 조형물들과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잇달아 나타나 산책 나온 마음을 더욱 산뜻하게 북돋운다. 반려견이나 아이들과 함께 나선 산책길이라면 드넓은 잔디밭을 마음껏 뛰다가 중간중간 숨을 돌리며 찰칵찰칵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장소가 곳곳에 넘쳐난다.

시립미술관 옆 잔디광장인 광주아트파크는 봄부터 가을까지 광주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수많은 문화예술행사가 줄을 잇는다. 5·18 관련 문화예술행사, 야외에서 상영되는 모기장 영화

관, 야외 콘서트, 어린이목수축제, 기발한 콘텐츠들이 등장하는 아트피크닉 등은 이곳 연초록의 잔디밭과 어울려 시민들의 예술 감성을 한껏 고조시켜준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아직 시간이 6시 이전이라면 시립미술관 안으로 들어서 보자. 광주시립미술관은 최근 1층 로비를 북라운지로 탈바꿈시켜 시민 휴식공간으로 꾸몄다. 미술관 벽은 작품 대신 전면 통유리를 펼쳐놓았다. 커다란 통유리 너머로는 바람과 한가롭게 노니는 나무, 여유롭게 흘러가는 구름, 커다란 그네를 타는 아이들의 모습, 조금 전 산책하던 초록의 잔디가 작품이 되어 눈에 한가득 들어온다. 몸의 긴장을 풀고 시간을 잊은 채 하염없이 앉아 있고 싶은 공간이다.

시립미술관을 거닐다가 마침 진행 중인 전시가 마음을 잡아끈다면 슬며시 전시관으로 걸음을 옮길 일이다. 산책하느라 지갑을 가지고 나왔을 리 없지만 걱정하지 말라, 특별기획전시전을 제외하곤 모든 관람이 무료이다. 이곳 시립미술관 주변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선물해주는 솔숲도 있다. 넓은 잔디밭 맞은편 얕은 산에는 단풍나무와 벚꽃들이 조성되어 있다. 봄의 화사함과 여름의 시원함과 가을의 고즈넉함을 계절마다 만끽하며 거닐기에 충분한 장소이다.

광주시립미술관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초록빛을 한껏 머금은 눈과 땅과 습지의 촉촉함을 만난 발, 예술의 감성을 간직한 가슴은 다가오는 일주일의 건조한 회색빛을 또다시 감당해낼 힘이 비축되었음이 분명하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시　　설 | 지하1층_기계실,수장고,문화센터 강의실 /
1층_1~2전시실, 안내실, 물품보관소, 카페테리아,
어린이미술관, 문화센터 강의실 / 2층_3~4전시실,
미술도서실, 세미나실, 강당, 사무실 /
3층_5~6전시실, 옥상정원, 관장실 /
야외시설_팔각정 ,운동시설(테니스장 등 5종),
야외공연장, 잔디공원

년　　도 | 1992

운영시간 | 평일, 주말, 공휴일 10:00-18:00
(매월 마지막 수요일 20:00까지)
1월 1일, 설(당일), 추석(당일), 매주 월요일 휴무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2

연 락 처 | 062-613-7100

홈페이지 | https://artmuse.gwangju.go.kr

광주비엔날레

시　　설 | 전시실 1~5

년　　도 | 1995

운영시간 | 전시프로그램 및 기간에 따라 상이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111

연 락 처 | 062-608-4114

홈페이지 | https://www.gwangjubiennale.org/g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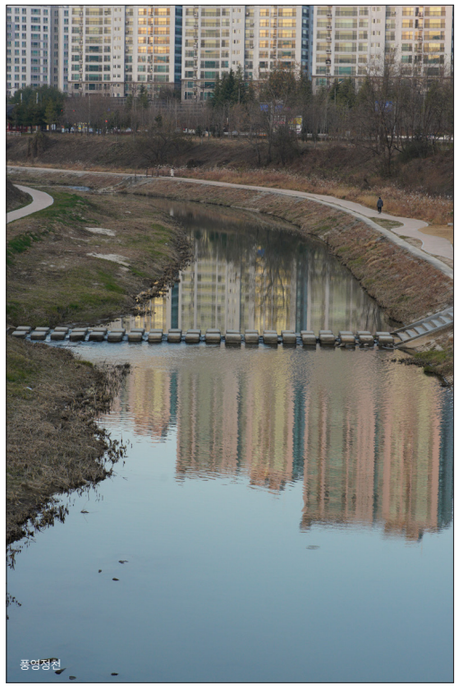
광산구

물길따라 걷는 산책길

풍영정천—수완호수공원&원당산공원—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풍영정천

풍영정천


풍영정천

인류는 오랫동안 물길에 의지해 살아왔다. 그 물길이 냇가인지 하천인지 강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물길은 언제나 인류를 키워낸 젖줄이었음이 분명하며 여전히 우리는 물길에 의탁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

광산구 주민들이 기대어 살고 있는 하천이 있다. 풍영정천이다. 풍영정천은 장성군 진원면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흘러 광산구 운남동에서 영산강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영산강의 제1지류이며 길이가 16㎞인 광주 대표 하천으로 이 중 7.4㎞가 광산구에 걸쳐 있다.

풍영정천은 이미 광산구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풍영정천을 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고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이 주민들로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하천 복원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풍영정천 사랑모임(풍사모)과 같은 환경시민단체의 활동들이 풍영정천을 돌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마다 10월이면 풍영정천 이곳저곳에서 문화행사와 체험행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풍영정천에 대한 애정을 담뿍 내보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이러저러한 이유로 풍영정천을 여러 차례 걷고, 뛰고, 찬찬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7킬로미터가 넘는 기나긴 풍영정천을 따라 걷고 뛰는 동안 인근 주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풍영정천

그도 그럴 것이 수완동에서부터 운남동에 이르는 천변물줄기에 바짝 잇대어 자리를 잡은 아파트 단지들은 거의 다 천변 산책로로 이어지는 출입구를 가지고 있다. 흡사 풍영정천이 기다란 열차와 같아서 양 옆으로 뚫린 출입구들로 승강장의 여행객들이 끊임없이 타고 내린다는 착각이 든다.

1시간 정도의 산책과 걷기와 조깅을 하기에 풍영정천은 안성맞춤이다. 완연한 봄에 다다른 어느 날, 풍영정천을 걸어보고 뛰어보았다. 그날의 산책코스는 월곡 1동에서 출발해 원당산 밑자락을 반환점 삼아 돌아오는 코스였다. 완연한 봄이 되면 풍영정천 주변에서 노랗고 빠알간 원색의 꽃들이 피어난다. 특히나 월곡동과 운남동 근처의 천변의 봄은 어김없이 개양귀비꽃과 야생화들이 만발하는데 그 빛깔이 어찌나 밝고 고운지 한 송이 꺾어서 집으로 가져가 책갈피로 만들고 싶은 충동을 참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사실, 풍영정천의 산책길은 아직 정교하게 정비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마치 시골길을 걷는 착각이 들게 한다. 연초록의 들풀들이 훌쩍 자라있고 천변을 향해 긴 팔을 내밀고 있는 초록의 나무들, 그들이 뿜어내는 내음이 연신 콧등을 스친다.

원당산공원

천변을 따라 양옆으로 줄지어 선 아파트 단지들은 마치 풍영정천의 물을 먹고 자라는 듯이 우람한 가로수처럼 그 키가 훌쩍 크다. 하지만 아파트들도 밤이 되면 천변으로 내려와 부드러운 곡선으로 일렁이며 수면 위에서 피로를 풀 것이다. 풍영정천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의 조명경관과 함께 어우러져.

한쪽 길로만 걷는 것이 지루해지면 걷는 동안 자꾸 눈길이 갔던 커다란 징검다리를 폴짝폴짝 뛰어넘어 언제든지 맞은편으로 건너가면 된다. 풍영정천이 흐르는 곳곳에 징검다리가 여럿 놓여있으니 유년 시절의 기억을 소환해볼 일이다.

수완동 쪽에 가까워질수록 조깅과 산책길에 나선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갓길의 수목들은 더욱 무성하여 풀내음의 농도가 진해진다. 걷기만 하는 게 따분해질 때쯤 슬슬 속도를 올려 조깅 모드로 바꾸어본다. 길은 왼쪽으로 슬슬 구부러진다. 풍영정천의 물길이 그러하니까. 1킬로미터쯤 달렸을까? 눈앞의 풍경이 완전히 바뀐다. 수완 택지지구의 널따란 도로들을 자동차로만 달리면 볼 수 없을뒤편의 모습들이다. 그 넓은 도로와 커다란 건물들 뒤편에 초록의 수목과 물길이 흐르고 있었구나! 가까이 봐야 잘 보이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말은 언제나 옳다.

잠깐 생각에 잠길 즈음 맞은편에서 같은 모습으로 조깅을 하고 있는 중년 남성이 눈에 들어온다. 같은 시각, 같은 동네, 같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와 나, 서로의 얼굴이 가까워져 눈이 마주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지나친다. 일과 삶의 긴장을 풀고 산책과 조깅의 여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몸이 '스스로 그러하게' 인사를 나누고 싶었으리라. 이곳에서는 지나가는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누구에게라도 부드럽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면 저편에서도 '안녕하세요'라고 즉시 응대해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30여 분이 지나자 벌써 수완동의 번화가인 롯데마트 인근이다. 참! 산책길이 5월을 넘어선 초여름이라면 반드시 수완호수공원을 들르자. 롯데마트와 아울렛 사이에 있는 수완호수공원은 6월이 되면 장관이 연출된다. 호수 위를 온통 수련이 뒤덮는다. 하양, 노랑, 분홍, 빨강의 꽃망울과 초록의 이파리들이 흐드러지게 호수를 뒤덮고도 모자라 수련들이 수면 위로 반영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다.

롯데마트 맞은편에는 산이 하나 자리 잡고 있다. 조금 전 산책하던 풍영정천에서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가파른 계단이 나온다. 계단을 단숨에 올라서면 만만한 높이의 동산과 구멍이 숭숭 뚫린 특이한 구조의 녹색 건물이 시야에 들어온다. 원당산과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이다. 이어지는 산책보다 잠깐의 휴식을 원한다면 이곳에 잠시 들러보길 추천한다. 이곳은 광주광역시 산하 공간으로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간의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바로 오른편에 계단식 멀티 플로어가 있어서 책 한권을 골라 푹신한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며 편하게 쉴 수 있다. 그 옆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누워서 뒹굴거리는 모습이 여유롭다. 멀티 플로어는 때로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별이 선명하게 보이는 계절에는 천문관측프로그램도 진행된다고 하니 아이들과 함께 별밤을 즐기러 와도 좋을 것 같다.

휴식보다 산책을 선택한다면 어릴 적 시골 동네 뒷동산의 감흥을 맛보고 싶은 사람은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들어서면 된다. 아이들과 함께 나선 산책길이라면 고민할 겨를도 없이 왼쪽 길로 이미 들어서고 있을 것이다. 동화 속에 등장할 법한 숲속의 나무집들과 자연과 조화를 이룬 신기한 놀이기구들이 손짓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당산 '숲속모험놀이터'이다. 조금 전까지 평지의 딱딱한 콘크리트만을 밟느라 고생한 발에 충분한 보상을 해줄 시간이다. 푹신한 흙을 밟으며 경사로를 오르기 시작하면 몸이 먼저 좋아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참, 산을 내려갈 때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자동찻길을 택하지 말고 좀 전에 올라왔던 길을 되짚어 왼쪽 나무 데크길을 택하자. 산책길 양옆에 서 있는 예술가들의 사랑스러운 작품들에 눈길을 주다 보면 금세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앞 너른 잔디밭에 이르게 된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린다. 풍영정천을 관리하는 광산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풍영정천의 밝기, 경관, 조명, 산책로를 개선하고 광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광산구 주민들의 발걸음이 풍영정천으로 더 많이 이어지고 삶의 건강과 행복이 더 나아질 것이 분명하다.

산책과 걷기는 인류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훌륭한 무기이다. 질병으로부터, 각종 번뇌로부터, 과다한 일상의 중력에 포위당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 왔던. 그 증거와 증언들은 넘치고 넘쳐난다. 길을 걸으면서 자기 몸의 힘을 느끼는 경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험, 하루 동안 쌓인 피로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경험.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인간에게서 걷기의 능력을 앗아가려는 환경들일지 모른다. 자신만의 방에 갇혀 가상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 네모난 화면처럼 축소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능력은 내 몸과 자연을 만날 기회를 주는 산책과 걷기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풍영정천

시　　설 | 산책로 / 운동시설
년　　도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9-179~183호
운영시간 | 상시개방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에서 영산강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
연 락 처 | 062-960-8682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시　　설 | 1B_노래연습실, 음악실, 댄스실 /
1F_커뮤니티카페, 요리체험장, 당구이용장 /
2F_다목적강당, 프로그램실, 상상라운지, 멀티플로어 /
3F_멀티플로어, 야외정원, 프로그램실
년　　도 | 2018
운영시간 | 화~토요일 09:00-21:00 / 일요일 09:00-18:00 /
월요일, 법정공휴일, 개관일(3.16) 휴무
주　　소 | 광주 광산구 장덕로96번길 15
연 락 처 | 062-962-1388
홈페이지 | http://www.wdsyouth.co.kr

수완호수공원&원당산공원

시　　설 | 수완호수공원(산책로, 야외무대) /
원당산공원(산책로, 원당산공원전망대, 생태놀이터)
년　　도 | 수완호수공원(2006년) /
원당산공원(2013년)
운영시간 | 상시개방
주　　소 | 수완호수공원(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82번길57) /
원당산공원(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연 락 처 | 1899-5566

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16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구 본관)
017 전일빌딩 245
018 5·18민주화운동기록관
019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020 만귀정
021 벽진서원
022 상무대 옛터(5·18자유공원)
023 서창향토문화마을
024 사직공원
025 양림동 오웬기념각 & 우일선 선교사 사택 & 유진벨선교기념관
026 최승효가옥 & 이장우가옥
027 국립5·18민주묘지
028 무진고성지
029 원효사
030 김봉호 가옥
031 무양서원
032 월봉서원

역사문화공간

Historical Culture Space

write. 정혜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총 다섯 개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민주평화교류원'은 광주의 상징인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네트워크 허브이며, 문화정보원은 아시아문화자원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는 곳이다. 어린이문화원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곳으로 체험 및 놀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도서관이 있는 곳이다. 예술극장은 복합예술극장으로 다양한 예술공연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창조원은 문화예술콘텐츠 창작발전소로 아시아의 역사나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시하고 있다. 문화창조원 옆에는 하늘마당이라는 살짝 경사진 잔디밭도 있다. 이곳에서도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각 시설들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금액이 다 다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에서 소식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한번에 받아보려면 페이스북으로 친구 등록하거나 그 외의 SNS에서 팔로우를 맺어 소식을 보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https://www.acc.go.kr/)"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각종 소식들을 이메일로 받아보는 방법도 비교적 편하게 예정된 공연이나 문화프로그램 소식을 알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바로 지하에 주차장들이 마련되어 있고 주차공간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다.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때는 "동구청"이나 "문화전당역"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두 정류장 모두 도보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까지 5~10분 이내에 있는 곳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노무현 정부가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에서 시작되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곳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물들은 우규승의 "빛의 숲"을 기반으로 건축되었다. 전라남도청이 있던 곳이라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곳이며 아시아문화전당 공간 전체가 디자인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곳에 대한 역사적 의의과 공간의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린다.

시　　설 | 민주평화교류원 / 문화정보원 / 문화창조원 /
예술극장 / 어린이문화원

년　　도 | 2015년

운영시간 | 내부시설 10:00~18:00
(12~02월 07:00-22:00)
외부시설 매일 06:00 - 22:00
휴무 매주 월요일, 신정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연 락 처 | 1899-5566

홈페이지 | https://www.acc.go.kr/

주변공간 **전일빌딩 245**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구 본관)

의학박물관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부지에 있다. 전남대학교 병원 제2주차장 입구 옆에 있기도 하다. 의과대학 주차장은 관계자 외에는 주차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차는 바로 옆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유료)이나 동구청에 세워둬야만 한다. 대중교통으로는 “전남대병원오거리” 버스정류장이 가장 가깝다. 의학박물관은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으로 오는 게 보다 더 편리하다.

의학박물관은 1948년에 착공되어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에 완공되었다. 당시에는 광주 의과대학 본관과 전남대학교 본부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간호대학으로 쓰이다가 현재는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시대에 건립된 대학 건축물과 비교할 때 한국전쟁 중에도 꾸준히 건축공정이 진행된 점, 모더니즘의 세련된 디자인, 조적조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연결의 적합성 등 역사적, 건축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어서 2018년 8월 6일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참조). 박물관으로 재단장하기로 처음 결정된 시기는 2003년이었다. 의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후 각종 사료 수집 및 조사를 하였으며 의학박물관 건립에 관한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2012년에 개관하였다.

3층은 주로 회의실과 간호역사관이 있으나 의학박물관의 볼거리는 2층에 가장 많다. 상설전시실에는 의과대학 건물에 걸어두었던 옛 동판과 목판들이 있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및 병원의 100년 역사에 대한 타임라인도 전시되어 있다. 특히 인큐베이터 초기 모델이나 심근계 검사 등 1950~80년대 치료기기들이 눈에 띈다. 2층에 있는 ‘5·18의학관’에는 5·18 당시 당직을 섰던 전남대학교 병원 의사들의 진료일지가 걸려 있다. 혈액을 구하지 못해 애먹었던 당시 상황이나 환자들의 환부 특징에 대해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1층 문석홀에서는 “정오음악 감상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시 30분에 시작된다.

금남로의 전일빌딩 245와 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보기 전에 잠깐 이곳을 거쳤다 가는 코스를 추천한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의학박물관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린다. 1910년 광주에 자혜의원이 개원되면서 시작된 광주 의학 100년 역사를 간단히 둘러보고 가자.

시　　설 | 1F_ 관장실, 학예연구실, 서봉홀, 세미나실(문석홀),
체험전시실, 수장고, 화장실 /
2F_상설전시실, 5·18의학관, 기증유물전시실 /
3F_상설전시실, 백학홀, 수장고, 도라지홀

년　　도 | 1951년 9월 준공 /
2012년 8월 21일 의학박물관 개관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휴무 주말, 법정공휴일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백서로 160

연 락 처 | 062-220-4381(의학박물관 학예연구실)

홈페이지 | www.medicalmuseum.ac.kr

주변공간 **전남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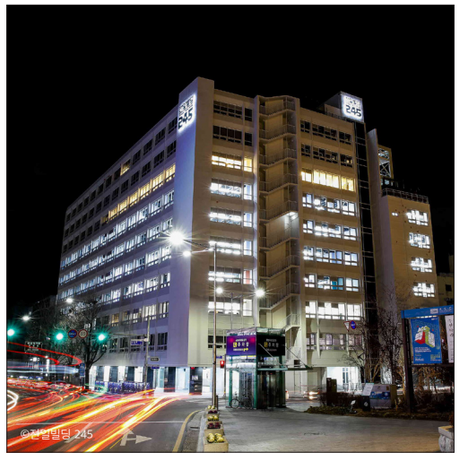
전일빌딩 245

전일빌딩245는 1968년에 지어진 전일빌딩을 그 역사적 가치에 따라 재단장하여 올해 재개관한 곳이다. 2013년부터 지상 1층을 제외하고 다른 층들은 안전상의 문제로 폐쇄되어 있었던 곳이다. 처음에는 이곳의 상징과도 같던 전남일보(현 광주일보)와 전일방송이 입주해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곳이 다른 회사로 합병되면서 비워졌고, 건물이 노후해지면서 회사가 입주하지 않아 공실률이 높아졌던 상태였다.

전일빌딩245가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다사다난했다. 이곳을 2011년에 낙찰받았던 광주광역시 산하의 도시공사는 처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다가 5·18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장소의 역사적 의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헬기로 사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자국이 이 건물 10층에서 대거 발견되었다. 전일빌딩245의 '245'라는 숫자는 이곳에서 발견된 헬기 총탄자국 수에서 따온 것이다. 이곳은 2017년에 5·18사적지로 지정된다.

전일빌딩245는 옥상의 전망대부터 올라가 보아야 한다. 동서남북 각기 보이는 풍경이 다르니 천천히 둘러보는 묘미가 있다. 바로 아래 10층에서 당시 헬기기총소사 흔적인 총탄자국을 볼 수 있다. 유리 스카이워크가 놓여져 있고 창가 쪽 벽면에 설치된 거울을 통하여 총탄자국을 볼 수 있게끔 해두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시 대기 중이다. 해설시간은 하루에 다섯 번이지만 시간 외에도 방문자에게 간단한 해설을 해주고 있다. 9층까지 5·18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가짜 뉴스를 소개, 가짜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전시물과 영상물도 굉장히 많다. 8층에 위치한 카페245의 아메리카노가 2,5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니 무등산을 비롯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 전경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셔보기 딱 좋다.

7층부터 5층까지는 문화콘텐츠 창작공간으로 콘텐츠 및 ICT기업들이 입주해있다. 4층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다면) 시민 누구나 소정의 절차와 사용료만 납부 후 중·소 회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층에는 다양한 기획전시가 가능한 시민갤러리가 있어 작가 및 시민들이 공간을 대여하여 이용하고 있다. 1층 피어라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부터 3층으로 연결된 디지털정보도서관이 있고 광주시립도서관 회원 가입 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2층에는 여행하고 싶은 도시 광주, 다시 찾고 싶은 광주를 소개하는 남도관광센터 안내데스크, 광주추천여행, 나만의 관광코스, 광주360°, 남도톡톡, 광주라이프, 아트마켓, 유아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다.



간단하게 둘러봐도 넉넉히 1시간 30분은 잡아야 한다. 만일 10층과 9층까지 다 볼 생각이라면 하루 종일이 걸릴 것을 예상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특히나 재밌었던 구간은 2층 디지털 정보도서관 앞에 있는 이야기 자판기이다. 시나 소설, 좋아하는 문학의 장르를 선택하여 터치하면 한 구절이 자판기 음료처럼 나온다. 기대할법한 낭만적인 구절이 아니라 『난중일기』나 『여운형투쟁사』의 전투에 관한 구절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것 또한 이곳을 즐기는 묘미 중 하나이다. 가장 윗층부터 총탄자국을 비롯한 5·18의 비극에서 출발하여 가장 아래층의 이야기 자판기로 즐겁게 마무리하는 코스를 추천한다.

이곳은 아시아문화전당과는 2~3분 거리로 대중교통으로는 “전남여고”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정류장에서 내려가면 된다. 정류장 앞에서 ‘전일빌딩245’ 간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P.S. 전일빌딩245가 위치한 금남로 1가는 지금의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옛 광주은행 사거리까지 광주시에 의해 ‘유네스코 민주인권로’로 지정된 곳이다. 1980년 5월 26일, 죽음의 행진을 시작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비극을 상징하고 있는 거리인 만큼 해년마다 많은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5월 17일마다 금남로 1가의 차량을 통제하고 5·18전야제를 개최한다. 뿐만 아니라 해년마다 봄과 가을에 ‘프린지 페스티벌’과 ‘추억의 총장축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공연이 진행된다. 시기에 맞춰 전일빌딩 245와 함께 금남로 1가에서 열리는 축제의 열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다.

시　　설 | B1F_전일살롱 /
1F_종합안내데스크, 전일아카이브, 프리즘 245 /
2F_남도관광센터, 디지털정보도서관, 유아휴게실 /
3F_디지털정보도서관, 시민갤러리, 5·18과 언론 /
4F_전일생활문화센터, NGO센터, 중·소회의실 /
중·소회의실 / 5F_광주콘텐츠허브 /
6F_광주콘텐츠허브 / 7F_광주콘텐츠허브 /
8F_VOC라운지, 다목적강당, 광주웹툰지원센터,
굴뚝정원, 카페245 / 9F_19800518, 다목적강당 /
10F_19800518 / RF_전일마루

년　　도 | 2020년

운영시간 | B1F, 1F, 3F 시민갤러리, 4F, 8F, RF 전일마루
09:00~22:00
(1F, RF 전일마루 동절기 09:00~21:00)
1F 프리즘245 09:00~18:00
2F 남도관광센터, 3F 디지털정보도서관, 9F, 10F
19800518 10:00~19:00

주　　소 | 광주 동구 금남로 245

연 락 처 | 062-225-0245

주변공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화운동기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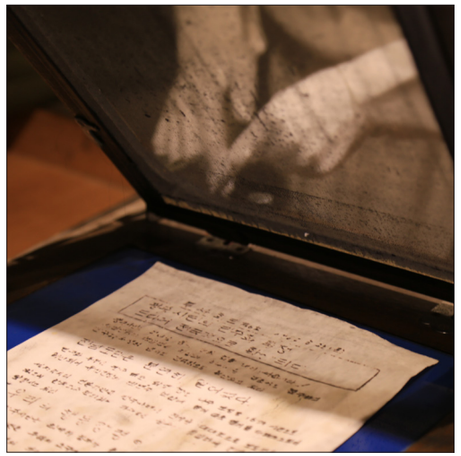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기록물을 수집, 전시·홍보, 연구하고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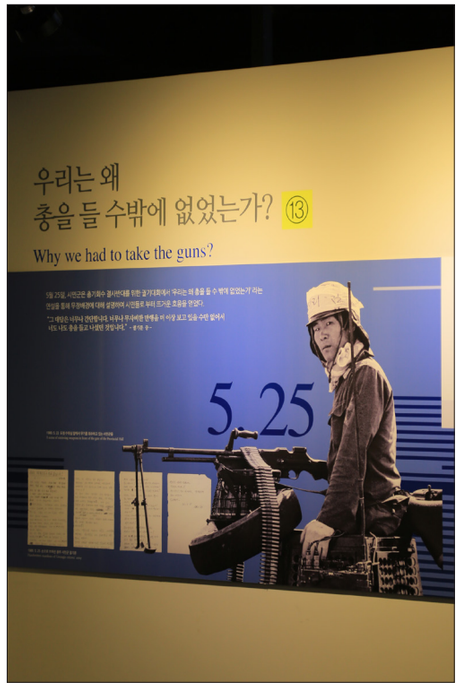
1층 전시실에는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민족민주성회와 횃불행진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계엄군에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의 사진, 5·18희생자들의 약력과 사진이 있다. 2층에는 5·18 시민군의 활동 기록과 영상, 증언 영상, 1980년 당시 시민들이 생산한 문서 및 유품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5·18 당시 국내외 언론 보도자료와 판결문, 진상조사 회의록, 미국 비밀해제문서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3층에서는 금남로를 내려다볼 수 있으며 5·18 관련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실 및 기획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4층은 도서 열람실, 6층은 카톨릭센터에서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했던 방과 1980년 당시의 윤공희 대주교 집무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민들과 함께 계엄군의 만행에 대응했던 조비오, 김성용 신부님 관련 자료와 유품도 전시되어 있다. 7층은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과 세미나실이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세미나실 및 다목적 강당은 대관이 가능하다. 대관 문의는 062-613-8284로 하면 된다. 대관신청 담당자에게 미리 전화하여 대관하려는 날짜에 예약 가능한지 문의한 다음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에서 대관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bangy2k@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용료는 120명 수용이 가능한 가장 큰 다목적 강의실이 한 시간 기준으로 7,500원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5·18 기록물이 무엇인지,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은 어떠한지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곳의 정기해설을 들으면 된다. 정기해설은 10시, 11시, 2시, 3시, 4시 30분이다. 해설 예약도 가능하다. 온라인 및 전화접수(062-613-8288) 전부 가능하다. 예약 해설은 최소 인원 10명부터 가능하다. 해설은 약 3~40분 정도 소요된다.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5·18 사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회당 인원은 30명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방문객은 금남 주차장(동구 중앙로 196번길 9)을 이용할 수 있다. 금남 주차장의 주차증을 가지고 1층 안내 데스크에 확인 도장을 받으면 2시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시　　설 | 1F_상설전시실1, 안내데스크 / 2F_상설전시실2 /
3F_상설전시실3, 기획전시실, 영상실, 안내데스크/
4F_어린이열람실 및 수유실, 일반열람실, 서가 /
5F_수장고 / 6F_윤공희대주교실 /
7F_다목적 강당 및 세미나실

년　　도 | 2015년

운영시간 | 09:00~18:00
휴무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 추석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1

연 락 처 | 062-613-8204

홈페이지 | https://www.518archives.go.kr/

주변공간 | 전일빌딩24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 전남도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주차장에 진입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기념회관)이다. 더 올라가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 있고 정면에는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이하 기념탑)이 있다. 기념회관은 1967년 동구 황금동에 처음 건립되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2014년에 지금의 화정동으로 옮겼다. 기념관은 그보다 먼저인 2005년에 화정동의 현재 자리로 이전하였다.

기념회관은 자료실과 학습실, 평생학습실을 위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던 광주 고등학생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지역 학생들의 학습과 교양 함양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곳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바둑, 공예, 논술 등 학생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도예, 서예, 영어회화 등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lib.gen.go.kr/student/)를 확인하거나 문헌정보과(☎221-5563)로 문의하면 된다.

더 올라가면 보이는 기념관은 1층에 참배실이 있고 2층에 광주학생운동의 발단 및 전개 과정에 관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 “이름 없는 별들(1967)”을 상영하고 있다. 이 영화는 유튜브로 볼 수도 있다. 당시 학생독립운동이 벌어졌던 나주역과 광주역을 세밀하게 재현해놓은 게 이 영화의 특징이다. 기념관만의 독특한 점은 일제시기 형무소의 독방을 재현해놓았다는 점이다. 이곳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한 평 남짓한 당시의 독방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독립운동을 벌이다 수감되었던 학생들의 심정과 정신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문화관해설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 예약 없이 찾아가도 먼저 다가와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 어떠한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응해주시니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배우기에 이만한 선생님도 없을 것이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기념탑은 계단이 가파르고 많다. 총 113개의 계단이다. 1929년부터 시작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인 11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서울뿐만 아니라 함흥에까지 전국에서 일어났던 학생독립운동의 시초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다. 몇몇의 조선인 여학생들이 기차역에서 일본인 학생들에게 희롱을 당한 게 발단이 되어 일왕의 생일이었던 명치절인 11월 3일, 조선인 학생들에게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하면서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농업고등학교, 전남사범학교 학생들이 합세하여 광주중학

교(지금의 광주고등학교)까지 행진했던 것이 시작이었다.

북구 누문동의 광주제일고등학교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이 또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광주고등보통학교가 현재의 광주제일고등학교이기 때문이다. 광주제일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모금운동을 벌여 1953년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정에 세웠다. 화정동의 기념탑과는 다른 정취가 있다.

이러한 의미의 113개의 계단을 오르면 제법 숨이 찬다. 그래도 오르면 제법 경치가 좋다. 주변에 산책길도 잘 돼있어서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역사 공부도 할 겸 나오기 좋은 곳이다.

시　　설 | 1F_어린이실, 북카페, 장애인실, 관리과 /
2F_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음악공간), 강당, 회의실 / 3F_학습실, 평생학습실1, 동아리방, 역사연구동아리, 휴게실, 보존서고1, 하늘정원 /
4F_평생학습실2, 평생학습실3, 평생학습실4, 평생학습실5, 평생학습실6, 학생의회실, 휴게실, 문헌정보과, 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
지하_식당, 카페, 매점

년　　도 | 1967년 11월 03일(동구 황금동 개관)
2014년 09월 02(화정동 이전)

운영시간 |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북카페, 장애인실
09:00~18:00(주말~17:00) /
학습실: 07:00~22:00 /
휴무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정기휴관,
일요일 제외한 법정공휴일, 개관기념일(11월 3일)

주　　소 | 광주 서구 학생독립로 30

연 락 처 | 062-221-5500

홈페이지 | http://lib.gen.go.kr/student/

주변공간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학생독립운동기념탑

만귀정

만귀정(晩歸亭)은 이곳을 지은 장창우가 노년에 자연과 더불어 보내겠다는 뜻의 수중 정원이다. 이곳은 영산강줄기가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영산강은 예전에 극락강으로 불렸을 만큼 주변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만귀정은 그 이름처럼 자연을 보며 시 한 구절 읊기 좋은 곳이다.

만귀정은 흥성 장씨의 선조인 장창우가 노년에 자연을 즐기며 살기 위해 지은 곳이지만 이곳에서 후학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세웠던 초당은 세월이 지나며 없어졌다. 하지만 후손들은 1934년에 선조인 장창우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연못과 동산을 만들고 만귀정을 중건하였다. 1945년 중수해서 오늘날의 수중정원 형태를 갖추었다(‘대한민국 구석구석’ 참조). 그래서 지금까지도 흥성 장씨 문중이 이곳을 관리하고 있다.

만귀정에는 별도의 주차장은 없다. 그렇지만 만귀정 앞에 야트막한 빈 공간이 있으니 이곳에 차를 세워두면 좋을 듯싶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순환01’을 타고 세하동 정거장에서 내리면 된다. 버스정류장에서 만귀정까지는 여성의 걸음으로 3분이면 충분하다.

연못 사이로 만귀정과 습향각(襲香閣), 묵암정사(默菴精舍)가 다리를 두고서 연못을 가로지르며 늘어서 있어서 그 풍경이 독특하다. 가운데 있는 습향각은 꽃향이 스며드는 곳이라는 뜻으로 연못 한가운데 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묵암정사는 장창우의 7세손이자 만귀정을 증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송정 읍장 장안섭의 덕행을 기리기 위해 광산군민이 성금을 모아 건립한 팔각지붕의 정자이다.

만귀정에서 습향각으로 건너가는 다리 옆에는 취석(醉石)이라고 새겨진 돌이 있고 습향각에서 만귀정으로 돌아오는 다리 옆에는 성석(醒石)이라고 새겨진 돌이 있다. 들어올 때는 취해있더라도 나갈 때는 깨끗한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뜻으로 당대 풍류를 즐길 줄 아는 문인들이 즐겨 찾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한다. 물론 여기서 취한다는 건 술과 꽃, 모두를 뜻한다.

이곳만의 눈에 띄는 특징은 습향각에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일제 시대 일본 침략전쟁 협력자인 신철균과 남계룡의 단죄문이 세워져 있다는 점이다. 습향각에 이러한 표지판을 세운 까닭은 이곳에 두 친일파의 시문이 습향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묵암정사로 나와서 연못을 한 바퀴 쭉 둘러보면 된다.

만귀정과 습향각, 묵암정사 어디서든 쉬어가도 좋다. 근방의 카페는 서창향토문화마을에 두 군데 있다. 서창향토문화마을까지는 여성의 걸음으로 약 15분 정도 걸린다. 차로는 1분 거리이다.

시　　설 | 만귀정 / 습향각 / 묵암정사

년　　도 | 1984년 2월 29일(문화재지정일)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동하길 10

연 락 처 | 062-360-7012(광주 서구청 문화관광팀)

홈페이지 | https://www.seogu.gwangju.kr/culture/

주변공간 서창향토문화마을

벽진서원

벽진서원을 네비게이션으로 검색해서 가면 풍암동 SK뷰아파트가 보이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 골목길에 접어들어서 직진해서 쭉 가다 보면 전용 주차장이 있으며 왼쪽에 벽진서원 홍살문이 보인다. 대중교통으로는 '일곡28'이나 '진월17'번이 있다. '운리마을' 정류장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쭉 길 위로 따라 올라가면 된다.

벽진서원은 임진왜란 때 의병도청을 설치하고 군량미를 조달하여 고경명과 김천일을 도운 공신 박광옥의 영정과 위폐를 모시고 있는 서원이다. 1602년(선조 35년) 후학들이 벽진사우를 건립하고 1604년에 벽진서원으로 개명하였다. 이후 향사와 교학에 힘써 왔는데 1681년에 숙종은 선생을 도승지로 증직하고 김덕령을 배향하며 의열사라 사액을 내렸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대동훼철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27년 윤리영당을 신축하였다. 1999년 묘소와 영당이 도시개발지역에 포함되자 묘소를 이장하고 지금의 자리, 풍암동으로 옮겨왔다. 2017년 뜻있는 유림과 학자 그리고 후손의 바램으로 벽진서원을 복설하였다. 서원의 이름이 벽진서원인 이유는 본래 풍암동이 아니라 벽진동에 있었기 때문이다.

벽진서원은 금당산 기슭에 있다. 돌담벼락을 지나면 보이는 홍살문 쪽으로 올라가서 계단을 올라 숭의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안에는 박광옥의 위패를 모신 의열사와 학문을 강학하는 벽진서원 숭본당이 있다. 벽진서원에서는 매년 두 차례 선생님을 기리는 제사가 올린다. 봄에는 지역 유림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가을에는 음성 박씨 문중 주관으로 진행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벽진서원을 가기 전에 이곳을 둘러보고 싶다면 미리 음성박씨 종친회에 연락을 하고 가야 한다. 벽진서원에 상주하고 있는 이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닫혀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내부를 둘러보기 좋은 방법이다. 청소년인성교육 무료강좌와 유교아카데미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인성교육 무료강좌는 초등학생 4학년부터 중학생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재 및 간식도 제공되고 있다. 다도 예절이나 인사예절, 투호놀이를 통해서 협동정신을 가르친다. 유교아카데미 강좌는 퇴계와 율곡의 유학사상이나 유교, 박광옥의 유적유물에 대해서 개설되어 있으며.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음성 박씨 종친회나 010-3337-1000으로 하면 된다.

시 설 | 벽진서원

년 도 | 1602년(선조 35)

출처_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벽진서원(碧津書院)

운영시간 | 사전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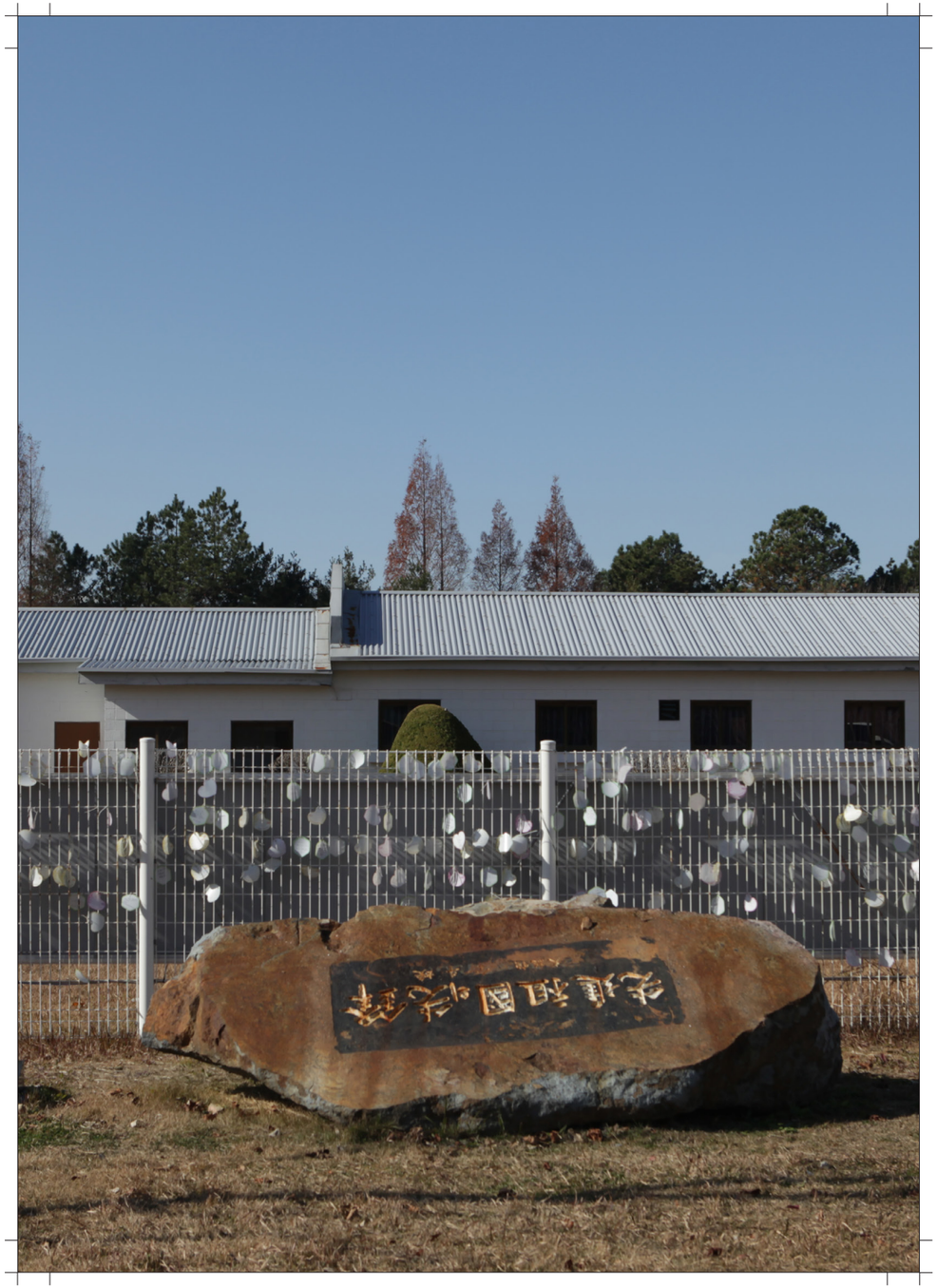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송풍로 42(풍암동 769-1)

연 락 처 | 062-682-8755 /

010-8432-2673(음성 박씨 종친회)

홈페이지 | 벽진서원.com

주변공간 | 금당산



상무대 옛터(5·18자유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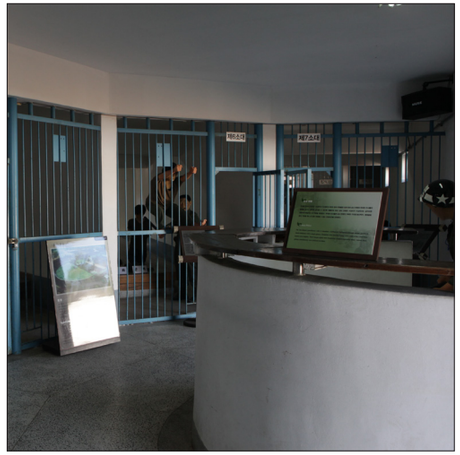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5·18자유공원에 1998년 상무대 옛터를 복원해놓았다. 상무지구는 육군 초급 간부를 육성하는 군사교육시설인 상무대가 있던 곳이라서 상무지구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곳은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상무대 이전을 공식 발표하면서 1995년에 신도심으로 개발되었다. 5·18 때 군사재판을 했던 상무대 법정과 영창은 신도심 개발을 하면서 원래 있던 곳에서 100m정도 떨어진 지금의 자리로 이전되어 복원되었다.

상무대 법정과 영창을 편하게 보고 싶다면 5·18교육관 쪽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게 편하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너편 쪽으로 5·18자유공원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나 주말에는 만석이다. 상무대 법정 및 영창을 재현해 놓은 곳은 하얀 철창으로 가로쳐져 있다. 5·18교육관 주차장에서 어울림 아파트가 보이는 쪽으로 가면 그 끝에 5·18 자유공원과 보존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다. 대중교통으로는 “순환1”이나 “좌석2”번 버스를 타고 “5·18자유공원”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5·18교육관 주차장 쪽에서 들어가 바로 보이는 왼쪽의 건물이 ‘5·18자유관’이다. 5·18에 관한 영상과 5·18항쟁 타임라인 및 강의실 등이 있다. 5·18자유관을 먼저 들러서 5·18에 먼저 배우고 상무대 영창과 법정을 둘러보자. 5·18자유관에서는 법정·영창 역사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5·18교육관 주차장에서 들어가 바로 보이는 오른쪽이 1998년 복원·재현해 놓은 상무대 법정과 영창이다. 표지판에는 ‘보존지역’이라고 쓰여있다. 보존지역에는 사진 및 영상, 당시 성명 발표했던 문서나 군자료의 복사본들이 전시되어 있다. 5·18을 주제로 한 <화려한 휴가>와 같은 영화도 볼 수 있다. 헌병대 중대 내무반을 돌아서 헌병대 식당과 목탕, 면회실을 지나 영창으로 들어가면 당시의 영창이 어떠했는지 볼 수 있다.

상무대 법정과 영창이 있는 입구 쪽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시대기하고 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며 해설 가능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062-613-5184나 010-4500-5440으로 미리 예약해야 한다. 최소 인원은 10명이나 5·18에 대한 배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더 적은 인원수로도 해설을 해준다고 한다.



시 설 | 5·18자유관 / 헌병대중대 내무반 /
헌병대 본부 사무실 / 창고 / 식기세척장 /
헌병대 식당 / 목욕탕 / 면회실 / 영창 / 법정 /
야외화장실 / 들불열사 기념탑

년 도 | 1998년

운영시간 | 09:00~18:00 연중무휴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78

연 락 처 | 062-954-3113 /
062-376-5183(5·18자유관 사무실)

주변공간 | 김대중컨벤션센터, 상무시민공원

서창향토문화마을

서창향토문화마을은 만귀정에서 차로 1분 거리에 있다. 이곳은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본래 한옥이 많던 곳으로 전통문화프로그램이나 농촌생활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전통한옥마을로 조성되었다. 광주시 서창은 조선 중기에 형성된 마을이다. 세동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의병 김세근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다. 서창이라는 명칭은 광주 서쪽에 위치한 창고라는 뜻이다. 영산강에서 거둬 올린 생선과 수확한 곡식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보관하던 곳이었던 데서 유래하였다. 지금 말로 하면 물류센터가 있던 곳이랄까. 서창향토문화마을에는 서창한옥문화관을 비롯해 야은당과 의병장김세근공적비·열부김씨행적비 등이 있다. 그리고 해년마다 '서창 만드리 풍년제'가 열린다('두산백과' 참조).

서창향토문화마을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봐야 할 곳은 서창한옥문화관이다. 서창한옥문화관 대문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에 '오손도손 공방'이 있다. 이곳에서 한복을 대여해 입어볼 수 있고, 짚신도 신어 볼 수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전통 매듭팔찌, 향낭 만들기, 엽전 열쇠고리 등을 만드는 공예체험도 할 수 있다. 또한 학기제로 운영하는 풍물놀이, 전통 채색화, 보테니컬아트(세밀화) 등 문화프로그램을 수강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전통문화체험과 기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매년 다르게 구성된다. 프로그램별 참가비도 각기 다르니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서창한옥문화관 사무실에 문의하면 된다.

서창한옥문화관은 한옥 숙박 체험이 가능한 한옥스테이도 운영한다. 총 4개의 객실로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객실의 이름은 서창지역 인물 4인의 이름을 따왔다. 다양한 전통체험과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서창한옥문화관은 아이들이 있는 가족과 초등학교에서 주로 방문한다.

1층에 서창 마을주민들의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마실이 있다. 아메리카노는 2,5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마을 주민이 직접 만든 수제차와 전통음료도 마실을 찾는 단골들에게 인기 메뉴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재배한 농산물과 직접 제작한 각종 공예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찾기 좋은 곳으로 서창한옥문화관 뒤켠에 있는 서창한옥작은도서관이 있다. 이곳 역시 한옥으로 지어졌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서적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소 아쉽지만 유명한 동화책은 구비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소설과 물리학 책도 있어서 엄마와 아빠가 볼 만한 책들도 많다. 서창한옥

작은도서관에는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캘리그라피나 책 제작, 손글씨 교육이 진행된다. 대부분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무료이다(재료비 별도). 이곳 역시 해년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다르니 서창한옥작은도서관(062-385-9073)으로 먼저 문의해 보아야 한다. 매주 월요일 휴관이며 운영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다.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는 운영시간이 한 시간씩 늦춰진다. 11시부터 7시까지 개방한다.

시　　설 | 서창한옥문화관 본관, 서창한옥문화관, 사무실,
서창마을협동조합 카페 마실, 오손도손 공방,
한옥스테이 객실(김세근·박광옥·박호련·박상실) /
서창한옥문화관 별관 세하당 /
옥외_서창한옥작은도서관

년　　도 | 2014년 / 2017년(개편)

운영시간 | 서창한옥문화관 화~일요일 09:00~18:00
(수요일 09:00~18:00)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무
서창마을협동조합 카페 마실 월~일요일 09:30~18:00
휴무 별도 공지
서창한옥작은도서관 화~일요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무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놀재로 420 서창한옥문화관

연 락 처 | 062-373-1365(서창한옥문화관 사무실),
062-385-9073(서창한옥작은도서관),
062-382-7707(카페 마실)

홈페이지 | www.schanok.or.kr

주변공간 | 야은당, 만귀정

사직공원

서울에도 사직공원이 있다. 광주 사직공원은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서울의 사직공원과 마찬가지로 신에게 제를 올리던 사직단이 있던 곳에 조성된 곳이다. 갑오개혁 이후 사직제가 폐지되었다가 1994년, 광주향우회가 사직제를 부활시켰다. 대중교통으로는 “향교” 정류장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올라가야 한다.

사직공원의 랜드마크는 역시 전망대다. 팔각정이 있던 자리에 팔각정의 모양새를 반영해서 지었다고 한다. 2014년에 팔각정이 오래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자 전망대를 세운 것이다. 광주광역시 건축상도 수상한 구조물이다. 팔각정의 뼈대가 사직공원 전망대 옆에 보존되어 있다. 전망대에서는 광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동서남북, 서는 곳에 따라서 무등산도 보이고 조선대학교도 보이니, 각기 다른 곳에 서서 광주의 전경을 감상하자. 망원경도 있다. 사직공원 전망대의 망원경은 별도 요금 없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또한 사직공원의 옛 모습을 담아낸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다. 전망대 2층에는 쉼터가 있다.

사직공원에는 1960년대 말 동물원이 있었다. 사직공원에 있던 동물원은 1991년, 현재의 우치공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 광주패밀리랜드가 우치공원에 생기면서 동물원을 옮기게 된 것도 있지만 사직공원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였던 까닭도 있다. 사직공원은 1924년 일본 황태자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소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벚나무를 심으면서 공원으로 재조성한 역사가 있는 곳이다. 원래는 사직제를 지내는 곳이니 엄숙한 분위기였을 곳이 공원으로 조성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1990년대 초반, 광주시민들이 광주사직단의 옛 모습을 되찾으려고 시작하였고 1993년 사직단을 복원하였다. 동물원은 한국의 전통과 정신을 복원하려는 광주시민의 활동으로 인해 옮기게 되었다(출처: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양림동 펭귄마을과 양림역사문화마을과 인접해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도 대략 30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 이참에 광주천을 따라 걸으며 양림동 펭귄마을과 역사유적지, 아시아문화전당과 전일빌딩245까지 둘러보자.

시 설 | 전망대 / 공연장

년 도 | 1993년(복원)

운영시간 | 09:00~22:00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길 59

연 락 처 | 062-652-3236

주변공간 | 양림근대역사문화마을,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양림동 오웬기념각 & 우일선 선교사 사택 & 유진벨선교기념관

양림동의 테마투어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테마는 총 건축(전통가옥, 선교지역 근대건축물, 근현대 건축물)과 선교(일반, 특별, 저자 투어), 예술(문학, 예술)로 세 가지이다. 포털사이트에 “양림역사문화마을”이라고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온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visityangnim.kr 투어 최소 인원은 10명이다. 코스별로 시간이 다르지만 대략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 “양림역사문화마을”에서 문화관광해설사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우일순선교사저택과 오웬기념각, 유진벨선교기념관만이 아니라 어비슨기념관이나 수피아여고 등 양림동에는 볼 거리가 더 많다. 위의 세 군데를 순차로 보고자 한다면 어비슨 기념각 → 오웬기념각 → 우일순선교사사택 → 유진벨선교기념관(양림미술관)을 순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오웬기념각 건너편에 어비슨기념관이 있으니 이곳을 먼저 보고 오웬기념각으로 들어가면 된다.

오웬기념각은 기독간호대학 부지에 있다. 오웬기념각 내부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지만 회색 벽돌을 네덜란드 식으로 지어놓은지라 바깥에서 유럽식 건축물의 정취만 구경해도 좋다. 전라남도 최초의 선교사로 광주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클레멘트 C. 오웬(한국명 오원 또는 오기원)과 그의 할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하여 1914년에 건립한 건물이다. 오웬은 1909년, 기념각을 짓기 위해 모금을 하던 중 과로로 사망하였는데 이후 동료들과 미국의 지인들이 준공하여 1914년에 완공하였다. 내부에 나무 기둥을 세워 목재 지붕틀을 받쳤다.(“두산백과” 참조). 전남 최초 선교사인 오웬 선교사의 기념관 건립 목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각 현판에는 그의 할아버지 이름인 WILLIAM L.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우일선 선교사 사택은 미국인 선교사 우일선(Robert M. Willson)에 의해 1920년대에 지어졌다고 전해지며 광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주택이다. 우일선은 1908년 제중원(현 기독병원)의 원장이 되어 의사로 선교활동을 하였다. 양인제과 사잇길로 들어 가다보면 호랑가시나무 언덕 게스트하우스(뉴수마 선교사 사택)가 보인다. 그 옆길로 올라가면 우일선 선교사 사택이 나타난다. 이 건축물 역시 회색 벽돌로 네덜란드식으로 지어져있다. 주변에는 브라운 선교 사택이나 인도아 선교사 사택 등 일제 강점기 광주를 찾았던 선교사들의 사택이 줄지어 서있다.

우일선 선교사 사택에서 유진벨선교기념관까지 도보로 약 10분정도 걸린다. 유진벨선교기념관에는 양림미술관이 ㄱ자 형태로 마주보고 있다. 유진벨 선교사는 광주전남지역에 교회 및 선교부를

설립한 분으로 그의 후손들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기념재단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유진벨 선교사의 아내인 로티벨의 묘비석이 1층에 전시되어 있으며 묘지석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총탄 자국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진벨선교기념관 바로 옆에 오방최흥종기념관이 있다. 2019년 10월에 개관한 곳으로 나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광주 최초 목사이자 광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방 최흥종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1층에는 김구 선생이 오방 최흥종에게 직접 적어준 "화광동진(和光同塵)"이라는 휘호와 오방 최흥종이 사용하였던 성경들 및 각종 영상들이 전시되어 있다. 오방 최흥종이 목사의 길을 가게 된 에피소드들이 흥미롭다. 한때 최망치로 불리던 이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과정은 하나의 인간이 각성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만든다. 유진벨선교기념관을 둘러본 후 광주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헌신하였던 이의 정신을 살펴보는 것도 양림동을 즐기는 좋은 코스이다.

양림동은 말할 필요 없이 양림역사문화마을부터 펭귄마을까지 볼거리가 근대건축물에서 전통가옥, 작은 미술관이며 기념관 등 풍부하고 다양하다. 그만큼 카페와 빵집, 식당도 다양하고 많으니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여유롭게 앉아있다 오는 것도 추천하는 바이다.

시　　설 | 오웬기념각 / 우일선 선교사 사택 / 유진벨선교기념관
년　　도 | 1998년(광주유형문화재 지정일) /
1989년(광주기념물)
운영시간 | 오웬기념각 연중무휴 /
우일선 선교사 사택 연중무휴 /
유진벨선교기념관 09:00~18:00(월요일 휴무)
주　　소 | 광주 남구 백서로70번길 6 /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47번길 20
연 락 처 | 062-650-7647 /
062-607-2333(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과)

주변공간 | 사직공원, 최승효 가옥, 이장우 가옥

최승효가옥 & 이장우가옥

양림동역사문화 마을에는 최승효 가옥과 이장우 가옥이 있다. 이 두 곳이 가장 잘 보존이 되어있어서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마을에 (비록 조금 무너져 내렸지만) 오래된 한옥들이 많은 편이다. 마을을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카페도 무척 많다. 주차는 양림동역사문화마을 공용주차장에 하면 된다. 대중교통으로는 “전남대병원오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여성의 걸음으로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된다.

최승효 가옥은 정면 8칸 측면 4칸으로 규모가 큰 팔작지붕이다. 기와는 유약을 바른 적색 기와가 특징이면 정면에 비대칭 수법을 사용하여 율동감을 주는 등 전통가옥이 개화기 한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곳이다. 최승효 가옥은 1920년대 지어졌으며 건립자인 최상현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재력가로 이곳의 안채인 자이당을 짓기 위해 백두산과 압록강 인근의 목재만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목재가 썩지 않도록 바다에 3년간 담가두었다고도 하니 그의 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히 상상도 되지 않는다. 건립자가 독립운동가여서인지 이곳은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이 피신하던 장소로 쓰이기도 했다고 한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참조).

실제로 최승효 가옥이 있는 곳은 직선으로 큰 길을 먼저 내고 자동차가 닿기 편한 곳에 주거를 세워서 인간 중심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의 합리적 사고방식에 의해 조성된 동네가 아닌, 사람의 발길이 주위의 나무나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닿는 대로 나게 된 길에 집들이 만들어진 동양인의 자연까지 하나의 세계로 바라보는 총체적인 관점과 습성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전통 마을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최승효 가옥은 찾아가는 그 길이 구불구불하고 좁고 마을의 안쪽 깊숙이 있어서 그 시절에는 독립 운동가들이 의탁하기 좋은 곳이었을 것이라 짐작하게 한다. 그렇지만 결코 보잘것없는 곳은 아니었을 것이다. 최승효 가옥은 가는 길에 비해 안쪽은 웅장하다는 반전이 있기 때문이다. 길들을 거쳐 거쳐 대문을 열면 다른 세상이 나타난다. 현대적 조형물들이 고택의 정취를 더 살린다.

1965년 이곳을 인수한 최승효 선생이 민속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게끔 노력하였으며 현재는 그의 아들인 설치미술가 최인준 씨가 소유하고 있다. 내부는 현 소유자의 예술작품이 고택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최승효 가옥과 이장우 가옥은 도보로 2~3분 걸린다. 아주 가깝고 표지판도 많아서 찾아가기 쉽게 되어 있다.

이장우 가옥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 곳간채, 대문간으로 구성된 전통 상류 가옥이다. 1899년 정병호가 안채와 대문간을 건축하였고, 1959년 이장우가 매입한 후 사랑채와 행랑채, 곳간채까지 완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안채가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곳간채는 한때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2009년도에 복원되었다(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현재는 이장우 가옥의 소유자가 학교법인 혜인학원으로 되어 있다. 이장우 가옥의 이장우 박사는 동강유치원과 동신중·고등학교, 동강대학교와 동신대학교를 설립하여 이 지역 교육에 이바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세운 학교법인이 현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장우 가옥이 문화재로 등록된 시기는 1965년으로 이장우 박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민속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내부는 정갈하다는 인상을 먼저 받는다. 탁 트인 정원은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고 연못은 지저분한 구석 없이 깨끗하여 눈이 시원해진다.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태가 곳곳에 있다.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안채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들어열개문으로 되어 있지만 평소에 안채까지 열어 두지는 않는 것 같다. 소유자의 후손들이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곳이니 조심히 둘러봐야 할 것 같다.

이장우 가옥은 공휴일에는 개관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대문간 옆에 놓여 있는 돌기둥에 올라서서 안을 구경하면 된다. 최승효 가옥에서 이장우 가옥으로 가는 길에는 작은 개인 미술관들이 제법 있는 편이다. 한희원 미술관도 보이고 박구환 갤러리도 보인다. 고택의 정취와 함께 현대미술도 함께 감상해보자.

시　　설 | 최승효가옥 / 이장우가옥
년　　도 | 1989년(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지정일)
운영시간 | 10:00~18:00 / 09:00~18:00
　　휴무 공휴일
주　　소 | 광주 남구 양촌길 29-4 / 광주 남구 양촌길 21
연 락 처 | 062-607-2333(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과)

주변공간 | 양림동 우일선 선교사 사택, 오웬기념각,
　　유진벨선교기념관

국립5·18민주묘지

광주 시내버스인 “518번”이 30분 간격으로 이곳을 지나고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곳까지 오는 데 큰 불편함은 없다. 버스정류장에서 국립5·18민주묘지의 입구 격인 ‘민주의문’까지는 여성의 걸음으로 약 10분 정도 걸린다. 주차장도 야외에 크게 조성되어 있다.

국립5·18민주묘지는 총 2개의 묘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묘지는 1994년 김영삼 정권이 묘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망월동 구묘역 바로 옆인 운정동에 지금의 모습으로 1997년 완공하였다. 이곳은 흔히 신묘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립 5·18민주묘지는 5·18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따라 2002년에 대통령령에 따라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5·18기념재단 및 국립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참조).

‘민주의문’으로 들어가면 왼편에 5·18추모관이 있다. 이곳에는 5·18을 기리는 각종 조형물과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상물이 상시 상영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광주의 동네 어귀를 재현해놓기도 하였다. 5·18민중항쟁추모탑은 ‘민주의문’에서 들어와 명당수와 화계연못을 지나서 추념문을 가로질러 쭉 들어가면 된다. 추모탑의 양 옆에는 무장항쟁군상 조형물과 대동세상군상 조형물이 있다. 5·18민중항쟁추모탑 뒤로는 제1묘역이 있다. 추모탑 앞에는 5·18영령들에게 묵념을 올릴 수 있도록 참배단이 마련되어 있다. 향을 향로에 놓은 뒤 간단히 묵념을 올리면 된다.

5·18민중항쟁추모탑의 오른쪽에 유영봉안소가 있다. 5·18민중항쟁추모탑의 왼쪽에는 어린이체험학습관이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임진왜란의병이나 동학농민운동 등 부조를 새긴 벽으로 둘러싸인 역사광장이 있다. 이곳을 지나면 숭모루가 보이고 그 너머로 제2묘역이 있다.

5·18구묘지(망월동 구묘지)는 제2묘역을 지나서 올라갈 수 있게끔 오솔길이 있다. 올라가는 길목마다 윤상원 열사의 일기 한 구절이 이들을 추모할 수 있는 글귀가 곳곳에 새겨져 있다.

국립묘지는 사회와 국가를 의해서 공헌한 분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곳이기도 하다.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들도 조심스럽게 다닌다. 이곳은 전체적으로 경건한 분위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갈 때는 역사의 참상을 고려하여 숙연한 마음으로 찾아뵈어야 한다.

시　　설 | 5·18추모관 / 5·18민중항쟁추모탑 / 제1묘역 / 유영봉안소 / 어린이체험학습관 /야외공연장 / 숭모루 / 제2묘역

년　　도 | 1997년(개원일)

운영시간 | 09:00~18:00 연중무휴

주　　소 | 광주 북구 민주로 200 국립5·18민주묘지

연 락 처 | 062-268-0518(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주변공간 | 5·18구묘역, 민족민주열사유영봉안소

무진고성지

무진고성지의 주소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산 136 일대라고 나온다. 이 주소로 무진고성지를 찾아가려면 두암 3동의 밤실마을에서부터 약 1시간 가량 산을 타고 올라가야만 한다. 밤실마을에서 무진고성지까지 올라가는 산길은 경사 70도 정도의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비탈길로 토사가 유출되어 있어서 오르기 아주 어려운 길이다. 올라가는 길의 경사도 경사지만 무진고성지를 들어가는 오솔길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다. 등산에 자신이 있거나 허벅지를 벌크업 시키고 싶은 이라 할지라도 이 길로 올라가는 것은 완전히 비추천이다.

무진고성지를 보고 싶다면 광주광역시 북구 청풍동 368-5번지나 무등로 689번지로 검색해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르다. 다만 무등로 689번지는 도로 한복판이기 때문에 차를 주차할 수 없다. 광주 북구 무등로 671번지에 있는 광주 무등산 “전망대” 카페에 차를 주차하고 도로변을 약 6~7분가량 걸어가는 게 비교적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러나 무등산 전망대 카페 앞의 주차장은 카페를 찾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곳이니 음료 한 잔씩 사는 센스를 발휘해야 한다. 무등로 689는 도로폭이 좁아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가 없는 상태이다. 무등산 전망대 카페에서 무진고성지로 올라갈 때 최대한 길 가로 붙어서 걸어야 하며 손전등이나 휴대폰의 불빛으로 도로를 지나는 차들에게 사람이 있다는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무진고성지가 있는 이곳은 잣고개라고 불린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무진고성지 탓이다. 잣고개의 ‘잣’이 성(城)을 가리키는 옛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이 있는 고개’라서 잣고개라고 불리는 것이다. 무진고성지는 통일신라 시대에 쌓인 산성으로 추측하고 있다. 성벽은 다듬어진 사각형의 돌로 기틀을 마련하여 그 위에 품(品)자 형태로 돌을 쌓아 올린 모양새이다. 돌의 틈틈에 잡석들이 채워 넣어서 견고하게 지어 놓았다.

무진고성은 고려 시대인 12세기까지 사용하다가 폐기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성의 성격과 기능을 밝히기 위하여 1988년과 1989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두 차례 발굴조사를 하였으나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다만 유사시를 대비하여 마련한 배후 산성일 가능성이 제시하였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벽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길이 나있다. 올라가면 광주 전경이 내려다보인다. 무등산에 있는

문화재나 기념물 등 역사유적지들을 보고 싶다면 무진고성지에서 광주의 전경을 둘러다 보고 충민사와 원효사를 들러보는 게 가장 좋은 코스이다.

시　　설 | 무진고성지
년　　도 | 통일 신라
운영시간 | 없음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689
연 락 처 | 062-410-6622(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과)
홈페이지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주변공간 | 무등산 전망대 카페

원효사

광주 무등산 자락에는 하늘정원이 있다. 그곳은 바로 원효사이다. 원효사는 대한불교조계종 21교구 송광사의 말사(末寺)이다. 처음 건립된 시기는 불분명하다. 1980년 5월 대웅전을 해체 복원한 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물론, 통일신라시대 유물들까지 나온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내지 통일신라 때 창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효성사(AD 617~684)가 무등산이 좋아 암자를 지은 곳이어서 원효사로 불린다.

원효사 일주문까지 1187번과 1187-1번 버스가 들어온다. 원효사가 종점이며, 3~40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된다. 버스의 번호는 무등산의 해발고도 1,187m에서 따왔다. 자동차로 올 경우에는 버스 종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요금은 소형차의 경우 3,000원, 선불이다. 버스 종점과 유료주차장에는 일주문이 있다. 여기에서 원효사까지 걸어서 10분 정도이다. 가는 길목이 그다지 가파르지도 않으며 볕이 들 짬도 없이 나무가 우겨져 시원하다. 이끼가 낀 돌들을 보면서 걷는 것도 상쾌하다. 일주문에서 원효사 입구까지는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일주문에서 원효사까지 가는 길 중간쯤에 '원효사 입구' 라 새긴 바위가 있다. 그 바위옆에는 원효대사부도를 비롯하여 여러스님과 공덕주들을 모신 부도탑 군락이 있다. 원효사 입구 바위에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원효사가 나온다. 원효사에는 승려들이 수련하는 곳(외부인 출입 불가)도 있고 대웅전, 약사전, 원효전과 지장전, 범종도 있다.

이 모든 곳 중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은 원효사로 들어가는 입구 정면의 누각이다. 이 누각에서는 무등산의 모든 봉(천왕봉, 지왕봉, 인왕봉)들의 능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원효사 뒤쪽으로는 원효봉이 자리하고 있고, 앞쪽으로는 의상봉이 있다. 이 절경만으로도 원효사를 와야 할 이유는 충분해진다. 원효사를 하늘정원이라 칭한 이유도 이 누각에서 보이는 풍경 때문이다. 와불상처럼 누워있는 듯한 무등산의 능선을 하늘에서 보는 것만 같다.

일주문 쪽에도 옆에 '첫새벽'카페가 있고, 원효사 입구에도 카페가 있어 쌍화차, 대추차를 비롯한 전통차와 현대식커피를 목을 축일 수 있다. 하나 있다. 원효사에서 진행되는 문화프로그램은 여러 가지이다. 사찰에서 매일하는 상시기도와 특별기도가 있다. 특히 원효스님의 다례재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와 사찰체험을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 전통 산사

문화재 행사로 컬러링북 만들기나 팝업북 만들기, 숲체험, 각설이타령 배우기, 산사음악회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다. 전통산사문화재에서 진행하고 대부분 참가료는 무료이다. 대신 대상이 학생과 학부모로 한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신청 전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원효사에서 나와 유료주차장까지 나와서 숲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각종 음식을 파는 산장들이 늘어서 있다. 산장 앞의 계곡이 너무 멋있으니, 파전을 먹으면서 무등산 여행을 마무리해보는 것도 좋다.

시　　설 | 원효사 / 기도접수처/ 카페
년　　도 | 미상
운영시간 | 09:00~17:00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514-35
연 락 처 | 062) 266-0326 / 010-7207-0326

주변공간 | 무등산국립공원

김봉호 가옥

주택가에서 느닷없이 역사가 펼쳐진다. 온갖 상가와 원룸 건물들이 있는 곳을 걷다가 기와가 얹어진 엄청난 규모의 흙담벼락으로 둘러쳐진 전통가옥이 나타난다. 주택가 한복판에 세워진 드라마세트장 같지만 이곳은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5호로 등록된 김봉호 가옥이다.

김봉호 가옥은 1940년대 지어진 곳으로 2018년에 돌아가신 김봉호 어르신의 개인저택이다. 현재는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내와 거주하고 있다. 개인저택임에도 광주광역시문화재자료 25호로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곳이 개발의 논리로 과거와 역사가 떠밀려 나가는 때에 1940년대 농촌전통가옥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저택이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절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김봉호 어르신과 그 아들의 꼼꼼한 성격과 집에 대한 애정 탓이다.

집 내부 구석구석에는 이곳에 사는 이의 섬세한 손실이 느껴진다. 전체 645㎡(약 800평) 규모로 아름드리 솟은 대문을 지나면 갖가지 나무들이 있는 가지런한 정원이 있다. 정원 너머에 보이는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1칸으로 된 목조건물로 지붕은 팔자(八)자 형의 기와이다. 왼쪽부터 방, 부엌, 큰 방, 대청마루, 건넌방 순으로 되어있다. 가장 큰 특징은 안채 대청에 '공루'로 불리는 다락이 있다는 점이다. 큰 방에서 대청, 건넌방 3칸 규모인 것과 더불어 대청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있다는 점은 다른 전통가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라고 한다. 하지만 안채는 때때로 문이 잠겨있어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안채 옆에는 문간채가 있다. 이곳은 김봉호 어르신의 아들 내외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안채 왼편으로 눈을 돌리면 작은 정자가 보인다. 이곳은 정비각(情碑閣)으로 김봉호 어르신의 절친인 정주연 어르신이 돌아가시자 그를 기리기 위해 김봉호 어르신이 세운 곳이다. 정비각 뒤켠에는 두 분의 우정을 지켜봤던 옛 광주시장의 정비찬사 비석이 세워져 있다. 정비석 뒤로는 오솔길이 나있다. 이곳으로 경암근린공원을 갈 수 있다.

이곳을 둘러볼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실제로 김봉호 어르신의 후손이 살고 있는 개인저택이기 때문에 둘러볼 때는 소란스럽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김봉호 어르신의 아드님인 김형 선생님께서 살고 있으며 또한 이곳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자의 개인 사정으로 문이 닫혀있을 때도 왕왕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김형 선생님께 문의를 하거나 김봉호 가옥 뒤쪽에 난 오솔길을 올라서 800평 규모의 저택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시　　설 | 김봉호 가옥

년　　도 | 2000년(문화재지정일)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54번길 161

연 락 처 | 062-960-8252(광주광역시 광산구 관광육성과)

홈페이지 | www.wolbong.org

주변공간 | 경암근린공원, 경암어린이공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무양서원

무양서원은 광주의 옛 지명인 무진의 무(武)와 볕 양(陽)을 쓴다. '무진의 볕'이라는 뜻이다. 이곳은 고려 인종 때 어의로 지낸 최사전과 그의 후손 4명(최윤덕, 최부, 유희춘, 나덕헌)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 서원이다. 무양서원 입구에 무양공원 공용주차장이 있다. 아니면 '첨단9'번이나 '첨단30'번을 타고 " 무양서원"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무양서원이 있다.

무양서원은 1927년에 탐진 최씨 문중이 전국 유림의 호응을 얻어서 세운 곳이다. 가장 먼저 보이는 입구는 총 두 곳으로 왼편과 오른편에 합의문과 합인문이 있다. 합의문과 합인문 앞에는 우람한 느티나무와 소나무가 문지기처럼 서 있다. 합의문과 합인문을 지나면 오른편에 동재인 성지재가 있고 왼편에는 서재인 낙호재가 있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한 층 더 높은 곳에 무양사가 있지만 이곳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탐진 최씨 문중에서는 서원의 본 목적과 설립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1945년 무양중학교(현 비아중학교)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두산백과' 참조). 성지재와 낙호재에는 모든 벽에 동양철학자들의 글귀들이 쓴 현판이 걸려있다. 그 아래 뜻을 해설해놓은 해설문이 있으니 마음에 드는 가르침을 찾아나서 보는 것도 이곳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무양서원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어서 더 깊이 있게 배워볼 수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한다. 연중 가능한 달이 정해져 있다. 한 겨울철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하지 않고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만 문화관광해설사를 요청할 수 있다(문의 관광육성과 062-960-8892). 무양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교육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사전약방문>이라는 어의 수련 프로그램이 있다. 무양서원이 배출해낸 최사전이 고려시대 어의였기 때문에 공간의 설립 배경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문의는 광산구 관광육성과(062-960-8255)나 (사)광주문화나루(062-672-6966)에 문의하면 된다.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문화소통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역사 등에 대한 교육 및 체험으로 운영된다. 대신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다문화 가족이나 유학생,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주변에 한국의 역사를 궁금해 하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추천해주자. 문의는 재)고대문화재연구원의 문화산업실(062-651-3701)로 하면 된다.

시　　설 | 무양서원 / 무양공원

년　　도 | 1984년(문화재지정일)

운영시간 | 09:00~18:00

주　　소 | 광주 광산구 산월로21번길 26

연 락 처 | 062-960-8255(광산구 관광육성과)

홈페이지 | www.wolbong.org

주변공간 | 무양공원, 월계동 장고분, 무양공원

월봉서원

조선 중기,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였던 퇴계 이황과 새파랗게 어린 학자가 12년 동안 서한을 주고받으며 8년간 사단칠정 논쟁을 벌인 일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퇴계 이황의 에피소드이다. 새파랗게 어린 학자는 퇴계 이황보다 27살이나 어렸던 고봉 기대승이다. 월봉서원은 1578년, 고봉 기대승 사후 7년 뒤 호남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지은 교육시설이다. 지어질 당시에는 지금의 신룡동에 세워졌다가 1941년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고 한다('월봉서원' 홈페이지 참조).

이곳 월봉서원은 광주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에는 조금 벅차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보다 더 편리하다. 월봉서원을 찾아가는 길은 황룡강 누리길이기도 하니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드라이브하기 겸 오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자동차로 임곡에 접어들어 황룡강을 가로지르면 황금빛 들판과 강물의 푸른 빛이 가슴을 열어젖힌다. 월봉서원의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광곡경로당 앞에 주차하고 흙담벼락을 걸어보는 것도 추천하는 바이다. 가는 길목, 시골집마다 서 있는 감나무가 흙담벼락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정겹다.

월봉서원을 들어가면 빙월당이 먼저 보이고 그 뒤로 숭덕사가 보인다. 숭덕사로 들어가는 문은 잠겨있다. 숭덕사는 보지 못하지만 이곳은 볼거리가 많아서 숭덕사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덜 수 있는 곳이다. 빙월당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문을 닫은 이후 1941년, 광산동으로 이전하면서 새로 지은 곳이다. 월봉서원을 둘러보고 나오면 오른쪽으로 '철학자의 길'이 있다. 아마도 숲길을 걸으며 철학자처럼 깊이 사색해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은 듯싶다. '철학자의 길' 옆에는 신도비(神道碑)와 백우정이 있다. 백우정 쪽으로 쭉 산길을 오르면 기대승 생가가 있다. 이 코스는 백우산과 귀전암 터(기대승이 학문을 강론한 곳), 고봉 기대승의 묘소로 이어지다가 다시 월봉서원으로 나오는 코스이다.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을 예상하고 접어들어야 한다.

월봉서원에 관한 배움이 더 필요하다면 월봉서원 입구에 있는 해설안내소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요청하면 된다.

월봉서원에는 각종 교양과 기대승의 사상에 대한 배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월봉서원으로 들어서기 전에 있는 광곡경로당 건너편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동절기에는 재정비 기간을 갖는 "다시茶時"라는 카페와 공방도 있다. 차를 음미하거나 공방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 또한 고봉 기대

승의 학덕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춘·추향사제를 치르고 있으니 시기를 맞춰 사제를 보러 오자.

P.S. 월봉서원이 있는 곳은 넓은 마을이라는 뜻의 너브실 마을이라는 곳으로 기씨 성의 집성촌이다. 그러하다 보니 시골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매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래도 개들이 사납지는 않은 모양이다. 걷다가 개를 만나면 발을 크게 구르며 '저리 가!'를 외쳐주자.

시　　설 | 문화재 / 다시茶時, 공방 및 카페 / 월봉서원교육체험관, 세미나실, 유물전시관 / 철학자의 길, 산책로
년　　도 | 1979년(빙월당 기념물 지정일)
운영시간 | 09:00 ~ 18:00 연중무휴 (다시茶時_4월~11월 운영, 동절기 정비로 인한 휴무)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곡길 133
연 락 처 | 062-960-3827·8255(광산구 관광육성과), 062-951-6434(월봉서원 사무실)
홈페이지 | www.wolbong.org

주변공간 | 윤상원 생가

033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034 광주청년센터
035 미로센터
036 김대중컨벤션센터
037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038 유·스퀘어문화관
039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040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041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042 책문화공간봄 작은도서관
043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044 문화공동체 아우름
045 시화문화마을문화관
046 광산문화예술회관
047 소촌아트팩토리
048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문화실현공간

Cultural Realization Space

write. 김태희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언제나 북적이는 금남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삶디)는 금남로 옛 학생회관 자리에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는 청소년특화시설이다.

방역으로 인해 한동안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삶디로 발걸음을 향했다. 삶디로 들어가는 길목, 야외 공간인 문화정거장을 지나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민트색으로 칠해진 피아노와 '삶디'라는 글자를 우드 박스를 이용해 벤치로 만들어놓은 구조물이 인상적이다.

삶디에서는 지하의 생활목공방부터 6층의 몸짓작업장, 녹음 스튜디오까지 전체 7개의 층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시작과 발견 / 배움과 탐색 / 창작·공방 / 커뮤니티 / 문화·기획의 5가지 분야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삶디 안에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며 새로워지는 능력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삶을 디자인해 나갈 수 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공간 안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취미생활을 즐길 수도 있다.

건물 바깥에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식당'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작물을 기르고 있는 '모두의 텃밭'이라는 야외공간이 위치해 있으며 텃밭 맞은편에 담소를 나누며 쉴 수 있는 벤치와 작은 잔디밭이 있다. 오랜만의 방문인지라 1층 카페 크리킨디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서 삶디의 야외공간에 앉아 거리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각자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삶디에 방문하는 청소년들도 자기 삶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나마 여유로웠던 휴식시간을 마치고, 삶디를 벗어나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금남로 4가 쪽으로 가다 보면 광주폴리I '유동성 조절'이 설치되어 있는 금남로 공원이 걸어서 5-6분 거리에 있어서 잠시 쉬어가기에 제격이다. 혹시 가벼운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동시에 즐기고 싶다면 걸어서 웨딩의 거리를 지나 1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광주천변 산책도 좋은 야외 코스이다. 가볍게 광주천을 산책하다가 잠시 쉬고 싶을 때 금남로에 위치해 있는 광주광역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 1층에 위치해 있는 카페 크리킨디에 들러보는 건 어떨까 싶다.

시　　설 | 야외_문화정거장, 모두의 텃밭 / 지하_생활목공방 / 1F_어서옵쇼, 살림공방, 모두의 부엌, 카페 크리킨디 / 2F_미니극장, 회의실(와글와글, 시끌시끌), 열린책방, 소리없는 방, 공유책상 / 3F_활동지원실, 업무공간 / 4F_시각디자인방, 워크룸 / 5F_랄랄라홀, 합주실 / 6F_몸짓작업장, 녹음 스튜디오

년　　도 | 2016

운영시간 | 매주 화-토 10:00-22:00 / 일 10:00-19:00 / 월요일 휴무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37

연 락 처 | 062-232-1324

홈페이지 | samdi.or.kr

주변공간 **예술의 거리, 금남로 공원, 광주천**

광주청년센터

오랜만에 찾아간 광주청년센터는 올해, 금남로 지하상가에서 광주동부경찰서 옆쪽 지상으로 이사를 해서 새롭게 단장한 모습이었다. 지하상가에 있을 때는 공간이 띄엄띄엄 있었는데, 새롭게 이사한 공간은 1층부터 3층까지 건물 전체를 사용하며, 그 안에서 센터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광주청년센터를 방문했던 날은 회의가 있어서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미리 예약을 해야 했다. 1층을 들어서자 왼쪽의 공유 주방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2층 사무 공간을 지나 3층 공유 공간으로 들어서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인원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위치해 있어서 필요한 내용에 따라 청년들이 공간을 이용하기에 잘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래도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직은 좀 한산한 편이었지만 덕분에 공간을 찬찬히 둘러볼 수 있었다.

광주청년센터는 광주청년정책의 중심 공간답게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운영,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 설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청년들의 네트워크 지원, 마음 건강 상담 등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대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쉬운 점이라면 올해 이사 후,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공간 활용이나 프로그램 진행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모이는 상황에 대해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었으리라.

일정을 마친 후 광주청년센터를 나와 길을 건너니 5.18광장과 아시아문화전당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였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5.18광장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광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 모습들에서 활기가 느껴졌다. 광주청년센터 공간에 들렀다 와서인지 그곳에서부터 젊은 활기가 곳곳으로 이어지는 느낌이다.

시　　설 | 1F_공유주방, 심리/정책상담실 2F_사무공간
3F_공유홀, 공유공간1.2

년　　도 | 2015

운영시간 | 매주 월-금 10:00-20:30 / 토 09:30-17:30 /
일. 공휴일 휴관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38

연 락 처 | 062-232-1939

홈페이지 | www.gjyouthcenter.kr

주변공간 예술의 거리, 5·18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로센터

미로센터

볕 좋은 날 하루를 골라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미로센터로 향했다. 그전에 예술의 거리를 지나며 언뜻 봤을 때 건물 외관의 흰색 타공판이 희미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그 이후에 몇 번 행사 참여를 위해 가본 적은 있지만, 짧은 시간 행사장에만 들렀다 나왔기에 공간을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다. 미로센터를 구석구석 돌아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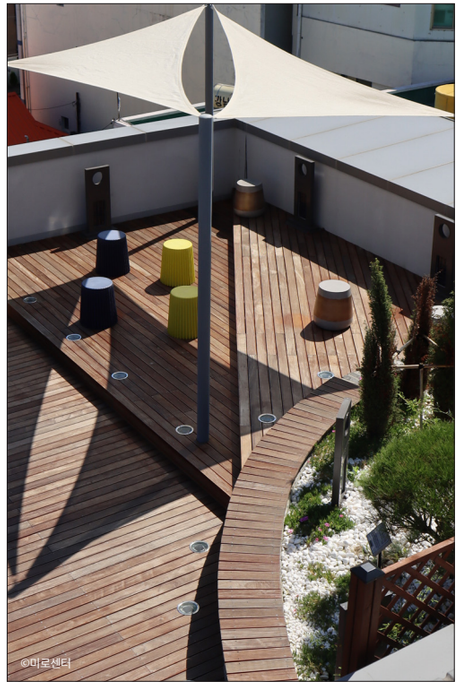
센터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공간은 1층의 미로카페였다. 광주 시민들이 힘내서 작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GARA-G POP UP STORE'(가라지 팝업스토어)가 운영되고 있었다. 미국에서 스타트업의 시작 공간으로 많이 사용됐던 차고의 디자인을 적용한 공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광주의 작가들과 함께 준비했다는 차고 느낌의 공간 안에서 노랑, 초록, 주황, 파랑 4가지 원색을 바탕으로 한 상품들의 전시와 판매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천천히 미로카페 안을 둘러본 후 입구 왼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 보니 2층 미로 창작방과 미로책방이 보였다. 문화도시재생에 관련된 서적과 지역 매거진이 비치된 미로책방을 들여다보니 조용히 책을 수 있는 분위기의 따뜻한 조명이 잠시 쉬었다 가라며 부르는 것 같았다. 그 부름을 따라 잠깐 쉬어갈까 싶기도 했지만, 공간 전체를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에 3층으로 향했다. 3층은 레시던시와 대규모 행사 진행이 가능한 미로극장이 있었다.

지난번 미로센터를 방문했을 때, 주차장 위쪽의 미로 가든 방향에서 출입이 가능한 공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로 이어지는 통로를 찾지 못하고, 결국 들어갔던 입구로 나와 미로가든으로 올라갔다. 미로가든을 지나 입구로 들어가니 왼편에 미로 라운지가 위치해 있다. 잠시 미로 라운지 안을 둘러보고 계단을 따라 걷다 보니 여기저기 위치한 작가들의 작업물이 눈길을 끌었다.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공간 곳곳에 작가들의 작품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 왠지 앨리스처럼 이상한 나라에 와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건물 안을 둘러보고 가장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1층의 무등갤러리다. 미로센터 내부와 예술의 거리 양쪽으로 입구가 있는 무등갤러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까지 천천히 둘러본 후, 좀 더 걷고 싶은 마음에 예술의 거리로 향했다.

남도의 정서가 담긴 서화, 도자기, 공예품 등의 전시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갤러리와 매장이 즐비한 예술의 거리를 걷고 있자니, 저만의 이야기를 담은 물품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외치는 소

©미로센터


©미로센터

©미로센터

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한 시간가량, 중앙초등학교 앞의 A4 갤러리에서 동부경찰서까지 길지 않은 거리를 천천히 걷고 나니, 동화책에 나오던 옛날이야기가 가득 담긴 이야기 주머니를 하나 얻은 것 같다.

시　　설 | 1F_미로카페/예술가의 방/무등갤러리,
2F_미로 창작방/미로책방/미로라운지/미로가든/
별미(별관미로),
3F_미로스튜디오 Ⅰ, Ⅱ /미로극장 Ⅰ, Ⅱ,
4F_미로 워크룸/모두미로/옥상_미로옥상정원

년　　도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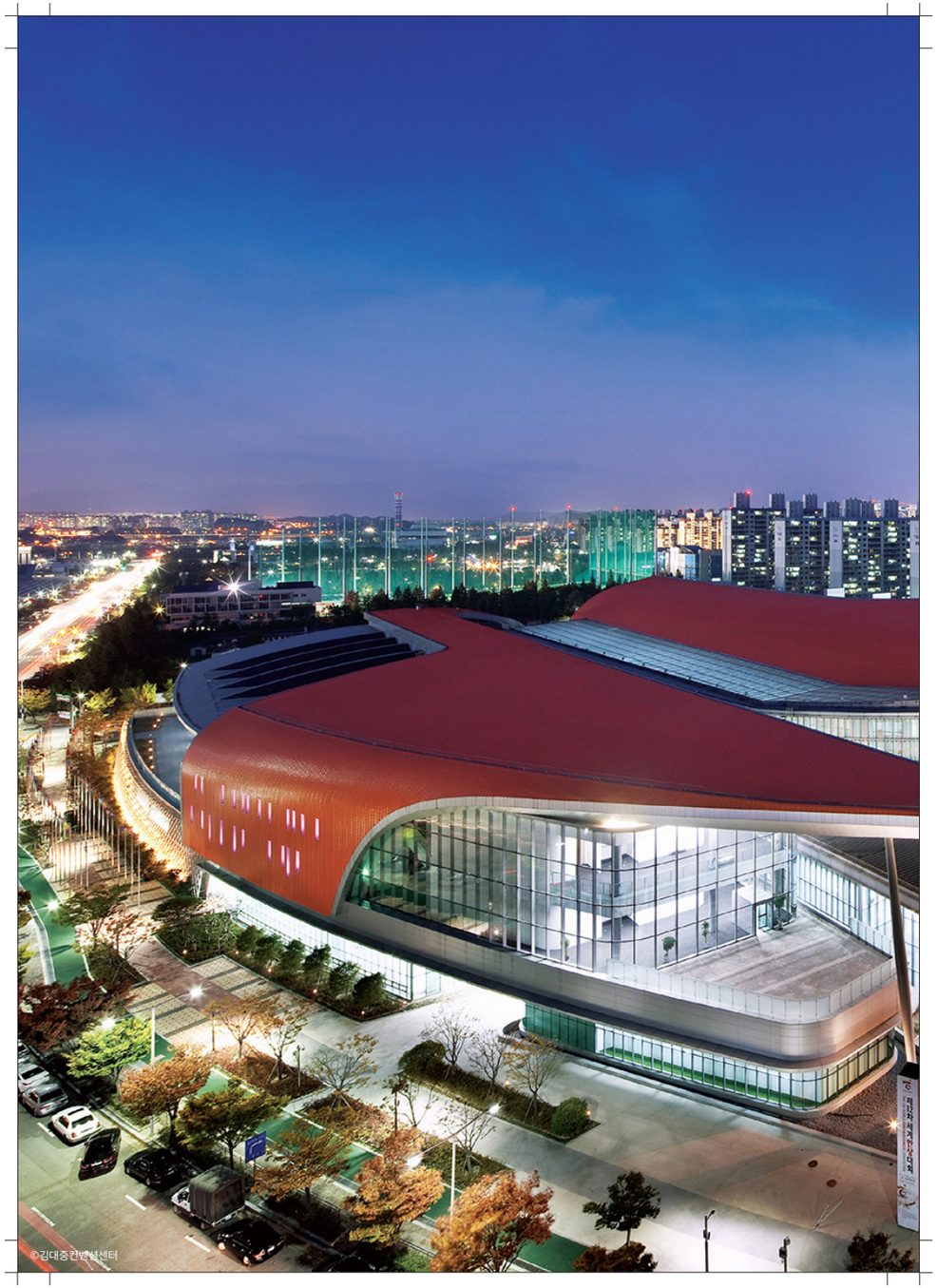
운영시간 | 매주 월-금 9:00-18:00 / 공휴일, 명절연휴 휴관 /
프로그램 운영시 평일 야간, 주말 개방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2

연 락 처 | 062-608-2132

홈페이지 | dgmiro.donggu.kr

주변공간 예술의 거리, 5·18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김대중컨벤션센터

연면적 58,542제곱 미터 규모의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광주전남을 통틀어 유일한 전시 및 비즈니스 대여 시설이다. 국제적 상품, 기술, 정보, 문화교류의 장으로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김대중 前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센터의 명칭을 지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매년 다양한 규모와 내용의 박람회, 공연, 전시 등이 진행된다. 2020년도만 해도 일자리 박람회, 웨딩박람회, 베이비페어, 민주인권평화포럼, 대한민국 민주장정 120년 전시 등의 여러 행사들이 진행됐다. 거기에 더해 4차 온라인 콘텐츠의 확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광주관광 VR 체험존, 비대면플랫폼 K-스튜디오 같은 체험 프로그램 및 플랫폼 운영에도 힘쓰고 있다.

대규모 전시 및 박람회를 위한 공간답게 김대중컨벤션센터 근처에는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숙박이 가능한 여러 숙소와 식당들도 위치해 있고, 김대중컨벤션역에서 지하철이 정차하기 때문에 교통 또한 매우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센터의 바로 옆에 5.18자유공원이 위치해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투사들이 재판을 받았던 상무대 법정과 영창을 그대로 복원·재현해 놓았으며, 그 당시의 관련 자료와 영상물을 전시해놓은 자유관에서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다양한 행사 덕에 매년 1-2번씩은 방문해서 둘러보곤 했는데, 매번 갈 때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라게 되는 것 같다. 최근 방문했던 콘텐츠종합전시회인 2020 광주에이스페어에서는 게임, VR·AR,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AI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보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AI와 관련된 여러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더 나은 삶'이라는 주제로 AI 주제 전시관이 조성되어 AI와 함께할 미래 생활상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특별한 시간이었다.

시　　설 | 전시장 / 컨벤션홀 / 다목적홀 / 중소회의실

년　　도 | 2004

운영시간 | 10:00-17:00

(전시관 운영 행사에 따라 시간 변동 있음)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연 락 처 | 062-611-2000

홈페이지 | www.kdjcenter.or.kr

주변공간 5·18자유공원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상무공원로를 따라 걷다 보면 상무조각공원 주차장 바로 맞은편에 2002년 개관 이후 2017년 10월 현재의 장소로 새 단장 후 이사를 한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가 보인다. 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뒤쪽의 아파트 단지 덕분인지 동네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린다.

센터 1층의 무중력 지대는 청소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작당을 할 법한 아래쪽 작은 공간과 바로 그 위쪽의 그물 난간, 마룻바닥 덕분에 아이들의 아지트 겸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 외에도 2층의 다목적 홀, 3층의 밴드실, 댄스실, 동아리실까지 청소년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이런 공간 안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진행되기도 하고, 공간 기획 프로젝트로 공간을 직접 꾸미고 마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마을 장터가 열리기도 한다.

시소센터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간은 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이다. 센터 1층에서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바로 장수 어린이공원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쪽에 공원 프로젝트를 통해 트리하우스와 야외 놀이터가 만들어져 있어서 날씨가 좋을 때는 언제든지 센터 내부와 공원을 오가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시소센터를 마음껏 돌아본 뒤, 더 넓은 곳에서 뛰어 놀고 싶다면 센터 바로 맞은편에 상무조각공원과 상무시민공원이 있다. 그곳의 특별한 볼거리는 매주 금요일, 두 공원 사이의 상무시민로에서 열리는 '상무금요시장'이 있다. 혹시 방문한 날이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상무조각공원에는 20여개의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작품들을 찬찬히 보면서 걷다 보면 꽤나 시간이 소요된다. 화창한 날에 푸른 경치를 더 바라보고 싶다면 바로 옆의 상무시민공원까지 산책 후, 벤치에 앉아 축구장에서 열심히 시합 중인 시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시　　설 | 1F_청소년놀이문화공간 '무중력지대' / 사무실 '똑똑' /
프로그램실 '느루',
2F_다목적홀 '미래청',
3F_밴드실 '멜로디' / 댄스실 '고고' / 동아리실 '달꿈' /
동아리실 '틈',
4F_하늘정원 '봄날의 기억'

년　　도 | 2002(재개관 2017)

운영시간 | 평일 10:00-21:00 / 주말 10:00-18:00 /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무 /
동절기 1시간 단축운영(11월~2월)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136(치평동)

연 락 처 | 062-372-1318

홈페이지 | seoguyouth.com

주변공간 장수어린이공원, 상무조각공원, 상무시민공원,
광주공연마루

©유·스퀘어문화관

유·스퀘어문화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의 정류장에서 지하도로 내려가기 전, 도로 맞은편을 바라보니 색색의 유리가 시선을 집중시키는 터미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길을 건너기 위해 지하도로 내려가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지하도 안에 여행자들이 따뜻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정겨운 식당들이 드문드문 보인다. 지하도를 통해 터미널 내부로 바로 들어갈지, 앞쪽에 위치한 광장으로 나가서 잠깐이라도 바깥바람을 쐴지 고민하다가 광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어디서 광고라도 하는 건가 싶다. 궁금한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진다. 계단 입구로 나가니 버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선지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광장 가운데 무대의 LED 화면에서 나오는 연주 영상이 보인다. 종종 다양한 공연이 이뤄져서 바쁜 사람들의 발걸음을 잠시라도 붙드는 곳이다.

목적지가 유·스퀘어 문화관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며, 터미널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평일 오후라 다른 때보다는 한적한 모습이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금호아트홀, 동산아트홀과 금호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1년 내내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진행된다. 게다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위치해서 전시나 공연을 보고 난 후에 훌쩍 여행을 떠나거나, 다른 지역에서 관람을 위해 방문하기에도 편리하다.

나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여행의 욕구를 누르며 오늘의 목적인 금호 갤러리 방문을 위해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1월 11일부터는 박경희 작가의 <왜곡된 충돌>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꽃을 통해 죽음과 삶의 이원론적 대립을 표현했다고 한다. 작가가 그려낸 카라 꽃을 보고 있자니, 조지아 오키프의 그림이 오버랩되면서 '대부분의 도시인은 바빠서 꽃을 볼 시간도 없다'던 그녀의 말이 생각났다. 박경희 작가가 작업을 시작했던 질문인 '삶이란 무엇일까'와도 연결되며, 최근 내 생활 패턴과 일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듯했다.

전시를 보고 난 후의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묵직하게 했지만 싫지 않은 무게감이다. 그 무게감을 안고 전시장을 나오며 다음번 유·스퀘어 문화관을 방문할 때는, 전시를 보고 난 후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들고 목적지 없는 여행을 훌쩍 떠나보리라는 다짐을 해본다.

시　　설 | 금호아트홀/동산아트홀/금호갤러리

년　　도 | 2009

운영시간 | 00:00-24:00(프로그램 및 공간별 상이함) /
설, 추석연휴 휴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

연 락 처 | 062-360-8437

홈페이지 | www.usquareculture.co.kr

주변공간 **광주천**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근대역사 문화마을 양림동 3.1운동길에 들어서면 까만 벽돌로 이루어진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의 외관이 보인다. '무등산의 화가' 이강하 화백의 삶과 예술 세계를 기리며 지난 2018년 개관한 이강하미술관은 고즈넉한 양림동의 골목에 위치한 친구 같은 미술관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개관한 이래로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술관의 이선 큐레이터는 지역의 문화예술 방향과 흐름을 주시하며 관련된 칼럼을 꾸준히 연재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래의 예술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세 명의 예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살아있는 현대 미술의 현장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Teens Art Lab' 프로그램이다. 예술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았다.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1층 전시실 입구로 들어서서 방문자 명단에 이름을 적고, 바로 앞에 보이는 전시실 입구로 향했다. 전시 작품들 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입구 오른쪽에 작게 마련된 '화가의 방'이었다. 5·18 민주화운동을 온전히 몸으로 겪어냈다던 이강하 화백이 생전 작업하던 작업실의 미술 재료와 도구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모습이다. 화가는 저 도구들을 가지고 무엇을 그려냈던 걸까. 그림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잠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찰나의 순간을 지나 어두운 전시실로 발을 내딛자 전시된 작품들이 보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가능을 통해 약속된 가능성' 전은 2020년 국립현대미술관 전국 지역미술관 협력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는 '예술가가 어떻게 동시대의 다양한 위기 현상을 통해 예술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와 방식들을 고민하는가'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기 위한 전시라고 한다. 수많은 불가능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시대적 예술로 표현하고자 하는 지역의 젊은 예술가 6인의 신작 작품들이 고요하게 자신들의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어두운 전시실에서 지금 시대의 불안 속에서 가능성과 다음의 행보를 모색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마주하고 있자니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작품을 통해 불안 속에서도 그다음을 탐색하는 작가들의 마음의 궤적을 따라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전시 관람을 끝내고, 맑은 공기와 밝은 하늘이 함께 있는 양림동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이강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하 미술관에서 봤던 작품들을 찬찬히 다시 생각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사직도서관을 지나 사직공원 산책로까지 와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사직공원의 푸른 나무들을 바라보며 숲속을 거닐고 나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다.

시　　설 | 1F_전시실 /
2F_수장고, 창작교육실, 자료실, 학예연구실
년　　도 | 2018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화-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휴무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3.1만세운동길 6
연 락 처 | 062-674-8515
홈페이지 | www.lkh-artmuseum.com

주변공간 **사직공원**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봉선초등학교와 봉선공원 사이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고 청소년단체인 문화행동S#ARP이 운영하는 시립청소년수련시설이다.

1층부터 3층까지 청소년들이 놀고, 쉬고,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들어가자 바로 보이는 1층 놀공쉬공 공간에는 청소년들이 편히 앉거나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분할 공간과 보드게임이나 전자오락을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이 함께 보였다. 2층 노래방과 댄스 연습실, 동아리방 그리고 프로그램실은 함께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3층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다목적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부엌이 함께 있는데, 무언가를 함께 나눈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공간들이었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 조성된 청소년문화의집 안에서는 청소년과 마을 주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어울림마당, 함께 영화를 보는 봉's 시네마,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11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봉선공원에 청소년들의 파릇한 목소리가 가득했다. 봉선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관하는 문화 마켓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소리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남구청소년어울림마당'으로 코로나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의 문화 마켓이었다. 실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참여 활동을 인증 한 후에,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만난 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집 활동가(지도자)들은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에 필요한 머그컵, 밀랍랩 등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하느라 분주했다.

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봉선공원 덕분에 에너지를 분출하기 바쁜 청소년들이 봉선청소년문화의집 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활동과 더불어 좀 더 넓게 공간을 사용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 같다. 만약 혼자 조용하게 보내는 시간이 지루해지는 날에는 에너지 넘치고, 북적북적한 봉선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시　　설 | 1F_청소년아지트'놀공쉬공', 커뮤니티카페 'CAFE 더나은' /
2F_노래방'봉코노', 댄스연습실'춤을추공', 동아리방 '모임하공', 프로그램실'공부하공', 테라스 '햇살맞공' /
3F_다목적실 '자유분방', 요리작업장'모두의부엌'

년　　도 | 2018 (개관: 2019. 6. 29.)

운영시간 | 화~토 9:00-21:00, 일 9:00-18:00 /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06

연 락 처 | 062-652-0924

홈페이지 | www.bsycc.net

주변공간 **봉선공원, 봉선초등학교, 봉선중학교, 봉선1동행정복지센터**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공간의 정식 명칭보다 음악창작소 혹은 前 광주KBS라고 하는 편이 광주 사람들에게는 더 익숙한 공간이 있다. 사직동에 위치한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다.

음악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공간이라 그런지 1990년대 음악카페가 하나둘씩 생기면서 생성된 사직동 통기타 거리의 끝에 위치해 있다. 통기타 거리의 시작점인 양림 파출소에서 오르막길을 따라 걷다가 숨이 찰 때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옥상의 송신탑과 함께 건물의 모습이 보인다.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로 가는 길은 문화예술적 볼거리가 다양하다. 사직동 통기타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설치된 음악 조형물들이 여기저기서 위트 있게 툭 튀어나온다. 두리번거리며 걷다 보니 통기타 거리가 끝날 즈음, 오른쪽에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광주 지역의 미술, 연극, 음악, 문화기획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다.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도 광주의 음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공연이나 음반 제작, 뮤지션 인큐베이팅, 전문 인력 양성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매년 9월이면 사직 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운드파크페스티벌이다. 2016년부터 다양한 음악인들의 공연을 통해 음악을 향유하는 기회를 마련했는데, 올해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 되었다.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앞을 지나 계속해서 사직 공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다 보니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사직단이 보인다. 안내판을 보니 1960년대 사직 동물원 건립을 위해 헐었다가 1993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복원을 했다는 문구가 있다. 사직단의 주위를 천천히 돌면서 주변으로 눈을 돌리니 높게 솟은 사직 전망대가 바로 코앞이다.

전망대에 오르면 광주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해서 하나둘씩 불빛이 켜지고, 밝은 낮의 경치가 더 밝게 느껴지는 야경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름다운 광주의 야경을 뒤로하고 사직공원을 내려오는 길이 아쉽다.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시　　설 | peakmusic hall(공연장) / 스튜디오1(다목적홀) / 스튜디오 A/B / 뮤직라운지 / 연습실(작업실)1/2 / 카페 / 레지던스실

년　　도 |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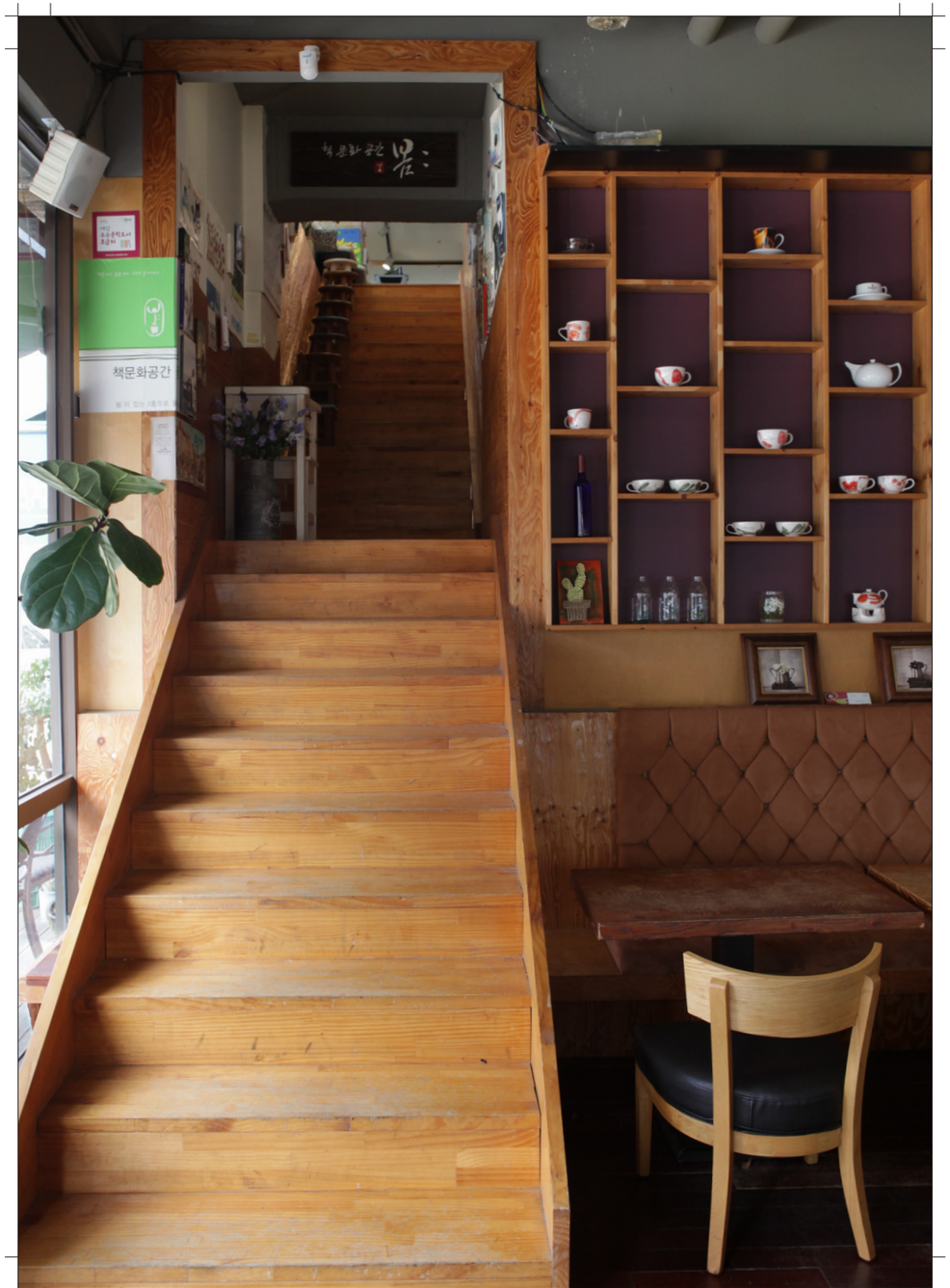
운영시간 | 09:00-18:00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길 17

연 락 처 | 062-654-3625

홈페이지 | www.peakmusic.kr

주변공간 **사직동 통기타 거리, 사직공원**



책문화공간봄 작은도서관

높은 건물이 가득한 광주 시내를 지나, 저 멀리 보이는 풍경이 파릇한 나무들로 바뀔 때쯤 책문화공간 봄을 만날 수 있다. 큰 간판이 없어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발견한 이름을 따라 한적한 동네 거리의 카페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책문화공간 봄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다. 짧은 계단이지만 그곳을 통과하는 동안은 왠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 같은 신기하고 이상한 느낌과 함께 계단 양옆에 책 표지들이 나를 반겨준다. 그 끝에는 아담하고 따뜻한 책문화공간 봄이 있다.

공간 입구를 들어서면 정면으로 보이는 홀에는 다양한 책들이 벽면 책장에 빼곡히 꽂혀 있고, 테이블 위에는 핸드메이드로 만든 커다란 그림책들이 진열되어 있다. 조용한 공간 안에서 차분히 책을 읽기도 하고, 주민들이 오가며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1층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커피향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공간 곳곳에 책문화공간 봄의 로고가 눈에 띈다. 자그마한 갈색 책 위로 갓 피어난 초록색의 새싹이다. 이 로고가 책문화공간 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압축파일이다. 몸을 울려 책을 만나는 낭독회, 주제가 있는 책 전시, 멀게만 느껴지는 작가를 눈앞으로 초청해 주는 작가와의 만남,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책축제 등 책이라는 비옥하고 기름진 땅 위에서 피워올릴 수 있는 거의 모든 활동들이 책문화공간 봄에서 피어나는 새싹들이며 그 빛깔은 여전히 푸르고 싱그럽다.

건물을 벗어나 탁 트인 야외로 나가고자 한다면 책문화공간 봄을 나가 왼쪽을 바라보면 한눈에 노대제가 보인다. 노대제 입구 쪽에 귀여운 노란색으로 외관이 칠해진 물빛공원 작은 도서관에서 넓은 수면과 산책로를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선선한 가을날에는 물가를 따라 산책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되어 있는 나무 데크 위를 걷기도 한다. 방금 다녀온 책문화공간 봄에서 봤던 로고의 새싹처럼 초록이 지천이다. 호수를 따라 한 바퀴 걷다가 산책로 중간에 위치한 벤치에 앉아 잠시 한숨 돌리며 물가를 바라본다. 수면에 비친 산과 구름의 모습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시　　설 | 그림책방 / 세미나실

년　　도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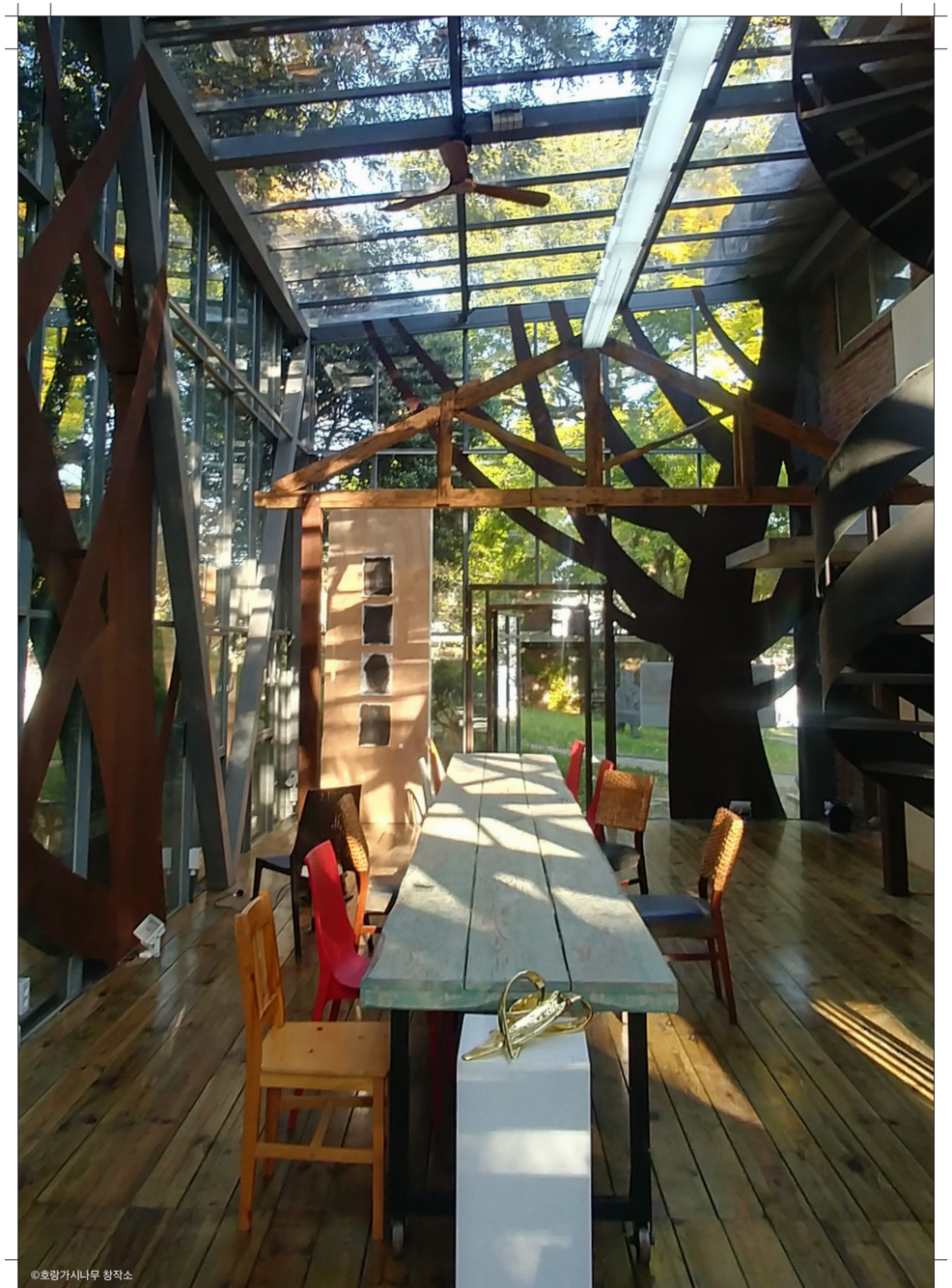
운영시간 | 매일 10:00-22:00 / 설날, 추석 휴무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77번길9, 2층

연 락 처 | 062-681-5432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booksbom

주변공간 노대제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짙은 녹색의 나뭇잎 사이로 빨간 열매가 인상적인 호랑가시나무가 보인다. 이름 그대로 공간 앞에 호랑가시나무가 있는 양림동의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이다. 옛 선교사 사택의 차고를 개조하여 만든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의 전시 공간인 아트폴리곤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로 외관이 꾸며져서 바깥에서도 내부에서 진행되는 전시나 공연히 한눈에 보이는 게 인상적이다.

아트폴리곤 안으로 들어서자 외관의 유리와 높은 층고, 그리고 공간 안에 배치된 한그루 나무, 붉은 벽돌이 어우러져 오래된 질감이 주는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이 공간 안에서는 음악회, 전시, 강의, 영화 감상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방문했던 날은 강지수 작가의 <혼돈, 시선이 머물다>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바깥에서 살짝 보이는 작가의 작품이 가진 강렬한 색감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같았다. 전시관 안쪽으로 들어서자 흰색 벽과 대비되는 작품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옛 차고지였던 공간이라 그 입구가 그대로 남아서 전시관의 한 편을 구성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그대로 누적된 붉은 벽돌로 만든 벽이다.

전시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맞은편의 글라스 폴리곤 공간 유리 외벽을 통해 내부에 거대한 물고기 조형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안쪽 벽의 높은 책장과 가운데 놓여있는 커다란 원목 테이블, 그리고 책상 바로 위에 매달려 있는 커다란 물고기 조형물이 바깥의 풍경과 어우러져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내부 공간 말고도, 함께 운영되고 있는 예술가들의 레시던시인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와 일반인들이 양림동의 정취를 느끼며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 바깥쪽으로는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정원이 공간을 둘러싸고 위치해 있어서, 언제든지 자연을 느끼며 가벼운 산보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정원 산책을 마치고, 아트폴리곤 왼쪽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니 '오웬길', '허철선 하우스'라고 쓰인 팻말이 보인다. 오십 미터 남짓한 거리를 지나 오른 편에 선교사였던 허철선이 살던 집이 그대로 남아서 선교활동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양림동의 구석구석 근대문화의 흔적이 남아 사람들과 공유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가벼운 투어를 마쳤다.

시 설 | 전시관

년 도 | 2014

운영시간 | 10:00-17:00(프로그램 진행 시간에 따라 변동 있음)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47번길 20

연 락 처 | 062-682-0976

홈페이지 | www.hgcs.kr

주변공간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및 게스트하우스, 사직공원,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문화공동체 아우름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유안진 선생의 '지란지교를 꿈꾸며'라는 시이다. 어릴 적 동네 친구가 건네준 생일선물, 두툼한 분홍색 일기장에는 이 시가 적혀 있었다. 문화공동체 아우름을 찾아가는 길은 말 그대로 동네 친구를 만나러 마실 가는 길이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자세히 보아야 찾아낼 수 있는 것들, 아우름은 그런 곳이었다.

5년째,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2층에 위치한 아우름으로 향하는 계단은 주민들의 노랫소리로 가득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만나지 못한 날을 빼고는 꾸준히 마을 합창단이 모여서 노래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합창단 외에도 어떤 날은 마을 미디어를 만들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목소리, 또 어떤 날은 마을 활동가과 예술가, 주민들이 모여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소리들이 또렷이 들려온다. 그리고 1년에 꼭 한 번은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것을 온 마을이 함께 나누는 마을 축제를 만든다. 지나가는 주민들도 잠시 쉬어가며 웃음 한 번 지을 수 있는 따뜻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곳이 문화공동체 아우름이 아닌가 싶다.

아우름을 나와 들어서던 길을 거꾸로 되짚었다. 이윽고 도달한 밤. 정겨운 가로등이 어스름하게 졸며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선술집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고 일어나면 곳곳에 아파트가 불쑥불쑥 솟아나는 세상에서 여전히 구불구불한 동네 길은 내 안의 잊혀가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아니, 오늘 아우름에서 들은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잃어가는 그 무언가를 일깨워내고 있었다.

시　　설 | 사무실, 마을 사랑방

년　　도 | 2013

운영시간 | 프로그램 진행에 맞춰 상시 운영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 40번길 15-2, 2층

연 락 처 | 070-4152-5428

주변공간 양산호수공원

©금봉미술관

시화문화마을문화관

가을이 흠뻑 느껴지는 맑은 날 방문한 시화문화마을은 진입하는 도로 옆으로 예술 작품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 사이사이 벤치에 마을 분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마을로 향하는 이들을 반겨주는 것 같았다. 커뮤니티센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시선을 들어 올리니 시화마을문화관 앞의 잔디밭과 순환도로 아래의 넓은 공터, 그리고 무등산이 차례로 보였다.

시화문화마을은 북구 각화동의 동광주 IC·제2순환 도로와 가깝게 위치해 있다. 이곳은 시와 그림을 통해 마을을 활성화해보자는 취지로 여러 활동들이 진행되면서 '시화(詩畵)'문화마을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2000년부터 추진해온 '시화가 있는 마을' 사업을 바탕으로 문화와 자치를 결합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고, 2006년 시화문화마을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을 거점으로 현재까지 마을을 문화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화문화마을문화관은 커뮤니티센터와 금봉미술관으로 나눠져서 운영되고 있다.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족극장, 그림책 놀이터, 전래놀이 체험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문화와 자치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 금봉미술관은 일반인들의 전통문화 향유를 공유하기 위해 문인화를 중점으로 하여 서예, 민화, 산수화 등 전통회화와 도예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회화와 평면(일반회화, 사진), 입체(설치, 도자기, 조각), 퍼포먼스, 영상 등 미술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현대미술 또한 지속적으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마을 곳곳을 둘러보면 '시화(詩畵)문화'마을이라는 이름답게 옛 마을의 추억을 품고 있는 설치미술작품과 조각, 벽면 여기저기에 위치한 수묵화와 시구가 어우러진 시화들을 찾아볼 수 있다. 마을 전체가 마치 하나의 미술관처럼, 예술작품들과 숨바꼭질을 하듯 하나씩 찾아내는 재미가 있다.

마을 바로 옆에는 각화 저수지를 주변을 무등산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며 짧은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거기에 더해 여유가 있다면 무등산 무돌길 산책로를 따라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시　　설 | 커뮤니티센터_다목적강당, 작은도서관, 홍보관, 열린카페 / 금봉미술관_전시실1F·2F, 문화교육실1·2, 도예실, 문화교육실3 신설(2021년)

년　　도 | 2015

운영시간 | 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1월 1일 휴관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91, 93

연 락 처 | 커뮤니티센터 062-510-1443 / 금봉미술관 062-269-9883

홈페이지 | bukgu.gwangju.kr/shihwa/

주변공간 **각화저수지, 각화체육공원, 무등산 무돌길**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산문화예술회관

송정공원역에서 내려 광산문화예술회관까지 길을 찾아가며 주변을 둘러보니, 골목에 위치한 주택과 식당, 미용실, 생활용품 매장, 화원 등이 여기저기 보인다. 광산문화예술회관으로 향하는 길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근처 송정 5일장 덕인지 항상 북적이는 느낌이다. 서너 개의 골목길을 지나자 광산문화예술회관의 밝은 색 건물 모습이 서서히 눈에 들어온다.

2002년에 개관한 광산문화예술회관은 꾸준히 광산구의 문화예술을 위해 힘쓰고 있는 공간이다. 광산구 시민들로 구성된 광산구립합창단 운영, 청년예술인들이 자신들의 무대를 펼쳐 보일 수 있도록 공연 무대를 지원하는 광산무대나누기 프로젝트_화요문화산책, 계속해서 시리즈로 진행되는 광산하우스콘서트, 특별기획공연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공연'이라는 하나의 분야에서 예술가와 관객이 다양한 형태로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사람들의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슬기로운 공연생활> 온라인 공연과 코로나19 극복 예술백신콘서트 등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문화예술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기획과 관련된 일을 해오며 문화에 관한 여러 정의를 익히 들었다.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선생에게서 들은 말이다. "문화란 마치 허리띠와 양말과 같지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의식되지도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요." 차분한 늦가을 저녁 술자리에서의 말이었다.

광산문화예술회관을 나오며 뒤를 돌아 한참을 다시 살펴보았다. 위압적이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건물의 크기와 외관, 동네 한가운데 차분히 앉혀진 모양새, 어쩌면, 광산문화예술회관의 외관과 위치는 태생적이고 예언적이지 않았을까? 광산구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주고, 해석해주고, 이해해주는 이웃이며 벗으로서의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생산하고 더불어 향유할 수 있는 공간, 광산문화예술회관은 태생이 그러했고, 지금 여기의 성장이 그러하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다.

시　　설 | 공연장 / 사무실 / 분장실 / 조정실 / 야외공연장 / 국창 임방울 판소리전수관

년　　도 | 2002

운영시간 | 공연 시 개방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68번길 13

연 락 처 | 062-960-8861~5

홈페이지 | http://art.gwangsan.go.kr/index.php

주변공간 **송정공원, 광산문화원**

소촌아트팩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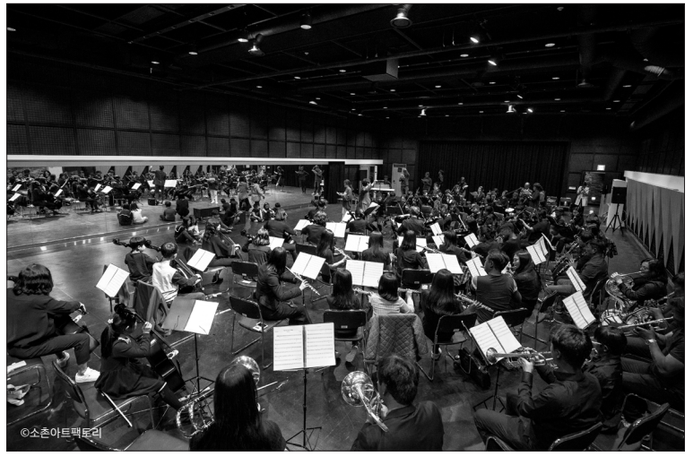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잔뜩 들어서 있는 소촌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한쪽 골목에 위치한 소촌아트팩토리는 광주 최초의 산업단지 문화재생시설로, 낡고 오래된 민방위비상대피시설(방공호)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아시아문화마루)으로 사용되었던 폐컨테이너를 조합해 리뉴얼한 복합문화공간이다. 2015년 개관하였으며 100평 규모의 공연 연습 전용공간인 아르코공연연습센터와 큐브 미술관 및 레지던스룸, 문화예술 특화 작은 도서관인 유노윤호 도서관, 세미나실, 리딩룸 및 커뮤니티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오랫동안 쓸모없이 방치되었던 유휴공간이 문화예술 콘텐츠 융합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혁신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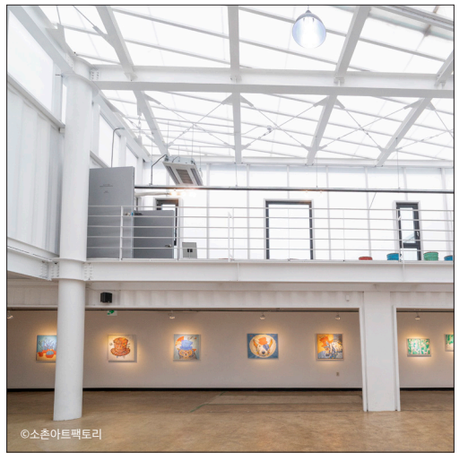
공간에 담긴 이야기와 위치를 찾아본 후, 늦은 오후 시간에 소촌아트팩토리를 찾아가는 길은 한산했다. 높은 담장과 커다란 공장 건물들 사이로 몇 개의 골목을 거치고 나자 어렴풋이 건물의 모습이 보였다. 주차 후, 차에서 내리자 우측으로는 잔디밭이 보이고 좌측에 아르코공연연습센터와 그 뒤쪽으로 컨테이너가 이리저리 얽혀있는 신기한 구조의 큐브미술관이 보였다.

딱딱한 건물들을 지나와서인지 반갑게 느껴지는 푸른 잔디밭을 산책하며 야외에 남아있는 지난 행사의 흔적들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소촌아트팩토리에서는 공연, 전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광산아트플러스' 30번째 시리즈로 이조흠 작가의 전시가 큐브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류종원 작가의 조각 전시가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전시 관람을 위해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터널 같은 느낌을 주는 큐브 미술관의 입구를 지나니 전체가 화이트 톤으로 칠해져 있는데다가 불투명한 천장 덕분에 적은 조명에도 내부가 무척 밝은 것이 무엇이든 받아주고 감싸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곳곳에 위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도 보이고, 벽면에는 작가의 회화 작품들이 걸려 있다. 전시를 돌아본 후 1,500여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는 유노윤호 작은 도서관으로 들어서니 아늑한 좌석과 여러 종류의 책,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잠깐이라도 번잡한 일들을 내려놓고 쉬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아르코공연연습센터는 중연습실과 대연습실로 구성되어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이자 시민들의 문화예술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풍물, 무용, 판소리 등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다는 안내도 들을 수 있었다.


©소촌아트팩토리


©소촌아트팩토리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보았던 <광산아트플러스> 전시를 포함해 <산단비엔날레>까지 시각예술 프로그램과 <직장배달콘서트>, <재즈브런치> 등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산업단지 특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소촌아트팩토리는 삭막한 산업단지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며 광산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소촌아트팩토리 산책을 마치고,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용아 박용철의 생가에 잠시 들렀다. 지난 주말 시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참여했던 당시 김영랑, 정지용 시인과 함께 시문학을 창간했다는 용아 박용철 시인의 우정과 짧은 생애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시인은 사라지고 없지만, 흔적으로 남아있는 집 마루에 앉아 그의 시를 낭송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시　　설 | 가동_운영사무실/아르코 공연 연습센터_B1 : 대연습실, 회의실, 샤워실, 1F : 운영사무실, 세미나실, 커뮤니티 카페, 2F : 중연습실, 리딩룸 / 다동_큐브미술관 : 전시실, 레시던시룸 / 유노윤호 작은도서관

년　　도 | 2016

운영시간 | 소촌아트팩토리_매일 10:00-18:00, 아르코공연연습센터 10:00-22:00 / 휴관 :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 추석, 특별휴관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9

연 락 처 | 062-960-3685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art_sochon

주변공간 **용아생가**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광산구 월곡동의 아파트 단지 사이. 주황, 노랑빛이 도드라지는 건물이 눈에 띈다.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다. 센터 앞 주차장부터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놀고, 입구에는 열 체크를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1층 하하하방부터 2층의 엉뚱바다, 휴게공간까지 저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떨고, 게임을 하고 있다. 탁구, 포켓볼, 오락실 게임기 등 심심하지 않게 놀 수 있는 거리들이 있고, 와이파이까지 빵빵하니 청소년들이 시간을 보내기에는 최상의 장소이지 싶다.

그래도 마냥 놀기만 하는 건 아니다. 지하에 있는 댄스실, 밴드실에는 춤추고, 악기 연주하는 청소년들이 꾸준히 공간을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다. 2층 풍덩방은 저들 나름대로 모임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 방학이면 예약이 꽉 차서, 남는 시간을 문의하는 아이들의 문의가 빗발칠 정도다. 최근에 생긴 3층 아트-메이커스 '맹그소'는 3D 프린터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프린터 기계가 돌아가는 게 신기한지 3층 입구를 기웃대는 아이들이 보인다.

인문예술특화 청소년센터라서인지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 프로젝트나 청소년 인문학이 있는 날이면 1층 예술 작업장과 2층 넘실이 북적인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피아노&인문학' 수업 덕분에 토요일 오후에 야호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피아노 연주를 듣고, 오래된 피아노를 분해해서 자기 작품을 만드는 신기한 모습도 볼 수 있다.

예술가와 함께 하는 예술 프로젝트는 센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굴링'이 있다. 오래된 타이어에 바퀴를 달아서 굴리면서 그 위에 타고 놀 수 있는데, 타이어를 알록달록하게 자기 감각을 한껏 발휘해서 꾸밀 수가 있다. 타이어 여러 개를 연결하고 맨 앞에서 자전거로 끌어주기도 하는데, 야호센터 건너편의 풍영정 천변과 공원 등지에서 시원한 바깥바람을 맞으며 굴링을 타고 깔깔거리며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시　　설 | 밴드실, 댄스실, 조리실, 노래방, 그림책방, 예술작업장, 다목적강당, 아트메이커스 '맹그소' 등(1B-3F)

년　　도 | 2016

운영시간 | 매주 화-일 9:00-21:00(토-일 주말은 9:00-17:00) / 정기휴관_매주 월요일, 휴관일_1.1, 설날 및 추석연휴, 법정 공휴일 다음날, 기타 임시 휴관일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연 락 처 | 062-960-6980

홈페이지 | https://edu.gwangsan.go.kr/yaho/

주변공간 풍영정1공원, 광산구더불어락 노인복지관, 고려인 마을

049 광주극장
050 광주독립영화관
051 김냇과
052 민들레소극장
053 베토벤음악감상실
054 아하갤러리
055 예술공간 집
056 유림서점
057 충장서림
058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059 페드로하우스+보야져스
060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061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062 포레스트 971
063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064 광주 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문화원)
065 광주패밀리랜드자동차극장 광주시네마파크

일상문화공간

Life Culture Space

write. 한재섭

광주극장

1935년 10월 1일 첫 영화를 상영한 이래 지금까지 영화를 상영해오고 있는 단관극장이다. 광주극장은 국내 최고(最古) 현존하고 있는 단관영화관으로 2003년부터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변모하여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최초의 극장은 1895년 인천 애관극장이나 지금은 멀티플렉스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광주극장은 실상 광주영화사만이 아니라 한국영화사, 또 광주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숱한 기억과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다. 당시 일본인들이 홈마찌(本町通)라 부르며 세운 금남로와 충장로 1가가 아닌 한국인들의 근거지였던 충장로와 금남로 5가에 자리 잡은 것 역시 대표적인 예이다.

광주극장 이전에 광주에는 일본인이 세운 제국관(帝國館, 옛 무등극장), 광남관(光南館), 광주좌(光州坐) 등으로 게이샤 공연과 같은 연극 등도 함께 열렸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일본어 자막과 변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인 전용 극장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광주극장은 출발했고 일본인들의 극장을 가리키는 '좌'나 '관'이 아닌 극장이란 명칭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에서였다. 1933년 법인 설립을 마치고 1935년 10월 1일 낙성식과 함께 영화 상영을 시작했다.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 최대 극장이라고 소개를 했고, 실제 기존의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극장들의 기세를 누르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드러내고자 한 설립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극장이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기념축하대공연, 같은 해 8월 17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전남도위원회 결성식, 1948년 김구 연설회 등 영화뿐 아니라 지역 여론의 공론의 장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968년 극장 대화재 시에도 선친의 꿈과 자부심을 잇고자 극장의 원형을 살려 재건축을 했다.

1990년대 후반 멀티플렉스의 등장에도 극장은 영화를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이 가장 민주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곳이라는 비전으로 2003년부터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보수정권 시절엔 퇴행된 전용관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비를 반납할 정도로 극장은 모든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곳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개관일이 낀 10월에 <광주극장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의 영화인 및 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해 <필름정거장>, <만축(萬祝)상점>, <극장간판 상판식> 등을 기획하며 광주인문예술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극장

©광주극장

©광주극장

특히 2020년 <만축상점>에서 시작된 <광주극장 100년, 나의 영화 100편>은 2034년까지 광주극장에서 100편의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광주극장 100주년 특별 티켓을 발행하는 무려 15년을 기약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뚝심과 저력의 극장이다.

광주극장 주변은 현재 지자체의 무분별한 구도심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30년 이상 전통을 잇고 있는 오래된 가게들이 밀집되어 있다. 5·18민주광장을 기준으로 충장로 1가 무등극장, 신동아극장, 태평극장(건물 헐림)을 지나면 광주극장이고 현대극장(건물 헐림), 엔터시네마(광주 최초 멀티플렉스), 아카데미 극장까지 옛 광주의 극장사를 추억하며 광주 시내를 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광주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영화의 집-극장 직원과 외부 방문 손님을 위한 옛 사택을 리빌딩한 커뮤니티 공간-과 극장 내부 공간을 꼼꼼히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형용할 수 없는 노스탤지어를 가슴 한가득 갖고 나올 수 있다.

시　　설 | 극장
년　　도 | 1935
운영시간 |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 상영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46번길 10
연 락 처 | 062-224-5858
홈페이지 | https://cafe.naver.com/cinemagwangju

주변공간 광주천, 광주공원, 광주문화재단, 영화의집, 소년의서

광주독립영화관

광주독립영화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동명동 방향으로 가는 길 건너에 자리하고 있다. 영문 약자 GIFT란 뜻은 개관 당시 극장 명칭 시민공모를 통해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선물 같은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자는 의미로 지어졌다. 1년 365일 한국독립영화만을 상영하며 광주여성영화제(2010년), 광주독립영화제(2012년) 등 광주 주요 영화제 장소로 사용되고 시민과 영화인들을 위한 영화교육, 영화 비평 및 영화사 아카이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극장은 2018년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사업에 선정되며 개관하게 되었다. 광주독립영화관을 운영하는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2016년 광주국제영화제 파행사태 이후 본격화된 광주 영화단체 및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네트워크 단체이다. 문화도시 광주,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라지만 시민들의 문화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는 공간이나 사업은 관주도의 정책과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지자체의 영화 관련 정책이 지역의 자양분이 되지 못하는 사업만이 실행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시민과 영화인들이 중심이 되는 광주영화씬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관 당시부터 지역의 조직화된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세월호 특별전>, <518 특별전> 등 기획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광주 제작 영화들을 소개하는 <메이드 인 광주>전을 열며 지역 영화 창제작인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상영관 외의 공간은 매우 협소하지만 광주영화인들과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겐 단비와 같은 공간이다. 독립영화관이 위치한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은 설립 당시부터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시민 문화공간으로 출발되었듯이, 공간 전체가 광주영화의 거점공간이 되길 영화인들은 바라고 있다.

극장 관람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 10단계의 단계별 일상 감염수준에서 가장 낮은 10단계로 코로나-19 사태에도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로 안전한 관람을 할 수 있다.

광주독립영화관 옥상에는 광주폴리가 설치되어 있고 518민중항쟁의 중심지인 도청과 금남로 일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뷰 중 하나이다.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 하나인 서석 초등학교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서석 초등학교 앞도 역시 광주폴리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학교 앞 오래된 문방구는 여전히 사람들-옛 어린이였던 어른들-의 눈길을 붙잡고 있다.

©광주독립영화관

©광주독립영화관

©광주독립영화관

또한 광주의 오래된 구도심답게 광주독립영화관 뒤편 골목길 식당들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맛과 가격에서 엄지를 추켜세우게 하는 맛집들이다. 독립영화 한 편 보고 추억의 불량(?) 장난감 하나 사서 산책하다 출출해지면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도 된다.

특기할 점 19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들의 분노로 불에 탔던 광주세무서가 있던 자리가 바로 광주독립영화관이다. 필연적으로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루빨리 되돌아와야 되는 역사적 장소인 셈이다.

시　　설 | 6F_영화관, 커뮤니티룸_영화교육, 세미나
년　　도 | 2018
운영시간 | 1년 365일 한국독립영화상영/ 추석, 설날 휴무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96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
연 락 처 | 062-222-1895
홈페이지 | http://www.gift4u.or.kr

주변공간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서석초등학교, 중앙도서관, 책과생활, 조선대학교

김냇과

김냇과는 1965년 대인동 '김내과'로 개원하여 지역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해오던 병원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만든 곳이다. 1층은 갤러리와 카페가 들어서 있고, 2층은 광주예술 전시장과 작은 도서관으로 꾸며져 있다. 3층은 비즈니스 예술 호텔이란 이름처럼 국내외 주요 작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는 게스트 하우스로 기능을 하고 있다. 4층 옥상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문화행사와 파티가 벌어지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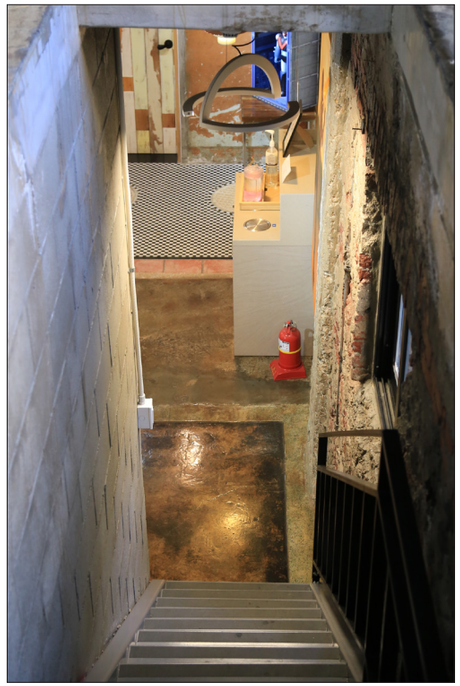
김냇과에서는 상시로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각, 음악과 공연 분야의 예술가들의 전시회와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 남구 서동(광주공원 근처)에 비슷한 콘셉트로 김냇과2를 개관 준비 중에 있다. 대인동은 파란색, 양동은 빨간색으로 건물 전체를 도색하며 활력을 잃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의 상권을 산뜻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김냇과는 향토기업인 영무건설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그동안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꾸준한 메세나 활동으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대인예술시장의 전성기를 도모한 미테우그로가 대인동 김냇과 2층에 자리하고 있듯이 김냇과 1과 2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몰아닥친 커뮤니티 기반의 예술 실천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광주에서는 2008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일환으로 대인시장 복덕방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며 전통시장과 구도심을 예술가들의 개입으로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게 되었다. 미테우그로는 매개공간 미나里와 2000년대 후반 대인시장을 기반으로 대안미술활동을 펼치며 장르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외 작가 레지던시, 도시 역사 문화 리서치에 기반한 전시기획과 작가 워크숍 등을 꾸준히 만들며 대인시장뿐 아니라 지역 미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김냇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금호그룹 창업주 박인천 자택이 2018년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널찍한 저택 마당에는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을 둘러볼 수 있다.

김냇과를 보며 정경유착과 토건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우리의 기업풍토에서 문화예술 메세나 활동을 펼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나기를 지역의 예술인들과 보통 시민들은 늘 바라고 있다.



시 설 |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카페

년 도 | 2017

운영시간 | 월~토 10:30~19:00, 일 10:00~14:00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204번길 13(대인동)

연 락 처 | 062-229-3355

홈페이지 | http://instagram.com/kimnetgwa

주변공간 예술의 거리, 대인(예술)시장, 금남공원,
금호시민문화관(옛 박인천 자택)

민들레소극장

민들레소극장은 극단 토박이가 운영하는 소극장이다. 극단 토박이는 1984년 전남대 연극반과 박효선을 중심으로 창단되었다. 민들레 소극장은 시민들의 성금과 단원들의 재정사업 등을 통해 마련된 건립비용을 모아 1989년 전남대 정문 앞에 개관하였고 1995년 동구 예술의 거리로 이전해 20여 년 활동을 하다 현재는 동구 동명동에 위치해 있다.

토박이를 창단한 박효선(1954 ~ 1998)은 1970년대부터 농촌 도시 문제를 다룬 사회성 짙은 연극 활동을 전개해오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군 홍보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항쟁 후 평생을 5·18의 연극적 형상화를 위해 온몸을 불살랐던 광대였다.

창립 당시 일종의 동호회 성격이던 토박이는 1987년 창작극을 지향하는 단원들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어머니들과 함께한 <어머니>(1987.5), <금희의 오월>(1988)을 공연하며 전문극단으로서 입지를 탄탄히 다지게 된다. 특히 <금희의 오월>은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과 함께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 5월을 거치며 성장한 광주문화운동의 역량을 전국에 알린 작품으로 제1회 민족극한마당에서 대성공 이후 전국순회공연을 하게 되었다.

1993년 <모란꽃>은 일종의 심리극으로 80년 5월 항쟁에서 살아남은 트라우마를 본격화한 작품으로 6개월간 장기 공연을 할 정도의 호평과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이후 <모란꽃>은 1994년 미국과 캐나다 7개 도시를 순회공연했고, 이어 <금희의 오월>도 1996년 북미주 7개 도시를 순회공연과 함께 민족극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민들레소극장은 이후에도 시민연극교실, 청소년 연극학교 등을 열었고 5월 연극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가부장제를 고발하는 작품과 청소년과 학교 교육을 주제로 한 작품들 그리고 가족 환경 어린이 극을 창작. 제작해 공연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매년 1980년 5월을 형상화한 작품을 공연하고 있으며 <어린이 연극학교> 등을 통해 지역 연극 문화 저변 확대와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민들레소극장 바로 옆에는 1993년 창단한 푸른연극마을(대표 오성완/이당금)의 씨어터 연바람(https://blog.naver.com/greentheater)이 사이좋게 이웃해 있다.

씨어터연바람도 원래 1996년 연바람 소극장으로 시작해 동명동 여기저기를 전전하다 2014년 인재아트빌딩 1층을 얻어 의욕적인 개관을 했으나 젠트리피케이션을 못 버티고 동명동 밖으로 밀려

났다. 그럼에도 연극과 사람에 대한 열정으로 2014년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을 전국의 7개 지역 극단과 기획해내며 현재까지 매년 행사를 공동 주관하고 있으며, 2017년 < 연극 있다-잇다 페스티벌>을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

민들레소극장과 씨어터연바람 근처는 동명동, 장동의 오래된 주택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제는 젊고 감각적인 술집과 카페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은 다소나마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한때 부촌이던 이곳 동명동에 뗄 나무를 대던 것에서 유래한 나무전 거리와 대인시장, 계림동의 헌책방 거리를 푸근한 마음으로 산책할 수 있다. 그리고 19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선전활동을 한 극회 광대가 개관을 준비하던 동리 소극장이 있던 장동 로터리와도 가깝다.

시 설 | 공연장
년 도 | 1989
운영시간 | 공연시마다 다름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11 (동명동)
연 락 처 | 062-222-6280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gjtobaki

주변공간 나무전거리, 대인(예술)시장, 헌책방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베토벤음악감상실

이제 베토벤음악감상실밖에 없다. 광주전남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은 베토벤 외엔 없다. 전국의 오래된 다방으로 서울 학림다방, 대구 미도다방 보다 역사는 덜 하겠지만 이제 베토벤은 광주시민들에겐 유일무이한 클래식 음악감상실이다.

베토벤음악감상실은 1982년 5월 현재 위치 바로 뒤 등촌샤브샤브 건물 4층에서 시작했다. 당시 처음 베토벤을 설립한 대표는 한쪽 팔이 불편한 분으로 오로지 음악 감상에만 집중할 수 있게 창을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1987년 5월부터 현재 건물의 6층으로 이전하였고, 그 해 12월 지금의 이정옥 대표님이 인수했다.

설립자의 가업이 제재소인 탓으로 음악 감상에 맞는 최고급 목재와 벽돌을 이용해 내부를 꾸몄고 지금까지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하면서 무등산과 노을을 받아들일 수 있게 창을 낸 점은 베토벤에 어느 시간에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참고로 법정스님이 불일암에서 광주에 오실 때면 목 축이러 간혹 들러 음악을 감상한 자리는 무등산이 보이는 창가 옆이었다고 한다. 이해인 수녀님도 자주 들렀던 곳으로 베토벤에 대한 감상을 시로 남긴 글도 걸려있다. 뭇사람들이 기형도가 들린 곳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지만 그는 충금 다방이란 곳을 다녀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기형도, 「짧은 여행의 기록」, 1988)

원래 이정옥 대표는 이 집의 단골손님이었다. 삶의 헛헛함과 무상함을 베토벤에서 하루하루 달래던 이정옥 대표에게 설립자가 이곳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라며 감상실을 인계했다고 한다. 광주민중항쟁의 중심지인 도청과 지척인 관계로 이정옥님도 5·18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5·18민중항쟁에 참여해 구속당한 노준현 열사의 누이되는 노영숙님도 5·18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19년 동안 함께 베토벤을 운영하기도 했다. 한 때 클래식 음악팬들이 사라지며 베토벤음악감상실도 폐업의 위기가 왔으나 열성팬들과 지역 문화인들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베토벤에서 바라보는 무등산의 완만한 능선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과 노을을 담뿍 담은 감상실의 분위기도 매우 좋지만 감상실 내부에 별도로 마련된 또 하나의 음악감상실은 흡사 채플(chapel)처럼 경건하다. 화려한 스테인 글라스와 같은 대형 예배당의 치장이 아니라 저 먼 바닷소리가 들려오는 시골 낙도의 공소(公所)에서나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들게 한다. 클래식 음악과 차로 산상수훈(山上垂訓)

을 실천하며 여여(如如)한 삶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물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움을 품고 있는 곳이 베토벤 음악감상실이다.

클래식 애호가인 안철님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오페라와 발레 감상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15분에, 고전음악 감상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리니 귀를 열고자 하는 이들은 편안하게 베토벤으로 발길을 옮겨주면 천상의 소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베토벤 내부 뒤틀림 그대로의 나무 기둥은 구례 화엄사 뒤편 작은 암자 구층암의 모과나무 기둥을 연상시킨다. 네모나게 재단하지 않고 형상 그대로를 가져다 활용하는 사람과 나무의 자연스러운 눈 맛을 역사의 상흔과 번잡함이 뒤섞여있는 금남로 1가에서 맛볼 수 있음만으로 감사하다.

시　　설 | 카페
년　　도 | 1982
운영시간 | 10:30-21:00 / 추석, 설, 초파일 휴일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9-16
연 락 처 | 062-224-8410

주변공간 5·18민주광장, 금남지하상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예술의 거리

©아하갤러리

아하갤러리

2002년 7월 무등산 풍경소리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11년이 지나 2013년 금남로 옛 한국은행이 허물어지고 금남공원이 조성된 곳, 한 때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단체관람과 롤러스케이트를 타러오는 청소년들로 붐볐던 신동아극장이 폐업한 골목 한 켠에 아하(AHHA)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아하'라는 갤러리 이름은 누구에게서든지 잘듣고 '아하'하는 깨달음의 첫 성을 내고자 이름을 그리 붙였다고 한다.

무등산풍경소리는 하나의 시민단체명이자 증심사와 문빈정사를 비롯한 광주도심의 산사와 광주전남지역에서 다양한 공연을 펀치는 브랜드명이다. 당초 무등산풍경소리는 2002년 증심사 주지였던 故 일철스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생명과 환경을 사랑하는 종교인의 모임'에서 출발하여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의 성직자와 환경단체, 지역 예술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무등산풍경소리공연은 생명과 환경, 평화를 살리자는 의미와 1980년 5월의 충격 이후 무등산이여 무등산이여 라고 수도 없이 외쳤을 광주시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노래들로 기획공연을 펼치고 있다. 꼭 노래만이 아닌 마당극과 춤, 시낭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공연을 해오고 있으며, 2019년 12월 162회 <메리크리스마스와 해피 붓다>공연은 천주교 기독교 불교계 인사들의 이야기로 꾸며졌다.

광주 음악 기반의 공연장으로는 구시청 입구에 보헤미안 클럽과 전남대 후문 부드러운 직선이 있다. 대인시장 초입에 네버마인드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시내 황금동의 광주아트홀은 오페라와 클래식 중심의 음악공연장이다.

아하갤러리는 개관이래 무등산풍경소리의 가치에 공유하는 지역중진과 신진작가들만이 아니라 해외 작가들 초대전과 기획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또, 1980년 광주민중항쟁, 2014년 세월호 사건 등 근대와 국가의 시스템에 갇혀 신음하는 뭇 사람들을 위한 전시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아하갤러리에서 열린 일본 작가 이하야 토모요 초대전은 아하갤러리의 지향점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전시라 할 수 있다. 중국과 갈등 중인 티벳의 저항과 난민, 평화에 대한 갈망을 주제로 작업해온 이하야 토모요 작가가 광주에서 한 달간 체류하며 1980년 5월을 형상화한 작품을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아하갤러리에서 공동으로 전시한 것이다.

무등산풍경소리를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뿐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보통 사람들의 생

©아하갤러리

©아하갤러리

©아하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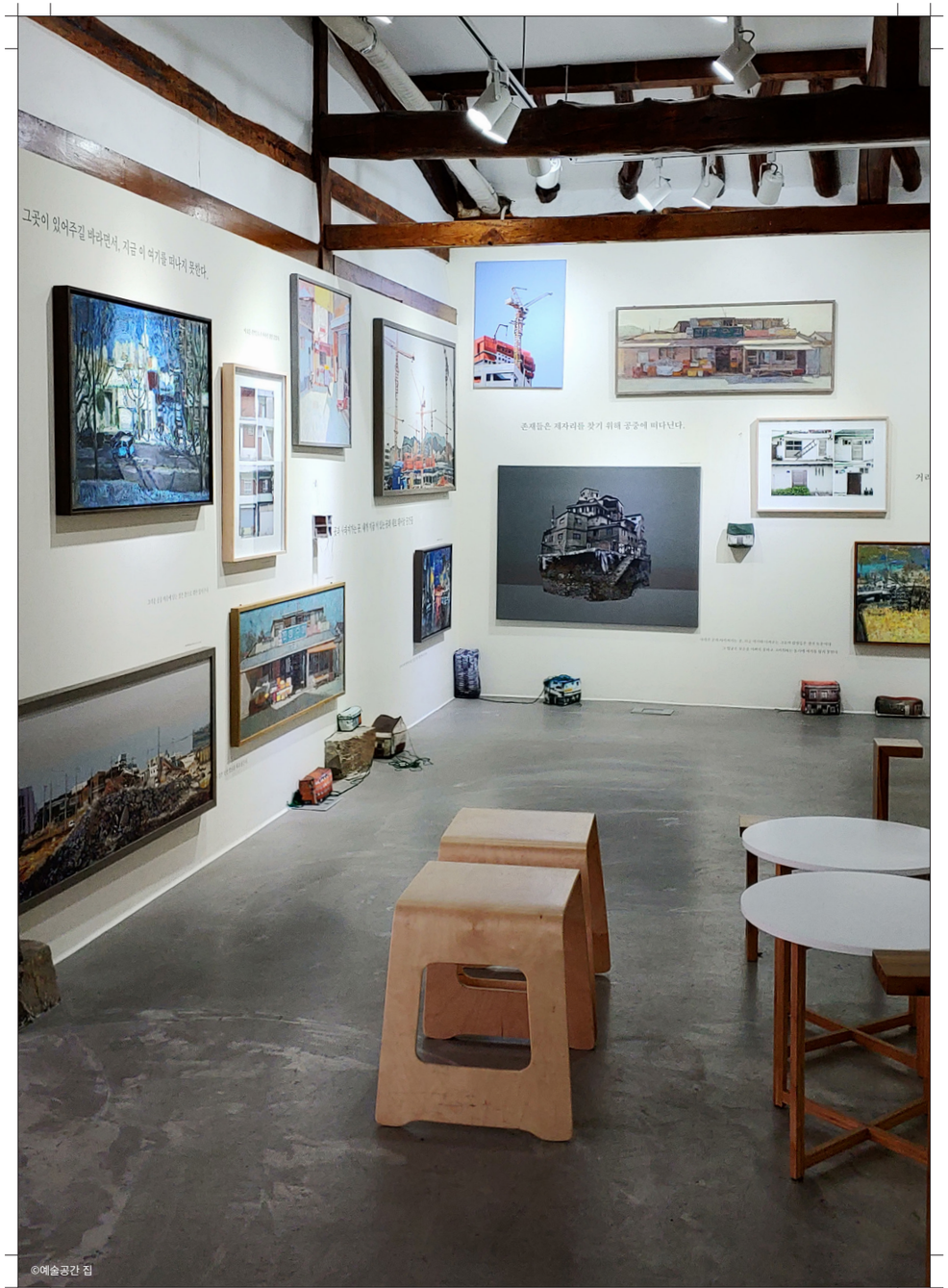
명과 평화를 향한 염원을 노래하고 보여주는 아하갤러리의 행보가 그대로 드러난 전시인 셈이다.

아하갤러리는 충장로의 구도심 한복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에 자리하고 있다. 광주사람들에게 '충파'라 불리는 충장로파출소와 금남공원의 사거리는 금남로와 중앙로가 교차하는 곳이다. 금남로 1가 방향으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옛 카톨릭센터), YMCA 등 1980년 5월의 흔적이 남은 거리가 있고 중앙로 대인(예술)시장 방향으로는 예술의 거리와 계림오거리까지 이어진다.

참고로 최명진 관장은 2009년 광주독립영화협회 초대 대표를 역임할 정도로 광주문화판의 두루두루 마당발이기도 하다.

시　　설 | 갤러리
년　　도 | 2013년
운영시간 | 전시기간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3가 15-1번지 3층
연 락 처 | 062-226-0826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ahhagallery

주변공간 금남공원, 신동아극장(옛),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예술의 거리, 대인(예술)시장



©예술공간 집

예술공간 집

예술공간 집은 동명동 오래된 동네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그 동네는 한때 광주의 유명 학원들이 있었고 천경자가 미술교사로 근무하며 개인전도 했었던 전남여고가 있는 곳이다. 금남로와 충장로가 가깝고 예술의 거리 또한 지척이라 화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미술학원이 제법 있는 곳이다. 그리고 전업 작가의 작업실도 주변에 꽤 있다.

'집'이란 명칭처럼 이곳을 운영하는 문희영 관장이 어린 시절 살던 집을 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 한 곳이다. 문희영 관장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을 전공하며 미술대학을 나와 갤러리 큐레이터 생활을 하던 중 자신이 살았던 한옥을 개조해 갤러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덜컥 이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어른들과 아이들을 위한 미술수업은 천정이 높고 소리가 울리는 미술관보다 훨씬 정감 있고 푸근하게 진행되며 인기를 끌곤 한다. 집이라고 해서 만만한 전시를 한다고 생각해선 오산이다. 광주 화단의 원로화가인 강연균의 1980년 5월의 참상을 비극적으로 그려낸 <하늘과 땅 사이>의 다섯 번째 연작전을 기획초청했고, 중진작가와 신진작가를 매칭하거나 추천작가전, 실험연구전 등으로 특정 작가층만이 아닌 많은 작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전시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도 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층고가 높고 널찍한 화이트큐브의 삭막함은 사라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술 활동을 즐기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준다. 예술공간 집의 교육 프로그램들도 어른들을 위한 미술사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연계 미술교육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어 집이란 공간과 스스럼없이 어우러지고 있다.

미술공간이 현실과 단절된 하얀색으로 칠해진 공간이라는 비아냥처럼 불리던 미술관 등의 화이트큐브가 아닌 이러한 실재 공간으로 넘어오게 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장소 특정성(Site-specificity)에 기반한 미술활동이 확산되면서부터이다. 장소에 기반한 리서치와 구술과 인터뷰 등 심층조사를 하는 인류학 방법론이 미술가들과 결합하며 한국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결과물은 자신들이 조사한 공간에서 전시되거나 이해되기를 바라면서 점차 화이트큐브의 아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작품보다는 장소의 아우라가 작품을 과장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미술이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보통의 인식을 확장시킨 것은 큰 성과이다.

©예술공간 집

©예술공간 집

©예술공간 집

이처럼 예술공간 집은 낯선 예술의 감각이 삶의 익숙한 감각과 충돌하지 않고 편안한 조화를 이루며 오래도록 우리 옆집에 머물기를 기원하게 되는 공간이다.

시　　설 | 전시장
년　　도 | 2017
운영시간 | 상시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58번길 11-5
연 락 처 | 062-233-3342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artspacehouse/

주변공간 민들레소극장, 씨어터연바람,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유림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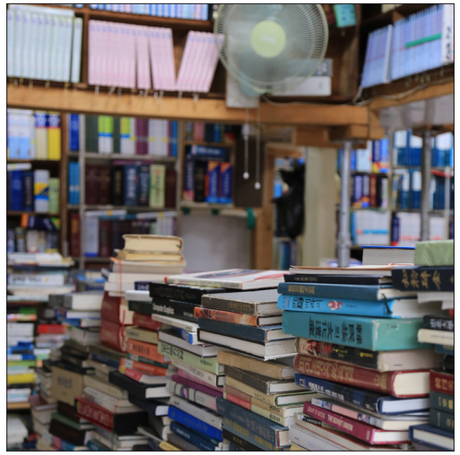
유림서점과 자매사(?) 커피유림이 있는 계림동 광주고등학교옆에는 헌책방들이 몰려있다. 과거 가난한 책벌레들이 물성의 책을 훔칠 수 없을 때 계림동 헌책방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머릿속에 훔쳐 나오기 안성맞춤의 장소였다. 당시 시내의 충장서림이나 나라서적, 삼복서점과 같은 대형서점은 웬지 침을 발라 책을 넘겨서도 안될 것 같았고, 시내에 있다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차분히 이 책 저 책을 고르는 것도 불편하였다, 그런 반면 계림동의 헌책방들은 한구석에 쳐박혀 오로지 책에 집중하기 딱 좋은 곳이었다. 90년대 삼류극장(재개봉관)의 극장표를 구입하기 위해 교과서와 참고서를 팔고 사기를 반복하던 가난한 십대들에게도 계림동 헌책방은 안성맞춤의 공간이었다. 지금은 흔적조차 사라진 계림극장도 헌책방 거리와 지척에 있었다.

그보다 더 오래전엔 그 거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후배들이 책을 가져가도 허허 웃었다는 '물봉' 김남주 시인이 운영하던 카프카 서점(1975년)도 있었고 1977년부터 운영되어 518 당시에는 주요 투쟁 방향을 논의한 녹두서점(김상윤 운영)도 있었다. 지난 시절 계림동부터 장동로터리까지는 서점의 공간, 그래서 시대와 역사에 대한 말과 글의 첨예한 각축장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광주에서 생성된 담론들이 가장 빠르게 유통되고 가장 끈덕지게 보존된 곳이 계림동 헌책방 거리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도 계림동은 광주학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광주에서만 발간된 오래된 시사(市史)와 미술도록, 사진집, 80년대 수많은 비공식 출판사들의 간행물 등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다.

근래에는 헌책방 거리로 예술의 거리에 있던 고미술상들이 들어오며 헌책과 고미술의 콜라보로 광주문화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한때 광주전남미대생들이 구하기 힘든 외국도록과 전집을 구한던 <학문당>도 예술의 거리에서 이 곳으로 이전했다. 언제나 소박한 거리지만 언젠가 계림동 헌책방거리도 동경의 진보쵸(神保町), 북경의 유리창(琉璃廠) 못지않는 책과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곳이다.

유림서점은 광일서점과 함께 1970년대 초 문을 열어 한때 60군데가 넘는 헌책방이 문을 열던 시절을 지나 이제 다섯 군데 남짓 남은 계림동 헌책방거리의 터줏대감이다. 복사기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서점의 출현으로 손님이 사라지며 2014년 딸과 고육지책으로 커피유림을 내며 헌책방을 살리는데 여러 묘책을 궁리하고 있다. 커피유림은 <김군> 강상우 감독이 지인들에게 광주의 맛있는 커피집이라며 추



천하는 곳이기도 하다.

옛 사람들은 책에 좀이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잎을 끼워넣었다고 한다. 향교마다 은행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 이유이다. 유림서점이 있는 계림동 헌책방 거리는 은행나무 가로수이다. 만물이 성숙한 색을 빛을 내뿜는 노오란 가을 날 커피와 책을 만나러 가는 길은 웬지 햇살이 가득할 것 만 같다.

덧붙여 햇살 가득한 헌책방 거리를 지날 때마다 나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옛날 왕실이나 민가에서는 봄, 가을 날씨 좋은 날을 하루 잡아 볕 좋은(?) 그늘에 책을 말리는 행사를 하였다. 일명 포쇄(曝曬), 거풍(擧風)이라고도 하는 의례이다. 포쇄는 책에 쌓인 묵은 먼지도 바람에 털어내고, 장마철 눅눅해진 습기도 햇볕에 말리고, 좀도 안쓸고 해충도 막기 위해 창포나 은행잎을 끼워 책을 오래보관하려는 풍속이었다. 이런 포쇄 행사를 계림동 헌책방 거리에서 작은 문화축제처럼 기획하면 어떨까?

시　　설 | 서점 및 카페
년　　도 | 1970년대 초
운영시간 | 상시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중앙로 298(계림동)
연 락 처 | 062-223-2320

주변공간 한약방거리, 나무전거리, 대인시장, 4.19민주혁명역사관 (광주고등학교)

충장서림

한때 “그럼 충장서림에서 만나자”는 광주시민들의 약속이었다. 외곽의 신도시들이 조성되고 그곳이 자체적인 문화 소비가 가능하기 전, 충장서림은 시민들의 모든 약속 장소나 다름없었다. 90년대 충장서림이 있던 골목에는 나라서적, 삼복서점이 자웅을 겨루며 광주 향토서점 빅 3로 자존심을 지키며 군림하던 시절도 있었다.

두 곳의 서점 모두 그 골목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충장서림은 2012년 폐업 여부를 고민하던 중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원래 1층이던 자리에서 지금의 지하로 매장을 옮겨 재개장을 했다. 1996년 확장 당시에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 3,000㎡ 부지였으니 지금의 서점만을 가본 사람들에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서점이었던 셈이다. 서점 매대를 가득 채운 책의 규모가 60만 권이었다니 충장서림은 광주 사람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완벽한 플랫폼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근래 도서정가제를 재검토한다는 논란 자체가 얼마나 지역 문화를 몰살시키는 정책인지 심각히 들여다봐야 할 지점인 것이다.

90년대 보다 더 오랜 기억을 갖고 있는 광주 사람들에게 충장서림이 있는 건물은 삼양 백화점으로 각인되어 있다. 삼양백화점의 삼양스넥은 안쪽의 제일백화점(우체국과 충장파출소 사이)의 제일스넥과 쌍벽을 이후는 스넥집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충장서림 윗층(4층~10층)에 자리한 무등 맨션은 당시 광주 부자들이 살던 아파트로 명성을 누린 곳이다.

공교롭게 ‘우다방’이라 불리던 우체국 역시 충장서림과는 지척이다. 지금 우체국 역시 본래의 기능은 대인동으로 이전하고-건물 운영비 감당의 어려움- 현재는 ‘우다방’의 흔적만 남겨놓고 있다. 바로 앞 궁전제과는 또 어떠한가? 2층에 올라 밀크셰이크를 마시며 보고픈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은 신간도서가 충장서림에 입고되길 기다리던 마음과 다를 게 없었을 게다.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베스트셀러를 만들려는 출판사의 사재기도 없던 시절, 충장서림은 사람과 책을 만나기 가장 멋진 장소였다. 그래서일까? 사랑의 정념이 식어가는 이들이 한 눈 팔면 상대 연인에게 딱 걸리기 좋은 곳이 충장서림이란 말이 있었다.

지금도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충장서림은 보통 사람들의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을 완성시켜 주었던 곳인지도 모른다. 약속하고도 만나고 약속하지 않아도 만나고, 기다리다 우연히 다른 이를 만나고, 그리고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저 이제 우리는 충장서림이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공

간이길 깊게 바랄 뿐이다.

덧붙여 광주 3대 향토서점인 삼복서점은 2008년 충장로 본점이 폐업하고 상무지구와 운남지구에 분점이 운영되다 운남지구는 지난 8월경에 폐업하였다. 현재는 지하철 화정역 근처로 이전하여 삼복당&삼복서점을 열며 감각적인 취향의 커피와 디저트, 서점으로 삼복서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시　　설 | 서점
년　　도 | 1980년대 초(2012년 위치로 재개장)
운영시간 | 상시(09시 30분 ~ 21시 30분) 명절날 휴무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충장로93-5 무등맨션 지하 (금남로2가35)(충장동)
연 락 처 | 062-227-1932

주변공간　우다방(옛 광주우체국)을 중심으로 금남로와 충장로, 그리고 그 곳의 오래된 가게들과 사람들, 삼복당&삼복서점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무각사는 1994년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하고 광주광역시청이 옮겨오며 급속하게 발달한 상무지구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전통사찰이다. 당초 상무대 군법당으로 1972년 건립되었던 무각사는 상무대가 이전하고 송광사 말사로 등록했다. 군법당으로 활용되다 보니 사찰의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붕괴위험까지 갔던 무각사는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무각사의 공간은 크게 대웅전과 스님들의 수행공간, 일반 신자와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카페와 갤러리, 서점과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문화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카페와 갤러리 등의 문화공간은 원래는 창고건물이었던 것을 리모델링 한 것이다. 갤러리는 변변한 전시장도 없고 광주민중항쟁의 상흔을 간직하고 있는 상무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자주 활용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특히 지역의 신진작가들을 공모를 통해 발굴해 제작지원과 전시회 개최 사업을 하고 있다. 자연 로터스갤러리의 전시 퀄리티와 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서점에선 불교관련 서적만이 아닌 명상과 생태, 환경과 평화를 갈망하는 책들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무각사는 도심속 사찰로서 차 한잔과 전시장, 서점뿐 아니라 무각사를 둘러싸고 있는 아늑한 숲길과 518기념공원을 산책하기에 최상의 공간이다. 길쭉길쭉한 대나무와 메타세콰이어길은 이곳이 도심 한 복판일까 할 정도의 시원한 청량감을 맛볼 수 있다. 518기념공원은 518민중항쟁관련 기념비와 조각상들이 조성되어 있고 518기념문화센터와 518기념문화재단에 들러 1980년 5월 광주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다.

사실 1980년 이후 상무대는 광주시민들에게 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으나 그 이전까지는 서로가 우호적인 관계였다. 전국의 장교들이 임관하기 위해 필수로 들릴 수 밖에 없는 상무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한 축이었다. 군인들만이 아닌 상무대에 근무하는 일반인 군무원과 주변 하숙집도 상무대에 기대 먹고 살았다. 또, 주말 외출이나 외박을 나가는 군인들은 충장로와 금남로의 식당과 음악다방, 극장 등의 주요고객이었다. 국군의 날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행사들에 군악대를 비롯 대규모 장병과 현대식 시설 등이 지원되며 상무대는 광주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은 여러 면에서 사람들과 도시를 바꿔버린 것이다.

시　　설 | 전시장

년　　도 | 2010년

운영시간 | 상시(매주 월 휴무) 오전10시~오후 6시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30(쌍촌동)

연 락 처 | 062-383-0070

홈페이지 | www.mugaksa.or.kr

주변공간 5·18자유공원, 5·18기념문화센터, 5·18기념재단

페드로하우스+보야져스

B-612 행성에서 살며 철새를 타고 이 별 저 별 여행을 하는 어린 왕자는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으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고 내뱉는다. 페드로하우스의 주인장도 어린 왕자처럼 전 세계 50여 개국을 10여년 동안 여행을 다닌 여행자이다. 모두가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삶의 근거지인 집에 정착할 때 그는 여행을 다녔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딱히 무엇을 공부하러도 아니고 그저 여행이 좋아 전세계를 떠돌았다.

그래서일까? 「어린왕자」의 사막여우처럼 자신이 길들이고 길들여진 여행에 대한 책임을 지기라도 한 듯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전용 여행자 쉼터인 페드로하우스를 만들었다.

페드로하우스는 1층은 카페 보야져스로 주인장이 세계 여행을 다니며 모은 여러 나라의 이색적인 소품으로 이국적 풍경을 연출한다. 카페 보야져스는 도심 속 힐링공간을 지향하며 요가와 명상 체험프로그램, 여행이야기 등으로 여행자와 지역주민들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근래에는 유튜브를 통한 랜선 여행이란 타이틀로 요가와 여행이야기를 지속해가고 있다.

2,3층은 게스트하우스로 전 세계의 철들지 않은 어린 왕자들이 묵어가고 있다. 광주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겐 이미 필수 코스처럼 되어 있고, 짧은 여행이 아닌 장기로 묵어가는 여행객도 많다고 한다. 무료 wi-fi제공과 쥬스와 토스트 등의 간단한 아침조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기간 머무는 여행객들을 위한 냉장고와 세탁기, 컴퓨터가 있는 공동공간이 있다. 옥상에서는 요가 강좌뿐 이니라 영화상영과 작은 토크콘서트도 진행한다. 물론 여행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들이다. 또, 페드로하우스는 광주공항과 광주송정역을 교통 체증이 없는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운천역)해 있다.

걷기에는 예매하고 자전거로는 딱인 거리에 1959년 로마 교황청으로 신학교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천주교광주대교구가 있다. 원래는 광주카톨릭대학교로 활용되었으나 1998년 나주 남평으로 캠퍼스가 이전하며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으로 사용하고 있다. 브레2018년 브레디관, 본관, 헨리관, 식당동 4개 건물은 그 역사성과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 등록문화재(제681-1~4호)로 지정된 근대문화유산이다. 2017년에는 브레디관 지하에서 대규모 현대미술전시가 열리며 광주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써 가능성도 알렸다. 실상 각 건물의 지하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 독특한 아우라를 뿜어내 현대미술전시장으로 안성

맞춤이었던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그래서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한 페이지만 읽은 책이다'라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격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왜 여행의 비유를 책으로 들었을까? 여행을 못가는 사람들은 책을 읽으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자, 우리 책 한 권 들고 여행자들의 쉼터 보야져스로 가자.

시 설 | 게스트하우스, 카페
년 도 | 2015
운영시간 | 상시(카페 11시 ~ 10시, 일요일 휴무)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181번길 42(쌍촌동)
연 락 처 | 010-9592-9993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voyagers_cafe/

주변공간 민들레소극장, 씨어터연바람,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기초(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재활기법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사회적 ·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시각장애 극복, 재활 · 자립, 사회통합화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광주 남구 사동의 천변가에 위치한 복지관은 2009년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로 설립되었다. 시설의 대부분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초재활교육실과 점자교육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장애인 권익옹호교육, 주민조직 음악회, SNS서포터즈 등이며 예비사회복지사를 지망하는 일반인들에게 교육 및 실습활동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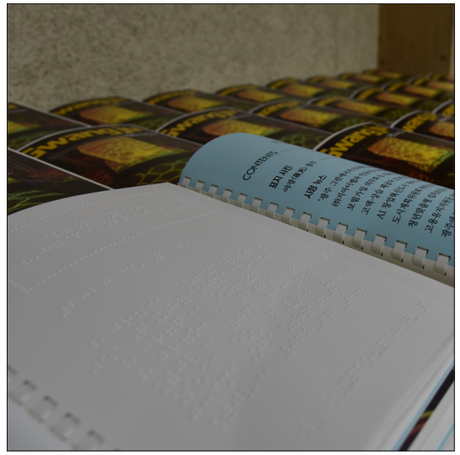
SNS서포터즈나 일반인들은 완벽히 빛이 차단된 공간에서 식사하기, 시각장애인과 함께 도시공원 산책하고 힐링하기 등의 체험 등으로 시각장애인들의 현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가, 국악, 노래, 댄스, 볼링, 탁구 까지 실상 일반인들을 위한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큰 차이점이 없다. 무엇보다 일반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장애인권감수성교육과 체험활동은 연중수시로 열리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사회적 신체적 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밑반찬서비스, 명절상차림 제공과 연말생필품 지원 등의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또, 주요시설과 거리 등에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지원서비스 등의 사업으로 시각장애인들의 권익이 공동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행정정책과 연계한 사업도 벌이고 있다.

실상 일반인들에게 낯선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엄연히 우리 곁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삶과 권익을 위해 애쓰는 기관으로 지역주민만이 아닌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시각장애인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먼저, ‘흰지팡이’는 고대부터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기구로 일반지체 장애인이나 노인 등 시각장애인 이외의 사람은 사용을 금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10월 15일은 1980년 세계맹인연합회가 공식 제정하여 각국에 선포한 ‘흰 지팡이 날’로 “흰지팡이는 동정이나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삼가야 하며, 길을 안내할 때는 ‘저기, 여기’와 같은 추상적 표현이 아닌 숫자나 동서남북 등의 구체적 표현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밝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시각장애인복지관 뒷켠엔 국내 미술관에 수천점의 작품을 기증한 재일교포 하정웅 선생의 기념비가 있다. 1980년대 초 우연히 만난 시각장애인의 절박한 사정을 알게 된 그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복지관 설립을 위해 큰 노력을 해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세워진 것이다.

시　　설 | 복지관
년　　도 | 2009년
운영시간 | 09:00 ~ 18:00(법정공휴일 휴관)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82번길 6 (남구 사동 19-4번지)
연 락 처 | 062-415-9500
홈페이지 | http://www.gbwwel.or.kr/

주변공간 양림동 통기타거리,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사직공원, 사동최부자집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는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 남구로부터 민간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는 풍물, 도자기, 무용, 염색, 텃밭가꾸기 등 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높이고 주변의 빛고을공예창작촌, 고싸움전수관 등과 연계한 남구의 문화예술체험벨트로 만드는 구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원래 대촌동초등학교가 폐교되며 풍물단 얼쑤가 양동, 발산동 등을 전전하다가 2002년부터 입주하며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의 씨앗을 뿌린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얼쑤는 1992년 창단된 풍물단으로 전통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타악퍼포먼스, 미디어아트와 결합한 풍물콘서트, 타악뮤지컬 등 전통에 구애받지 않은 공연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광주전통공연계에 새바람을 몰고 온 풍물단이며 전문 타악그룹이다.

얼쑤는 2009년부터 <광주예술난장굿판>을 해년마다 벌여오며 광주 외 전국의 풍물, 놀이패, 마당극, 거리극, 공연 등을 총망라한 축제를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개최하고 있다. 하루도 아닌 2~3일에 걸친 <광주예술난장굿판>은 옛 마을굿의 형식과 정신을 차용하며 현대공연예술축제의 신명과 감각을 수용해내는 대규모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는 광주 도심속 농촌지역으로 오래된 초등학교와 주변의 들녘의 풍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주변에 향약에 기반하여 마을 대소사를 결정하던 양과동정(良菓洞亭)이 있어 이 마을의 오래된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는 기왕이면-좀 오래걸리지만- 버스를 타고 내려 버스 시간에 맞춰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주변마을을 산책하는 것만으로 꽤나 소박한 풍경을 담아갈 수 있는 광주의 외곽이다.

또한 얼쑤는 양과동 광주외곽만이 아닌 상무지구 광주공연마루에서 전통 공연을 상설로 올리고 있다. 광주공연마루는 원래 2010년 광주세계광엑스포 개최 당시 빛주제관으로 쓰이던 건물을 국악상설공연장으로 바꾼 곳이다. 현재까지 <광주국악살설공연>을 올리고 있으며 바로 주변엔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장소인 상무대를 개발하며 만든 518자유공원(영창과 헌병대 등), 상무시민공원과 상무조각공원이 위치해 있다. 매주 금요일에는 차선도로를 막고 열리는 상무금요시장도 지역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곳이다.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시　　설 | 공연장 및 교육공간

년　　도 | 1992년

운영시간 | 공연시마다 다름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포충로 937(양과동)

연 락 처 | 062-676-3844

홈페이지 | https://www.olssu.com

주변공간 양과동정, 빛고을공예창작촌, 고싸움전수관,
5·18자유공원, 상무시민공원, 상무자유공원

포레스트 971

광주시민회관은 2020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공간 포레스트971(FoREST971)로 탈바꿈하였다. 도심의 숲에서 시민들에게 휴식을 주고 싶다는 의미와 건립년도인 1971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방치되어있던 시민들의 공간을 청년들의 힘으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민회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성거산 아래 광주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성거산(聖居山)은 성구산으로 불리기도 하듯 성가산이 위치한 구동은 거북이 구(龜)를 쓴다. 성거산에는 성거사지 5층석탑(보물 제109호)이 있고 석탑앞으로 흐르는 광주천이 일제강점기 직강하공사를 하기 전까진 영산포부터 올라오는 나룻뱃길로 이용되었기에 석탑이 일종의 등대와 같은 역할도 겸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갖기도 한다.

서오층석탑과 연결된 빛고을아트스페이스는 김수근이 1965년 전국체육대회개최를 계기로 전남도체육회관으로 건축한 건물이다. 같은 해 구동체육관도 지상 2층 관람석 2,200석 규모로 원형실내경기장이 설립되었다. 광주의 옛 노인들은 동그란 구동체육관이 생기자 거북이가 알을 낳은 형상이라며 광주에 대복이 올 것이라며 흡족했다는 기사들이 있다.

그러나 구동체육관은 현재 광주문화재단이 건립 되며 철거되었고, 빛고을아트스페이스는 김수근아트스페이스란 명칭을 사용하려다 시민사회의 반발로 이름을 바꿨다. 이는 김수근이 한국현대건축사에 끼친 영향은 크나 남영동 대공분실 설계 등 독재정권에 지나치게 협력했다는 과오가 어떻게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그의 이름을 딴 공간을 만들 수 있느냐는 시민들의 반발때문이었다.

현재 빛고을아트스페이스는 소공연장과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문화예술 작은 도서관, 홀로그램극장,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미디어아트 작가 레지전시 등이 운영되고 있다.

빛고을시민문화관은 720여 좌석을 갖춘 공연장으로 지역 내외 유수 공연으로 광주공연예술의 중심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2014년 광주가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빛고을시민회관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는 미디어아트 관련 전시 공연 아카이브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차장 부지에 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을 신축중이다.

또 하나 광주공원에는 포장마차 골목이 조성되어 있어 한 잔 생각에 만정(萬情)을 나누려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포레스트971이 있는 광주공원은 노인들의 쉼터로 여름과 가을에 판소리와 국악공연이 상시로 열리던 곳이기도 했다. 지금은 광주시 차원에서 외곽에 노인복지

시설을 대규모로 지으며 노인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역사적으로 광주공원은 일제가 조성한 첫 번째 도시공원이고 좌측의 사직공원과는 하나의 산이었으나 남평-광주간 도로를 개설하며 산을 두 동강이 내버리며 지금처럼 성거산과 사직산으로 나누어지게 됐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당시에는 시민군들이 총기 훈련을 받던 곳으로 지난 6월에는 영화 <김군>의 동상이 세워졌다.

포레스트971은 광주의 현대사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광주공원과 광주문화재단 인근에 위치한 장점으로 도심속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구도심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 설 | 문화공간
년 도 | 1971년(2014년 리모델링 및 휴업, 2020년 재개관)
운영시간 | 상시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107번길 15(구동)
연 락 처 | 062-227-1971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gwangjusimin_forest971/

주변공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공원, 성거사지5층석탑, 광주천, 광주향교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진으로 본 광주100년』(1989)에 1988년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식 사진이 실려있다. 황량한 겨울 “장애발생 예방하여 건강사회 이룩하자”란 현수막과 만국기가 걸려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개관식 풍경은 척박했던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30여 년 전 동림동은 지금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 아니라 광주의 외곽 중 하나였다. 종합복지관 근처 극락강은 1990년대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지구) 개발이 본격화될 때까지 실상 광주 외곽의 경계나 마찬가지로 인식되었다. 산동교를 지나면 비아와 장성, 그리고 첨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계의 끝자락 같은 곳이었던 셈이다.

‘장애발생을 예방하자’는 표어가 관의 공식적 슬로건이었던 시절이니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광주 외곽에 세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체육공간으로 변모하여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 되었다.

복지관은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아동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발달재화서비스 사업을 가정방문형과 기관방문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는 언어/음악/미술/심리/감각 통합재활이 있고 개별 및 그룹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문화놀자센터는 장애인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모두 이용가능한 사업으로 난타,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소정의 이용료를 내고 참여할 수 있다.

복지관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부터 문화향유권을 높이는 사업, 최중증 장애인들의 재가복지 서비스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운동실, 당구, 탁구, 클라이밍이 운영되고 있다. 약 4,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늘푸른도서관도 지역주민과 아이들의 배움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개관 30여 년이 넘어가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복지관을 모토로 지역사회 중심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장애/비장애의 구분이 아닌 적극적인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기술했듯 장애인종합복지관 근처의 극락강과 산동교는 옛부터 강변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으로 친수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수변공원길을 따라 산동교에서 풍영정(風詠亭)까지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풍영정과 극락강역 앞의 모래사장은 전남주민들이 피서를 즐기던 곳이기도 했다. 산동교는 1934년 국도 1호선으로 건설되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폭파되었다. 광주 최초이자 유일한 한국전쟁 전적지로 산동교는 2011년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차량이동은 금지되었지만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

시　　설 | 복지관, 체육관
년　　도 | 1988년
운영시간 | 09:00 ~ 18:00(법정공휴일 휴관)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19(동림동 24번지)
연 락 처 | 062-513-0977
홈페이지 | www.kjwc.or.kr

주변공간 산동교, 산동교친수공원(종합운동장), 풍영정, 극락강역

광주 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문화원)

1983년에 개원한 광주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한국의 7개 도시(서울, 부산, 대전, 대구, 전주, 인천)에 자리 잡은 한국 알리앙스 프랑세즈 네트워크에 속하며, 동시에 파리에 본부를 둔 알리앙스 프랑세즈 재단이 이끄는 전 세계 830개 알리앙스 프랑세즈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다.

프랑스 문화원답게 가장 중요한 기능은 프랑스어 강의와 프랑스 교육부 주관의 DELF/DALF 시험을 주최하는 공식시험센터이다. 프랑스어 강의 외에 프랑스 문화를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를 갖춘 미디어도서관을 평일 오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도서관은 프랑스어로 된 동화책이나 만화책, 프랑스 고전 작품, 프랑스 소설, 한국어로 번역된 프랑스어 작품, 영화를 접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랑스 DVD(한글자막), 프랑스의 최신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잡지뿐 아니라 문화원 내부에서 프랑스 TV 시청(TV 5, France 24)도 할 수 있다. 물론 소정의 예치금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면 자료도 대출할 수 있다. 한국어자막이 수록된 프랑스영화 DVD가 400여 개, 어학교재를 비롯해 여행가이드, 10여종의 잡지 등 2,000여권의 도서가 미디어 도서관에 보유되어 있다.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유학생이 많은 나라라는 프랑스의 명성에 걸맞게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어 강좌도 평일 저녁 입문부터 고급 및 특별과정, 그리고 DELF/DALF시험준비반 까지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배우는 외국어이고, UN 공식언어이자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업무 언어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문화를 알리기 위해 프랑스 미술작가 전시회와 광주극장과 함께 영화제 및 공연콘서트를 개최하며 광주시민들에게 프랑스 문화의 풍미를 알리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영화사에서 프랑스문화원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외국고전예술영화를 보기 힘든 시절 서울의 프랑스문화원과 독일문화원을 중심으로 영화를 보던 영화광들이 1980년대 한국뉴웨이브와 영화담론을 주도 했고, 그들 대부분은 현재 한국영화계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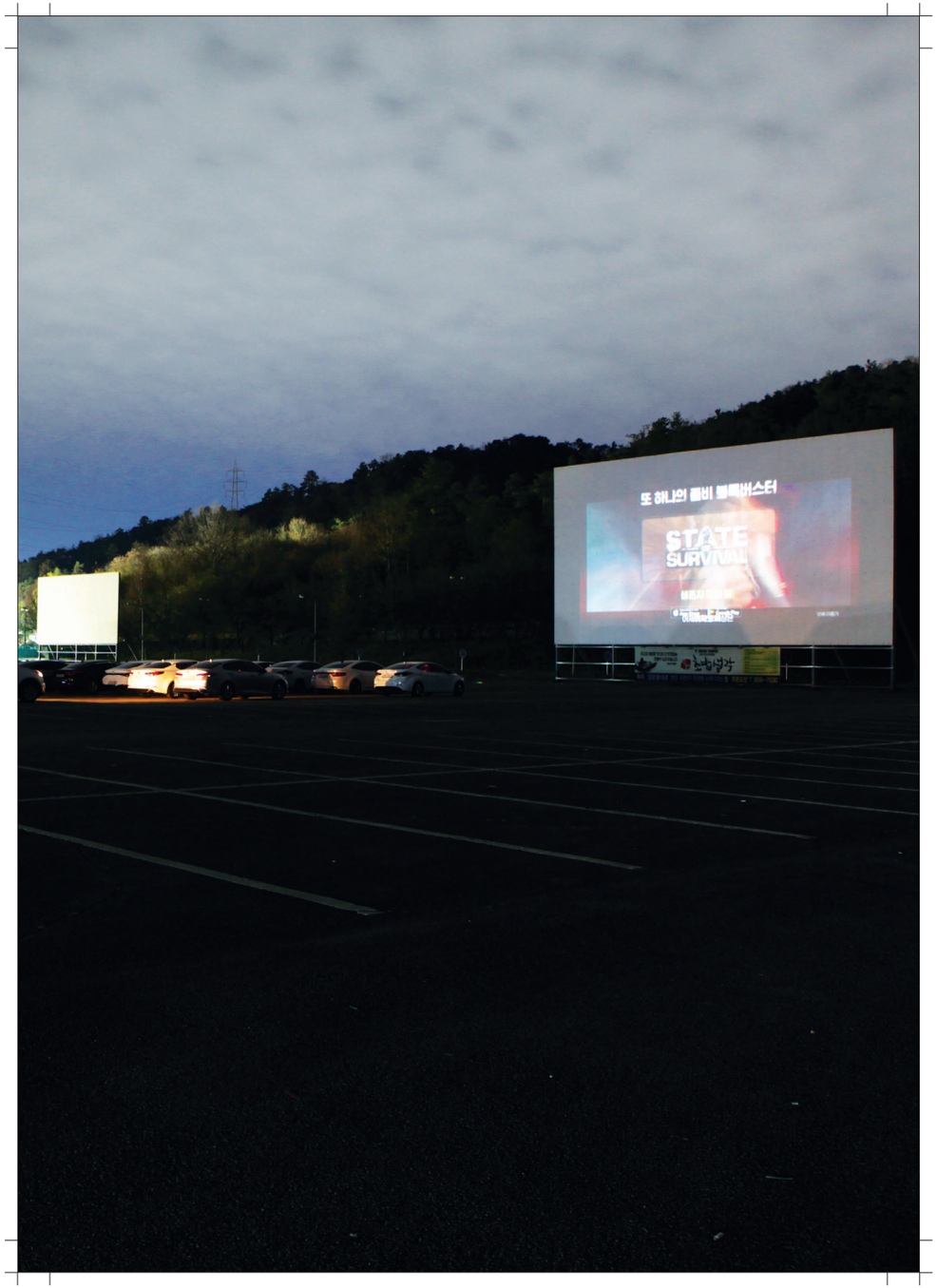
외교적으로 한국과 프랑스는 1886년 병인양요(丙寅洋擾)당시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왕실도서실)에서 가져간 『외규장각 의궤』를 비롯한 359권의 서적에 대한 반화문제는 양국간 민감한 이슈였다. 그러다 2011년 장기임대 형식으로 외규장각 도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2016년 한불수

교 100주년 기념행사가 전국적으로 치러지며 부드러워 졌다.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규장각 의궤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https://www.museum.go.kr/uigwe/)

프랑스문화원 옆 임동에는 한 때 광주시민들의 정서를 대변했던 기아타이거즈(전 해태타이거즈)의 무등경기장과 일제강점기부터 방직공장이었던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있다. 1989년 극단 토박이는 <딸들아 일어나라>는 노동극으로 전남방직의 민주노조 투쟁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평동산업단지로 이전 예정인 전남방직(16만1천983㎡)과 일신방직(14만2천148㎡)이 최근 민간에 매각되었다. 그러나 1935년 일본의 가네보(鐘紡) 전남공장으로 시작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방직공장과 공장의 주인이었던 노동자들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과 예술가들을 위한 문화재생지구로 조성해야 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시　　설 | 도서관 교육 영화상영실
년　　도 | 1983
운영시간 | 미디어도서관(평일 15시 ~ 20시, 법정공휴일 휴무)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17 청운빌딩 2층(유동)
연 락 처 | 062-527-2500
홈페이지 | https://www.afgwangju.co.kr/

주변공간 무등경기장, 야구의 거리, 광주폴리 <광주천독서실>, 청춘발산마을



광주패밀리랜드자동차극장 광주시네마파크

1997년 광주패밀리랜드 자동차극장은 개관했다. 아직 멀티플렉스가 들어오기 전 자동차극장은 낡고 오래된 단관극장만이 대부분이던 광주에 새로운 즐길거리였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자신의 자동차에서 친구나 연인들끼리 부담 없이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다.

자동차극장의 선결조건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 미국 경제 부흥기에 젊은 연인들에게 자동차극장이 유행하게 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있다.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마이카 붐이 일어나고 1987년 6월민주항쟁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며 본격적인 중산층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중산층의 시대에 각 가정마다 텔레비전과 비디오데크, 오디오 그리고 PC(통신) 등이 삶의 기준을 끌어 올리며 문화적 취향을 공유하는 세대가 형성되었다. 한국사회 세대들 중 가장 자유분방하고 자기표현에 거침없고 문화담론의 백가쟁명시대를 연 1990년대 X세대의 등장이다.

광주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주차장을 보유한 대형마트들이 전통의 상권인 충장로 금남로가 아닌 유동과 운암동, 진월동 등에 생겨났다. 1980년대 엄마아빠와 손 잡고 시내의 백화점을 가던 것이 아닌 1990년대는 엄마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잔뜩 물건을 쇼핑하고 아파트로 돌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자동차극장 역시 삶의 패턴이 자동차가 중심이 되고 본격화되는 시대에 출현한 것이다.

광주자동차극장은 총 2개관이고 최신 개봉영화 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야외에서 상영되다 보니 영사기의 밝기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으며 스크린 크기가 1관은 24m×15m, 2관은 18m×12m의 대형이다. 지속적인 불편 사항이었던 화장실을 안전하게 개보수하고 매점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극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에 민감한 관객들을 중심으로 광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열풍이 불고 있다.

광주자동차극장은 호남에서 제일 큰 놀이시설인 패밀리랜드 안에 있다. 그러나 극장과 공원의 입구가 다르니 혼동하면 안된다. 1991년 양림동 사직공원에 있던 동물원이 이곳으로 이전하고 주변을 테마파크형 놀이시설로 만들어 개장한 것이 패밀리랜드이다. 패밀리랜드는 입구에서 패밀리 기차(전기자동차)를 타고 갈 수 도 있으나 오리보트장도 있는 넓은 호수길을 산책하는 것도 나름의 운치가 있다. 호숫

©광주패밀리랜드자동차극장 광주시네마파크

©광주패밀리랜드자동차극장 광주시네마파크

©광주패밀리랜드자동차극장 광주시네마파크

가 산책길에는 자동차 캠핑장도 최근에 생겨 도심에서 가까운 자연속 캠핑을 즐길 수 있다. 한때 패밀리랜드는 광주전남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과 주말 가족들의 위락지로 각광받던 곳이었으나 나주와 화순 등에 대규모 리조트가 생기고 마이카와 ktx 등이 가속화되며 찾는 사람들이 줄었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가 2015년부터 동물원(놀이공원은 유료)을 무료로 전환하고 놀이시설 현대화와 개보수를 적극 시행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동물원은 2010년 이전 까지 코끼리가 없는 동물원이라는 불명예가 있었으나, 그 해 코끼리 두 마리를 출산하고 호랑이까지 자연출산을 하며 다산의 동물원이란 명예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2017년 65m 높이의 대관람차를 설치하며 패밀리랜드의 본격적인 부활을 견인하고 있다.

시　　설 | 영화관
년　　도 | 1997
운영시간 | 영화상영시간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77 우치공원 (생용동, 광주패밀리랜드 내)
연 락 처 | 062-575-5717
홈페이지 | http://www.cinemapark.kr/

주변공간 패밀리랜드(동물원, 놀이시설, 캠핑장)

066 너릿재 유아 숲 체험원
067 산수도서관
068 발산 벽화거리
069 상록도서관
070 전평제 수변공원
071 월산 근린공원
072 제봉산 마법의 숲 체험원
073 푸른길도서관
074 푸른길4구간 이음길
075 광주어린이대공원
076 광주 시민의 숲
077 광주호 호수생태원
078 무등도서관
079 광주송정도서관
080 1913 송정역시장

도시생활공간

Urban Life space

write. 심수진

©너릿재 유아 숲 체험원

너릿재 유아 숲 체험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서 광주 동구 선교동으로 넘어오는 구 너릿재 터널을 지나면 오른 편에 유아 숲 공원 간판이 보인다. 신 너릿재 터널이 생긴 후로 이쪽은 차량 통행량이 줄어든 편이다. 주차장 뒤로 보이는 작은 공원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와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그네, 미끄럼틀이 보인다. 공원 화장실 왼편으로 오르면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 자연형 생태 놀이터까지 연결된 산책로가 있다. 양쪽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가을에 특히 멋지다. 중턱에 있는 벌꿀 농장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숲길이 나온다.

시에서는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아 숲 체험원 8곳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숲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릿재도 그중 한 곳으로 산림에서 숲속 놀이와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알록달록한 인공 놀이시설이 아닌 자연색 그대로 살린 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숲지도사와 숲 해설가가 배치돼 계절별, 주제별로 다양한 수업을 구성한다. 숲속 생태 관찰, 식물과 곤충 탐구, 다양한 나뭇잎, 나뭇가지, 열매를 이용한 오감 놀이까지 자연 속에서 몸을 쓰는 활동이 많다. 보통 숲 체험활동은 관내·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신청하여 진행되므로 참가자 개별 신청은 어렵다. 프로그램이 없어도 생태연못, 트리하우스, 데크 쉼터 등 휴식공간으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산속에 조성되어 있고 이용객이 많지 않으니 너무 이른 시간이나 해 질 녘보다는 낮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1971년 터널이 생기기 전까지 지역민들이 오고 가던 너릿재 옛길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도 뽑힌 이력이 있을 만큼 트레킹, 마라톤과 자전거 라이딩 코스로 인기가 높다. 평소 마라톤 대회나 벚꽃 시즌 문화예술행사도 이곳에서 열린다. 자동차는 진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주차장에 세워두고 움직여야 한다. 길을 나서기 전이나 돌아본 뒤 터널 너머 유아 숲 공원의 반대편(화순 방향)에 있는 소아르미술관에 들러보자. 2012년에 문을 연 이곳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의현 교수가 3,000평 부지에 세운 사립미술관이다. 작가의 예술성을 바탕으로 미술관, 조각 공원, 식물원, 넓은 휴게공간, 카페까지 갖추어진 테마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　　설 | 숲속연못, 곤충관찰대, 줄놀이, 트리하우스, 화장실, 대피소

년　　도 | 2015

운영시간 | 상시개방(프로그램 참여는 별도 예약)

주　　소 | 광주 동구 남문로 48-8

연 락 처 | 062-608-2973

홈페이지 | http://www.donggu.kr

주변공간 **소아르미술관, 너릿재 옛길**

산수도서관

광주에 살면서 한 번쯤은 공부하러 가보았을 도서관, 동구의 대표 산수도서관이다. 산수 오거리에서 계림 오거리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오른편 비탈진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98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미술 분야 특화 도서관으로 지정받아 99년부터 미술자료실을 개실하고 문인화 교실, 민화교실, 미술 동화교실 등 미술 분야를 특화하여 운영한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미니 갤러리와 어린이 북 카페가 있고 일부 열람실을 남성, 여성 구분하여 운영 중이다. 미술자료실은 2층에 있다.

광주시립도서관으로 통합 운영되면서 도서관마다 북 스타트 프로그램, 문화강좌 외 4월의 도서관 주간, 9월 독서의 달 행사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산수 도서관에서는 온 오프라인 전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관 인근에도 동구의 문화 행사가 많이 열린다. 푸른길 위의 산수 문화마당 야외공연장에서는 마을 축제나 인문대학 강좌가 개최되기도 했다.

산수도서관 건너편 골목에 자리한 손길 갤러리는 조각보 명인 소쇄 이남희 씨가 운영하는 공간이다. 한복과 조각보, 바느질 등 규방공예를 통해 우리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차를 마시며 소모임도 할 수 있고, 조각보 전이나 캘리그래피, 사진 등 연중 기획전이 열린다. 명인에게 직접 규방 공예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으니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면 찾아가 보길 바란다.

도서관에서 마음의 양식을 채우다 보면 배가 출출해지는 것이 인지상정. 산수도서관이 있는 일방로에는 숨은 맛집이 많다. 우렁쌈밥 정식 맛집인 산수쌈밥을 비롯해 내공 있는 커피집도 꽤 생겼다. 산수시장 초입 분식집에서 상추튀김도 먹어보자. 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하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부미당, 산수싸리 등 결실을 맺은 공간들도 있으니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길 권한다. 산수싸리에서는 전시, 원데이 클래스, 아티스트 토크 등 활동이 이뤄지니 관심 있다면 SNS를 참고하여 방문해 보길 바란다.

시　　설 | 옥상야외쉼터, 다목적실, 사회교육실(1,2), 열람실(1~4), 노트북열람실(1,2),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미술자료실, 장애인실, 어린이실, 북스타트실(체험형 동화구연실)

년　　도 | 1997

운영시간 | 운영시간에만(첫째주,셋째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주　　소 | 광주 동구 경양로 355

연 락 처 | 062-613-7831

홈페이지 | https://citylib.gwangju.kr

주변공간 산수공원, 산수문화마당(야외무대), 산수시장, 손길갤러리(손길공방)

발산 벽화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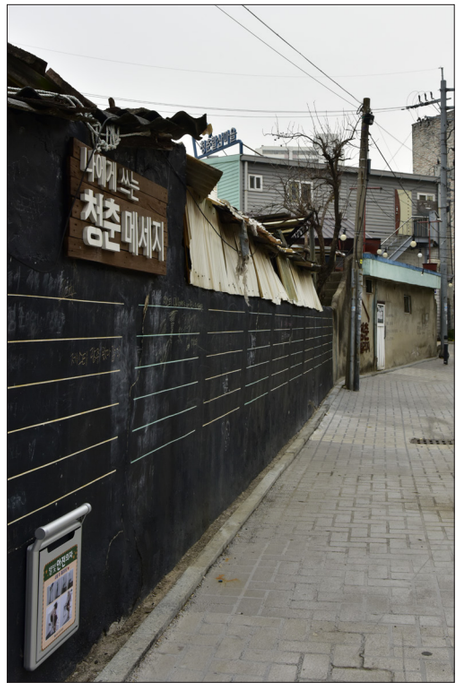
전쟁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광주의 대표적인 달동네, 발산마을이 본격적인 변화를 맞은 건 지난 2014년부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5년 국토교통부, 광주 서구청의 새뜰마을사업이 순조롭게 이어지면서 마을은 연이어 변화가 일어났다. 주변으로 유스퀘어 광주버스터미널, 광주역, 기아 챔피언스 필드, 양동시장까지 있어 접근성은 좋은 편인 동네다.

마을 입구에 위치한 샘몰경로당 에서부터 200m가량의 직선 골목이 발산 명동 벽화거리라 불린다. 좁은 주택가 골목이지만 양옆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산마을의 이야기와 추억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다. '샘몰경로당'이라는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슬고슬한 가마솥 집 밥 체험 행사도 운영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뜨개질 소품을 만들거나 폐품을 팔아 거둔 수익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하는 등 스스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작은 마을 안에는 잘 들여다보아야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들이 꼭꼭 숨어있다. 마을 산책 추천 코스 지도와 오디오 가이드를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좋다. 아랫마을과 윗마을을 연결하는 108번 길에 있는 108계단 옆 작은 공터는 마을 행사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무대로 쓰인다. 마을 꼭대기의 별마루 전망대까지 오르는 길, 전남방직 공장과 마을 사이 광주천을 잇던 뽕뽕 다리(다리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서 붙은 이름)를 형상화한 공간에 발산마을 출신의 양학선 선수 이야기도 담겨 있다.

타향살이 여공들에게 사람 냄새나는 생활 터전이 돼주었던 마을은 이제 청년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다. 곳곳에 청춘들에게 전하는 글귀가 적혀있으니 발견한다면 그 앞에서 잠시 쉬어보는 것도 좋겠다. 벽화가 있다고 해서 관광객에게 보이기 좋은 동네가 되려는 것은 아니다. 마을의 일원이 된 청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오르막길이 많아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여긴 꼭대기까지 꼭 올라갔으면 한다. 벽화뿐 아니라 조형 작품도 많고, 다양한 색으로 칠해진 마을 전체가 야외미술관이나 다름없다. 가정집을 개조한 예술 공간도 꽤 있다. 뽕뽕 브릿지라는 레지던시 공간에선 기획 전시가 열리기도 하니, 여유가 된다면 구경해보자. 순수 예술 작품 전시와 아트상품을 판매하는 감성 스튜디오 '표류'에서는 원데이 아트클래스도 참여해볼 수 있다(@pyo.ryu DM문의).



년 도 | 2014

운영시간 | 상시운영

주 소 | 광주 서구 천변좌로 12-16, 청춘빌리지
'청춘발산협동조합'

연 락 처 | 062-464-0020

주변공간 청춘발산마을, 무등경기장, 양동시장

상록도서관

2015년에 개관한 상록도서관은 상록공원과 하정웅 미술관 옆에 있다. '상록'이라는 이름답게 입구부터 녹음이 짙다.

내비게이션은 주택가로 연결되는 길로 안내한다. 건물 앞 약간의 주차공간과 지상 1층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보인다. 골목길 안쪽 깊숙하게 자리해 바로 앞에 도착해서야 그 웅장한 규모가 가늠이 간다. 지하 1층은 북 카페와 어린이 자료실이 있고 주민 사랑방과 체육시설은 지역단체나 동아리 등 시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 자료실은 가운데 편히 앉아 책을 볼 수 있는 소파 자리, 부모들이 함께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갖추고 있다. 지하이면서도 독특한 건물 구조 덕에 반대쪽에선 지상 1층과 연결되는 야외 데크 공간이 있어 놀이 공간이나 프로그램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다.

정보화실 외에도 마우스나 타자 소리에 방해받지 않도록 노트북실이 별도로 있고, 학습실에선 백색소음이 있는 알파존을 운영할 정도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특히 옥상정원과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틈틈이 환기가 가능하다. 개관 이래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이어오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을 '서(書)로 채운다'는 위로, 나눔, 치유의 주제를 잡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했다. 그림책 작가 특별전, 북 콘서트나 시민참여전시나 SNS 이벤트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상록도서관과 앞마당을 함께 쓰는 붉은 벽돌 건물이 하정웅 미술관이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문화 메세나 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동강 하정웅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2017년 3월 개관했다. 그가 기증한 작품의 연구,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선보이고 청년작가 초대전 또한 꾸준히 열린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린 내면의 녹지대가 필요하다. 항상성(恒常性).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안정적인 상태를 능동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의식적으로 책이나 전시를 보러 다니며 당신 마음속 '상록'을 지켜내길 바란다.

시　　설 | 어린이열람실, 북카페, 주민사랑방, 체육교실, 종합 자료실1~2, 디지털자료실, 정보화실, 다목적실, 학습실, 노트북실, 문화교실, 옥상정원

년　　도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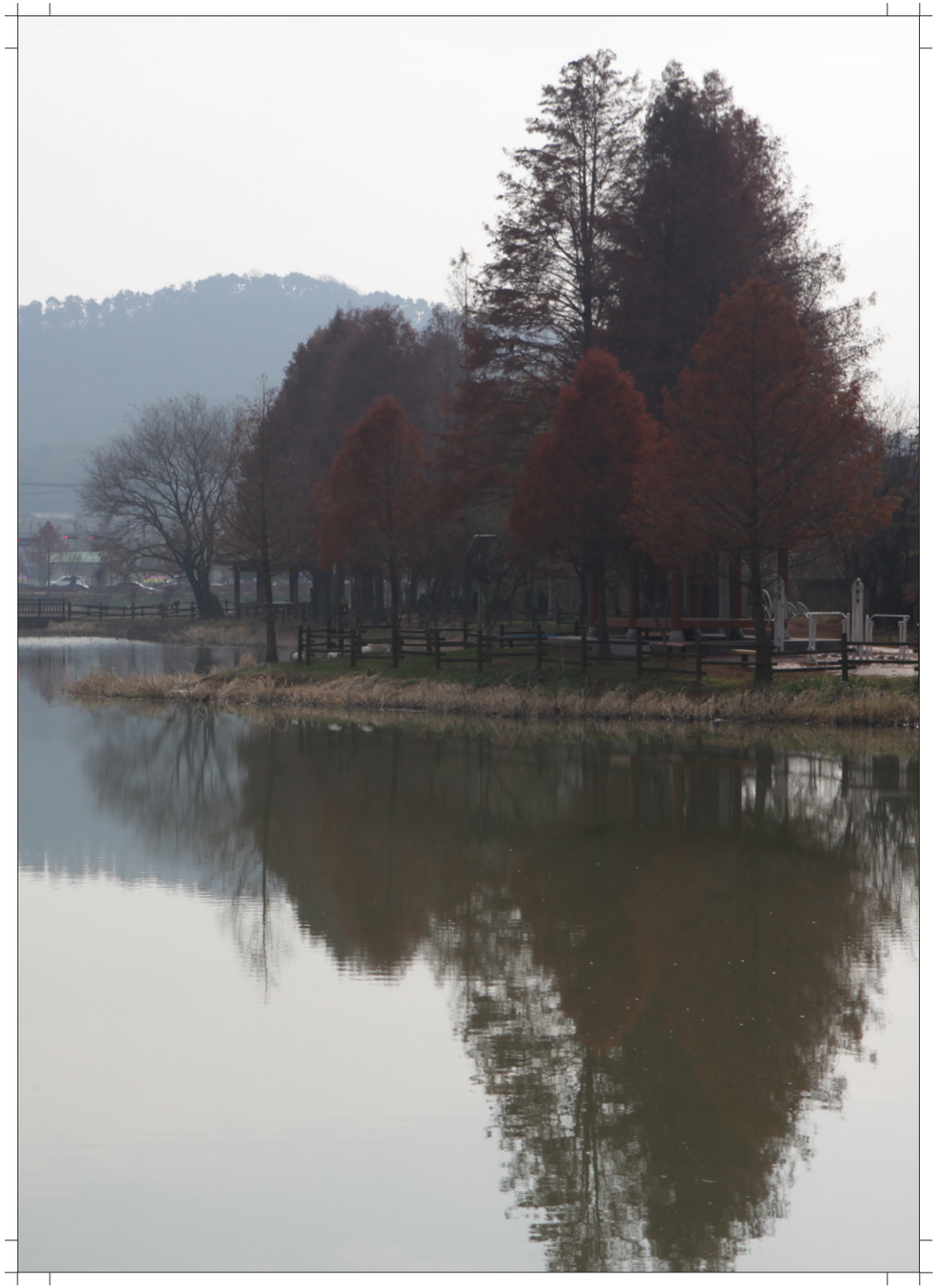
운영시간 | 자료실 매일 9:00~22:00,
어린이열람실 매일9:00~18:00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휴무)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71번길 11

연 락 처 | 062-350-4580

홈페이지 | https://www.seogu.gwangju.kr/library/

주변공간 하정웅미술관, 상록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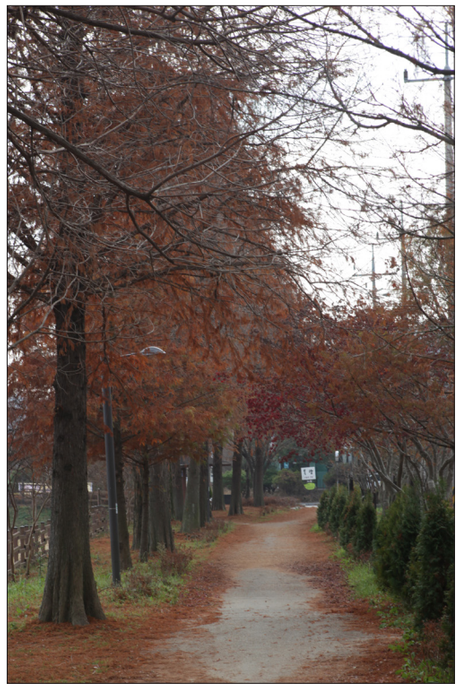
전평제 수변공원

쌍촌동의 운천저수지, 풍암동의 풍암 호수는 광주에서도 손에 꼽히는 호수공원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 전평제가 있다. 시민들에게는 매월 호수공원이란 명칭이 더 익숙할 것이다. 전평제는 1943년 매월동, 벽진동 일대에 농업용수 공급과 각종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축조된 저수지인데 도심 근교에 방치되어 있던 곳을 1999년 국토공원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바꿔놓았다. 공원 둘레로 고급 주택 단지와 맛집, 분위기 좋은 카페가 맞닿아 있어 한나절 소풍 코스로도 적당하다.

봄에는 하얀 벚꽃이 만발하고, 한여름이면 호수는 무성한 붉은 연꽃으로 채워진다. 100일간 꽃이 피어 백일홍이라고 하는 배롱나무는 가을의 초입까지도 진분홍빛을 뽐낸다. 주거 단지와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인근의 '풍암 호수'가 넓어서 걷기 부담스럽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호수를 끼고 배롱나무 산책로와 메타세쿼이아 산책로가 차례로 이어진다. 잠깐의 휴식을 위한 벤치도 넉넉하고 나무 아래 여럿이 누워도 충분한 쉼터와 수월당이라는 운치 있는 정자도 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도 처음 온 사람도 한데 모여 도란도란 쉬어들 간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한 구절씩은 품고 산다고 하지 않나. 1km에 이르는 산책로 나무 그늘에 설치된 25편의 시화는 가는 걸음을 잡아 머무르게 만든다. 트랙 깔린 대로, 정해진 방향대로 가야 하는 곳은 아니다.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과 스치고, 만났다 또 헤어졌다를 반복한다. 봄부터 가을에 이르는 수목의 풍성함, 겨울 호수의 쓸쓸함까지 질리지 않는 풍경을 제공하니 나름의 감성 담은 사진 찍기 바쁘다.

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창이 고향인 화가 김진희 씨가 운영하는 목담 미술관이 있다. 600여 평의 부지 위에 지어진 미술관은 총 4개의 전시관과 카페, 공연장, 세미나실, 게스트룸, 야외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장 부부 모두 서창 출신이기에 이곳은 서창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전시하는 아카이빙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개관 후 서창문화예술협회와 함께 서창의 이야기를 꾸준히 전하고, 외국인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스도 진행하니 전평제에 들렀다면 놓치지 말고, 예술적인 풍경 한 부분을 발견하고 가길 바란다.



시 설 | 수변공원, 수월당, 시화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년 도 | 1943년에 축조되어 2006년에 수변공원으로 지정

운영시간 | 상시 개방

주 소 | 광주 서구 전평길 37-3

연 락 처 | 062-360-7990

주변공간 목담미술관, 화훼공판장

월산 근린공원

월산동 남구장애인복지관 옆으로 난 작은 언덕길을 오르면 어린이 운동장이 왼편에 있다. 축구, 농구 골대 모두 아담한 사이즈로 바닥도 꽤 폭신하다. 조금 더 올라가면 공원 화장실과 농구장, 테니스장이 있고 그 앞엔 소규모이지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차를 가져온 이용객들도 주차에 큰 불편이 없다. 이 구간이 월산 근린공원의 시작점이다. 집 앞 작은 공원이라면 이 정도로 끝나고 말겠지만 이곳엔 걸을 맛 나는 산책로가 여럿 있다.

월산 근린공원은 훼손되어 있던 공원의 일부를 바꿔 생태체험학습장, 생태전시관, 생태 놀이터, 숲속 쉼터가 있는 달뫼 자연마당으로 운영하고 있다. '달뫼'는 달월, 뫼산으로 월산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돌, 나무, 나비를 주제로 한 조형물이 곳곳에 있어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낸다.

공원을 걷다 보면 갈래 길이 자주 등장한다. 첫 갈래 길에서 왼쪽 길로 가면 사방이 탁 트여 월산동에서 백운동 전경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온다. 중앙에는 생태 놀이터가 있어 나무와 흙의 질감을 느끼며 놀 수 있다. 그 밖에도 목재 데크가 깔린 숲길, 평평하게 뻗은 포장길, 울퉁불퉁 자갈길, 푹신한 흙길이 뒤섞여 걸음이 즐겁다. 크지 않은 공원으로 10km 이내에 다 둘러볼 수 있으면서도 코스 선택지가 많아 도심 속에서도 다채로운 산책이 가능하다.

이곳은 광주의 숨겨진 벚꽃 명소이기도 하다. 산벚나무, 동백나무, 가시나무,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토종 나무를 심어뒀기에 계절마다 즐길 거리가 다르다. 반려인들이 반길 소식도 있다. 강아지 전용 운동장이다. 공원의 언덕배기에 오르면 정상부에 운동기구와 정자,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다. 울타리가 무릎 높이로 둘러 있어 중소형 견에게 적합하다. 붐비지 않는 시간을 잘 맞춰 방문한다면 반려견에게 흔치 않은 도심 속 뛰박질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풀과 나무 냄새 가득한 공원에서 후각 놀이(노즈워크)까지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덤이다. 일반 시민과 뒤섞여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앞으로도 반려견이 동행할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 지참은 잊지 말자.

월산동은 달덩이처럼 둥글고 덕스러운 달을 맞이하기 좋은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낮에는 자연 풍경 즐기며 운동을 밤에는 도심 야경을 바라보며 산책하길 권한다.

시　　설 | 달뫼자연마당, 강아지전용운동장

년　　도 | 2017

운영시간 | 상시개방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수박등로48번길 25 일원

연 락 처 | 062-607-4682

주변공간 남구노인복지관,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제봉산 마법의 숲 체험원

조용한 압촌마을 어귀에는 연꽃잎 가득한 저수지, 압촌제가 있다. 그 옆의 찻길을 따라 들어가고씨 삼강문을 지나면 곧바로 '광주 콩 종합센터'로 향하는 작은 골목이 보인다. 길을 따라 오르면 소나무에 둘러싸인 고원희 가옥을 마주하게 되고, 그 옆에 다소 투박한 흙길 하나가 숲을 향해 나있다. 바위에 '제봉산 마법의 숲 체험원'이라 새긴 이정표, 지도가 그려진 표지판, 이용객 안내문을 보고서야 제대로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 편이다.

나무에 싸인 숲으로 들어서자 마치 톰 소여 혹은 삐삐가 튀어나올 법한 숲속 놀이터가 숨어있다. 돌담 오르기, 아치문, 소나무로 만든 통나무 미끄럼틀, 통나무 다리 건너기, 미니 짚라인, 대피소, 습지원, 밤톨이 평상까지 아이들의 모험심을 자극할 요소가 가득하다. 이곳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숲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봄부터 가을까지 숲속 다람쥐 교실을 운영한다. '마법의 숲'이란 이름에 걸맞게 아이들은 꼬마 마법사 복장을 하고 유아숲지도사의 인솔에 따라 숲속을 뛰놀며 보물찾기 등의 놀이를 할 수 있으며, 땅속 생물과 숲속에 사는 곤충을 찾아가며 자연과 친해지는 관찰 경험을 펼치게 된다. 도심 놀이터에서조차 아이들이 사라져간다는 요즘이다. 자연 가까이서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눈높이에 맞는 야외활동 기회가 흔치 않음을 알기에 이런 곳이 참 반갑다.

본래 이곳은 사유지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여 조성된 시설이므로 오후 7시 이후와 공휴일에는 이용을 삼가야 한다. 어디까지나 유아들을 위한 숲 체험 공간이기 때문에 취사, 야영을 금지하고 혹시 모를 사고 방지를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도 자제시키고 있다. 까다로운 조건 아래 운영되는 만큼 프로그램은 만족스럽다는 평을 받는다.

임진왜란 의병장 고경명의 호인 '제봉'을 딴 산자락. 제봉산에 오르면 산림욕에 적합한 편백 나무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다. 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로 생태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남구청 환경관리과에 신청하고 방문하면 된다. 탐방로를 따라 제봉산을 넘으면 포충사가 있고, 체험원에서 다시 압촌제 방향으로 내려오면 양쪽 가득 구절초가 심어진 구절초원을 만날 수 있다.

제봉산 일대는 문화 유적이나 생태 자원, 체험 시설이 풍부한 데 반해 지역민들에게도 덜 알려진 편이다. 압촌제에서는 꽃창포와 붓꽃, 범부채, 부처꽃이 피어나고 가을엔 산과 들에 핀 구절초, 맥문동,

상사화 등 각종 야생화와 수목을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여 메주도 쒀보고, 구절초 차 만들기, 압화 만들기 같은 소소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

시　　설 | 유아숲체험원
년　　도 | 2016
운영시간 | 오전 09:00~12:00 / 평일 / 3월~11월
　　유아(7세 이하), 일반(예약접수 후 체험활동 가능)
주　　소 | 광주 남구 압촌동 산 14-1
연 락 처 | 062-607-3842

주변공간 압촌제, 고원희가옥, 구절초원, 포충사, 빛고을 공예창작촌

푸른길도서관

주월동 푸른길과 삼육초등학교 사이에 푸른길도서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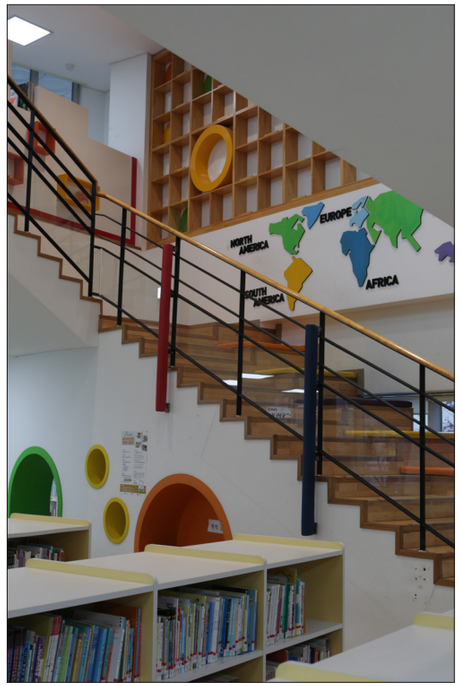
이 도서관은 설계 과정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단순 정보제공 기능만 하는 도서관이 아닌 어린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도서관, 다양한 주민이 함께 독서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졌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 공간에 뚫린 동그란 구멍에서는 아이들이 편하게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다. 공간마다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묻어난다.

이 도서관에는 독서 동아리 회원들을 위한 동아리방도 2곳(8인, 20인 수용 가능)이 있다. 독서 동아리로 등록한 회원들은 예정일 7일 전까지만 예약하면 모임 할 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건물 외부 계단 아래에는 북 카페가 있어 음료를 마시며 책을 읽고, 대화할 수 있다. 가끔 야간에 열람실로 이용되기도 한다. 목재 계단을 올라가면 야외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다.

교육에 열성인 지역 분위기 덕인지 커뮤니티에서 영어책 대여하기 좋다는 평을 듣는다. 지역 도서관끼리는 통합 운영되니 중앙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이곳에서 반납할 수 있어 편하다. 주말마다 가족 영화도 상영하고 계절별 인문학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푸른길 따라 아이들과 걸어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도서관 바로 옆 작은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주변에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고 원룸이 많아서인지 주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도서관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인근 푸른길에서도 책과 문화를 가까이할 수 있다. 평소 일정이 바빠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도 편하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남구 365 스마트도서관이 푸른길 광장에 설치돼 있다. 오전 5시~오후 11시까지 매일 이용 가능한 무인 자동화 기기로 구립 도서관 회원증을 가지고 있다면 안에 있는 도서를 빌려 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곳에서는 남구민 북 페스티벌도 매년 개최되고 있으니 행사 기간에 맞춰 방문하면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책이 있는 공간을 좋아하는 이들이 반길만한 또 하나의 선택지가 인근에 있다. 남광주농협 건너편 푸른길 공원에 있었던 '푸른길 작은도서관'이 2019년에 주월동 실개천 푸른길공원 인근으로 이전했다. 눈에 띄는 노란 아트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작은 책 공간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이용이 가능하니 운영시간 내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다.



시　　설 | 어린이실, 종합자료실, 동아리방, 문화교실, 시청각실, 북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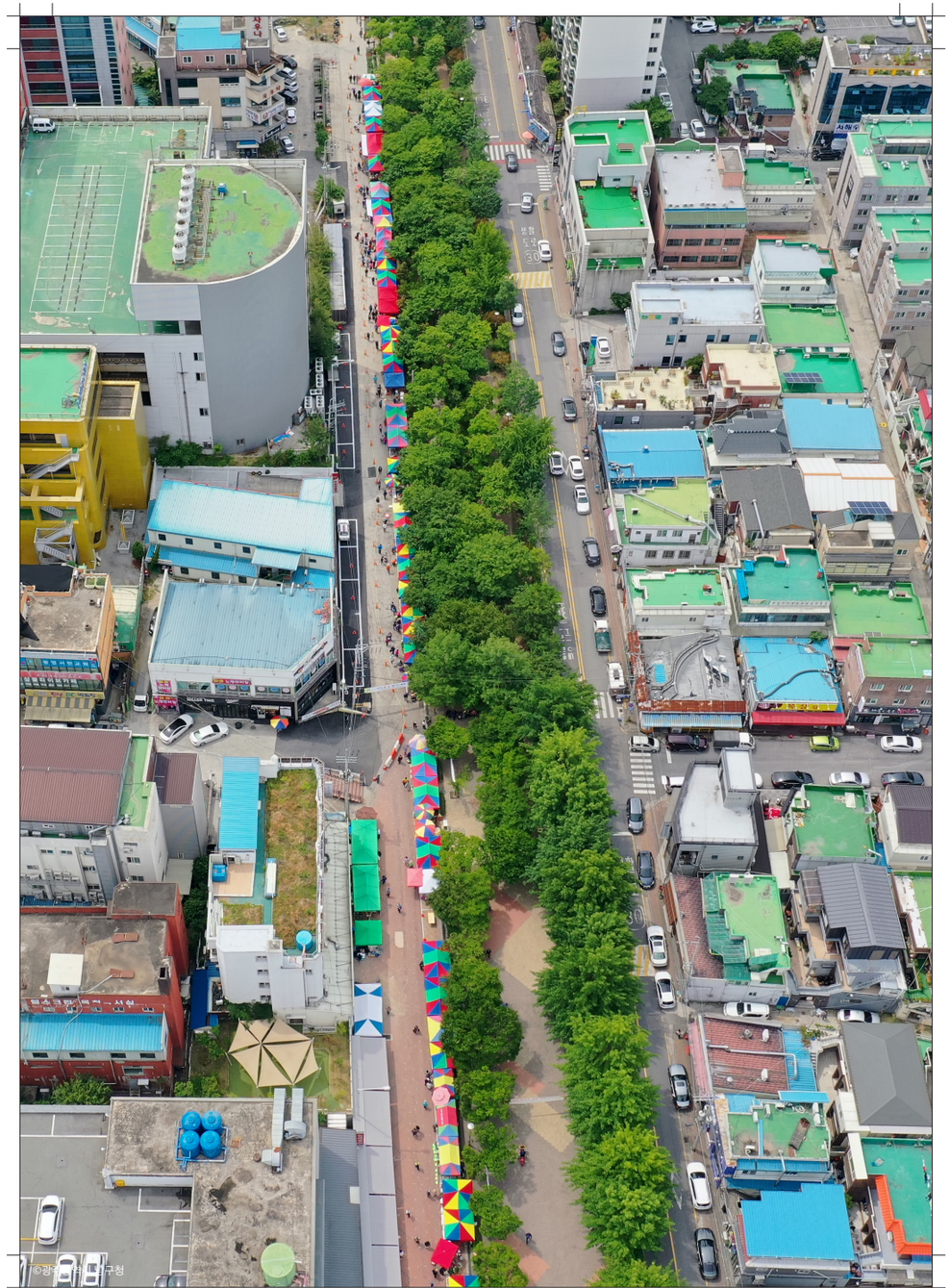
년　　도 | 2013

운영시간 | 운영시간 실마다 상이(매주 월요일 휴무)

주　　소 | 광주 남구 금당로 140

연 락 처 | 062-607-2531

주변공간 푸른길, 남구365스마트도서관, 푸른길작은도서관



푸른길4구간 이음길

푸른길은 2000년 8월 1일 마지막 기차 운행 후 폐선 된 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 7.9km 구간에 나무를 심어서 조성한 레일 트레일 형태의 공원이다. 광주의 동구, 남구, 북구를 잇는 흔치 않은 산책로로 남아있는 철길의 흔적을 발견하며 걷는 맛이 있다. 경사진 곳이 없고 평지로 이어진 길이라서 누구나 산책하기가 좋다. 100만 그루의 헌수 운동으로 심었던 작고 가늘었던 나무들이 어느새 울창해져 큰 그늘을 만들고, 덕분에 우리는 한여름에도 햇볕을 피하며 산책할 수 있다.

전체 4구간 중 이음길에 해당하는 동성중-백운광장 코스는 아파트와 대로변 사이에 있다 보니 상점과 맛집이 많고 주말엔 여러 문화행사나 플리마켓이 서서, 구경하며 다니기 좋다. 특히 주월동 빅스포에서 백운광장까지 이어지는 1.2㎞ 구간은 공공 와이파이존으로 야외에서 스마트 기기 이용하기에도 부담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주민들이 흔히 빅스포 광장이라고 부르는 광복천 광장은 푸른길 공원에서 가장 넓은 광장으로 남구민 북 페스티벌,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각종 행사가 열린다. 20년 5월부터는 토요일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푸른길 상생 마켓이 열리고 있다.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장터로 푸른길 공원 조성 후 계속됐던 노점상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의 청년사업가, 사회적기업, 공방 등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다른 플리마켓과 달리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광주 상생 카드 사용 시 추가 할인 혜택도 있다. 그 외에도 교복 나눔 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자매결연도시들의 특산품 판매, 아나바다 장터 등 상생의 의미를 넓혀갈 수 있는 활동을 계획 중이다.

백운광장 방향으로 좀 더 내려가면 청로정이라는 정자와 청로 광장의 야외무대가 나온다. 바둑과 장기 두는 중년 남성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야외기원이라 할 만큼 밤까지도 불빛 아래에서 그들만의 대전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주로 주월동 주민들의 행사나 문화가 있는 날 연계 공연이 열린다.

푸른길 공원은 유명한 산책로답게 어느 시간에나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기다랗게 이어진 도시 숲을 따라 걷기만 해도 일상의 활기를 찾을 수 있다. 기찻길 옆 광복천이 흐르던 길, 도시의 바람이 지나는 이 거리를 꼭 한 번은 완주해보길 바란다.

년　　도 | 2005

운영시간 | 매일

주　　소 | 광주 남구 서문대로 627번길 인근

연 락 처 | 062-607-3812

주변공간 **남구청, 광복천 광장(빅스포 뒤)**

광주어린이대공원

시내에서 멀리 나갈 필요 없이 가까운 놀이공원에서 색다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 운암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바로 그런 곳이다. 진입로가 여럿이지만 광주체육고등학교 건너 중외공원에서 연결된 무지개다리 쪽 길로 들어오는 것을 추천한다. 봄에는 벚꽃 아래, 개나리까지 만발하는 풍경으로 양쪽으로 바람개비까지 더해져 나들이에 나선 이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인다.

5.18 민주화운동 직후 기공했던 광주 어린이대공원(당시 전남 어린이대공원)은 광주의 아픔을 덮기 위해 지어진, 사연 있는 곳이다. '대'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아담한 규모라서 자칫 실망할 수 있다. 91년도에 광주 패밀리랜드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누가 뭐래도 호남의 롯데월드, 에버랜드였던 곳이라 할 만큼 이 지역 사람들의 추억을 가득 머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꿈의동산 해피랜드' 여덟 글자 간판 아래, 이미 화려했던 시절의 색감이 희미해진 채로. 옛 감성을 물씬 풍겨가며 남아있다. 놀이기구는 10개 안짝으로 어린아이들이 타기에 부담 없는 구성이다. 운영자가 1명이라 표를 사는 것부터 탑승까지 빠르게 이뤄지지 않아도, 여느 놀이동산보다는 한산하기에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다.

이곳에 활기가 도는 벚꽃 필 무렵.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단연 하늘자전거다. 공원 전체를 돌며 벚나무 구간을 지날 때 꽃을 배경으로 한, 일명 인생 샷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놀이기구는 야외에만 있으니 맑은 날을 골라 방문하길 권한다. 문화누리 카드 가맹점으로도 등록되어 있어 해당 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통칭 중외공원이라 부르는 이 주변은 문화예술회관, 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한자리에 모여있다.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라 이 중 한 곳에 주차하고 걸어서 이동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 전시와 공연, 국제 행사, 역사 공부, 체험학습까지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가 열려있는 곳이다. 특히 시립미술관 뒤쪽에 있는 어린이 문화센터와 어린이 갤러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보아도 좋겠다.

국민학교 세대부터 초등학교 세대까지, 여전히 청춘들은 이곳을 찾는다. 추억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력이다. 동심을 동력 삼아 돌아가는 놀이공원. 도심 외곽으로 갈 필요 없이 가깝게 추억을 쌓고 싶다면 당장 떠나보자.

시　　설 | 바이킹과 와이키키, 회전목마, 타가디스코, 범퍼카, 날으는융단, 허리케인, 하늘자전거, 미니바이킹, 회전그네

년　　도 | 1981

운영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30분

주　　소 | 광주 북구 하서로 50

연 락 처 | 062-527-6678 F)062-527-6676

주변공간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중외공원

광주 시민의 숲

첨단은 광주에서 규모 있는 신흥지구 중 하나다. 영산강을 끼고 있으며 첨단산업체 및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등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고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비롯한 지역 대학 캠퍼스와 교육 시설, 광주디자인센터 같은 문화기관까지 복합적인 기능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잿빛 건물들 사이 숨 가쁜 일상을 보내기 급급한 현대인에게 푸른 호흡을 내어주는 숲이 지척에 있다. 북구 오룡동 대상공원 일대 100만㎡에 조성된 '광주 시민의 숲'이다.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큰 공원을 만날 수 있는 건 참 행복한 일이다.

오토캠핑장과 물놀이장을 끼고 있는 유아 숲 학습장,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까지 한데 모여있어 광주에서 각종 레저활동을 즐기기에 이만큼 제격인 장소도 없다. 시설 이용은 사전 예약이 필요한데, 나름 경쟁이 치열하다. 주말에는 도심 캠핑족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붐비니 여유가 된다면 비교적 한적한 평일을 노려봐도 좋겠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는다는 의미로 '한마음길'이라 이름 붙인 이곳은 시각장애인들도 혼자서 산책하며 운동할 수 있는 전용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길은 폭도 넓고 손으로 잡고 걸을 수 있는 허리 높이의 펜스, 유도 블록, 음성 안내기까지 갖췄다. 오감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곳곳에 향기 나는 꽃과 나무를 심어두고 가까이 다가가면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도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을 즐기는 주변 산단 근로자들이 많다.

시민의 숲은 러너들의 명소이기도 하다. 다양한 달리기 행사가 자주 열리는데 코스 구성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첨단교에서 영산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타기 좋은 수변도로와 산림욕에 적당한 흙길, 비 오는 날 걷기 좋은 운동코스까지 세 종류의 길이 시원하게 뻗어 있다. 높바람, 하늬바람, 샛바람, 마파람까지 구간마다 다양한 이름이 붙은 길을 걸으며 저마다 삶의 긴장을 풀어낸다. 기회가 된다면 한마음길 야외무대 광장에서 종종 열리는 음악공연과 문화강연도 참여해보자.

사는 곳을 고르는 기준이 역세권, 학세권 뿐만 아니라 숲세권, 팍세권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공원과 숲이 내 집과 가깝다는 것이 메리트인 시대다. 1+1도 아니고 1+2, 시민의 숲 주차장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첨단 근린공원, 어린이 교통공원까지 연결되니 그야말로 숲이 일상인 동네다. 이번 기회에 시민의 숲을 찾아 망중한을 즐겨보길 바란다.

시　　설 | 유아체험숲, 생태탐방길, 오토캠핑장, 체육공원, 드론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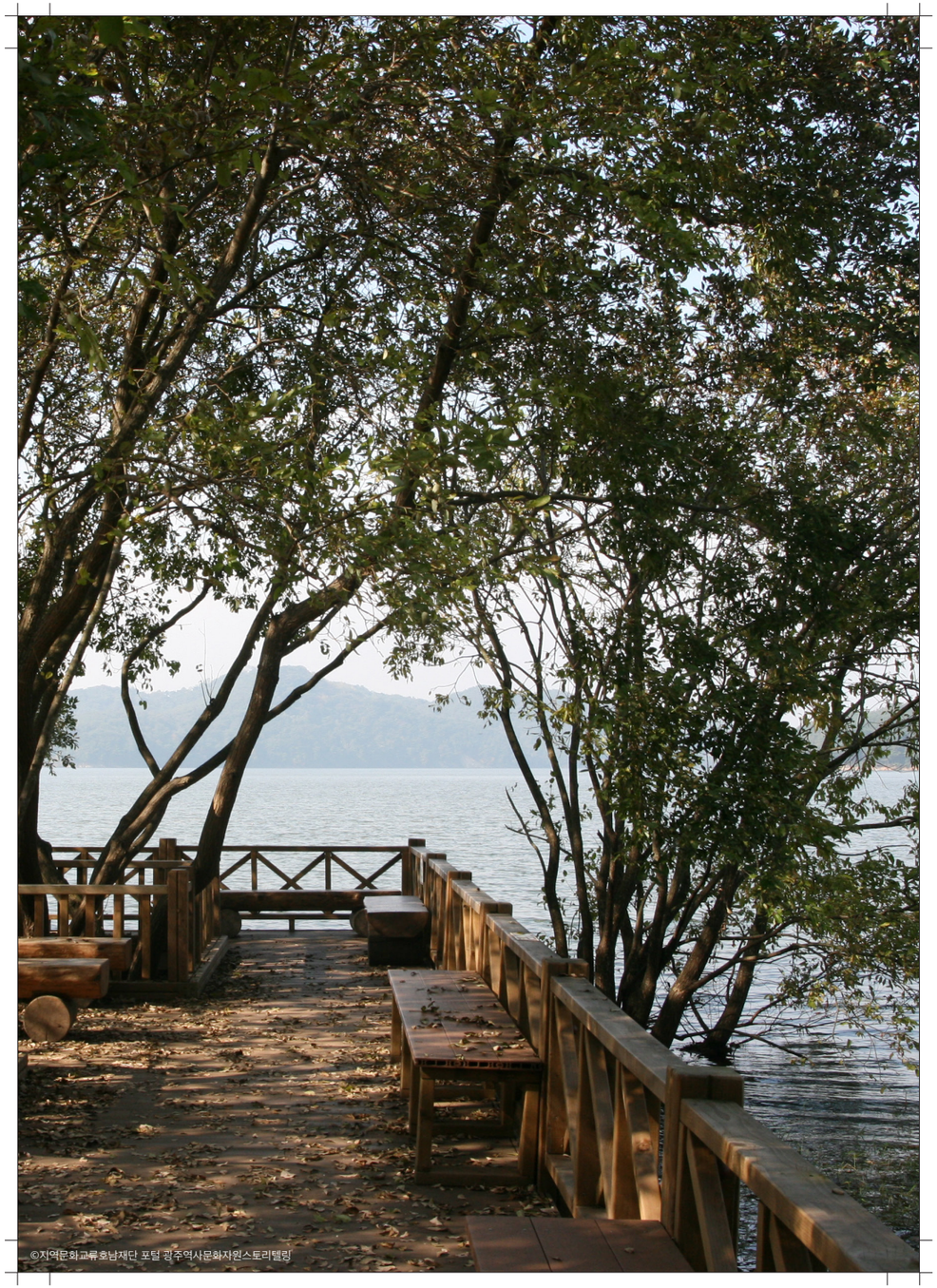
년　　도 | 2014

운영시간 | 상시 개방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44

연 락 처 | 062-613-6467

주변공간 어린이교통공원, 첨단근린공원(공사중)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포털 광주역사문화자원스토리텔링

광주호 호수생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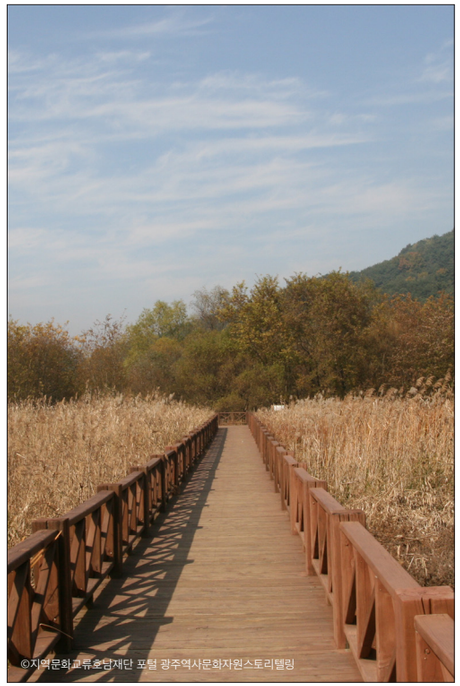
계절은 때론 무심히 우리 곁을 지난다. 그 마다의 절경 한 컷씩 담아 갈 수 있다면 어떨까. 맑고 깨끗한 호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공기, 온도, 초목까지도 표면 가득 담아낸다. 무등산 자락, 충효동의 자연을 고스란히 품은 투명한 화폭. 우리 가까이 있다.

호수생태원은 광주 시내에서 약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광주호 인근에 조성된 곳이다. 찾아가기 용이해서 아이들의 자연 생태학습장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곳이기도 하다. 무등산의 물을 머금은 호수 주변으로 형형색색의 야생화와 소나무 등 60종 65,000여 그루의 다양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메타세쿼이아 길뿐만 아니라 습지 보존지역, 충효동 버드나무 군락지 등 생태환경을 만날 수 있는 코스가 다양하다. 망원경으로 청둥오리와 호수 주변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데크가 깔린 길은 폭이 그리 넓지 않아 오히려 혼자 산책하기 적합하다. 사색과 걷는 것을 좋아하면 제격인 곳이다. 유모차나 휠체어는 통행은 가능하나, 데크구간은 좁아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일반적인 산책로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니 골라서 가면 된다. 단체로 방문한다면 생태공원 해설가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동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산수유, 꽃무릇, 구절초가 제철에 가득 핀 들녘이나 판문점의 도보다리를 재현한 블루 브릿지, 흥미로운 조형작품도 산책을 즐겁게 하는 요소다. 특히 9개의 지정장소에서 스탬프 행사를 하고 있어 아이들도 지루하지 않게 전체 코스를 돌아볼 수 있다.

제2주차장까지 있어 주차는 큰 불편함이 없다. 호수생태원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물 이외엔 음식물 반입 금지, 애완동물도 절대 내부로 데려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입구에서 제지당할 수 있다. 주변에 마땅히 먹을만한 공간이 없으니 굳이 싸 올 필요 없이 주변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광주호 호수 생태원 안에는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무등산 생태탐방원'이 있다. 탐방원 건물 1층은 지역 예술가의 전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외부에는 야외공연장과 암벽등반장이 있다. 또 3인실부터 10인실까지 묵을 수 있는 생활관이 있어 가족단위 탐방객이나 단체 방문객이 지내다 갈 수도 있다. 탐방원이 호수생태원과 연결되어 있으니 숙박객에게는 이른 시간 자연 풍광을 즐기며 산책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호수의 새벽안개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차장 가는 길 건너의 광주호수생태원 지구 센터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자원재순환 등의 마을공동체 교육과 생태환경 살리기 실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산림청과 함께 무등산 숲체험교실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　　설 | 광장, 생태연못, 관찰대, 데크탐방로, 전망대, 습지 등
년　　도 | 2006년 3월(개원)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　　소 | 광주 북구 충효샘길 7
연 락 처 | 062-613-7891

주변공간 광주호수생태원 지구센터, 무등산 생태탐방원

무등도서관

무등도서관이 개관한 것은 1981년이다. 광주 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도서관, 전일 도서관에 이어 광주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공공도서관이자 지역 최초의 시립도서관이기도 하다. 37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당시에는 상당한 규모를 갖췄던 이곳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고통을 겪은 광주시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어 기부한 것이다. 2010년에는 광주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사직도서관, 산수도서관과 통합하여 광주광역시립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1층 정문으로 들어서면 작은 카페가 있다. 맞은편으로 신문이나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도란도란 시간 보내는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의 방문이 활발하다. 길게 이어진 복도에서는 사진이나 그림 전시가 자주 열린다. 종합자료실만 해도 책과 자료가 풍성한데 특히 아메리칸 코너(미국관련 정보, 문화, 교육자료제공을 위해 미국 대사관과의 협력 운영)와 다문화 자료실이 별도로 있을 만큼 각국의 원서가 꽤 갖춰져 있기도 하다. 그에 못지않게 이곳은 향토 자료가 많다. 어르신들을 위한 대활자도서부터 고서까지 보유하고 있다. 문화강좌부터 책과 함께하는 인문학 행사, 독서캠프, 메이커 스페이스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참여 기회가 열려있으니 인근 주민이라면 꼭 이용해보길 바란다.

도서관에서 내려다보이는 우산근린공원에는 소나무와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고 바닥분수와 팔각 정자, 산책로, 지압보도, 휴게마당이 있다. 무등도서관 인근에 큰 도로가 마주하고 있어 주변에 많은 차량이 오가지만 우산근린공원이 있어 소음이 완충된다.

도서관 뒤편으로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하는 우산체육공원과 우산수영장에서는 조깅,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전남대학교 인근의 유일한 수영장이고 비용도 저렴해 이용객이 많다. 몸과 마음을 모두 단련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다면 이 일대를 방문해 보자.

시　　설 |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 도서관, 장애인실,
아메리칸 코너, 다문화자료실, 회의실, 열람실

년　　도 | 1981

운영시간 | 자료실 09:00~22:00(주말 17:00)
기타자료실 09:00~18:00(주말 17:00)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주　　소 | 광주 북구 면앙로 130

연 락 처 | 062-613-7753

홈페이지 | https://citylib.gwangju.kr

주변공간 우산근린공원, 북구 건강복지타운, 말바우시장

광주송정도서관

1974년 당시 이름은 '전남 광산군 공공 도서관'이었다. 1990년 4월 10일에 '광주송정도서관'으로 개관하며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송정공원 역 3번 출구에서 마을을 지나는 경전선 철길을 건너면 언덕 위로 빼꼼히 이름이 보인다. 운치 있는 벽돌 계단을 오르거나 언덕길로 가면 된다. 메타세쿼이아 숲, 용아 박용철 시비, 금선사가 보이겠지만 이를 살짝 뒤로하고 오른쪽으로 돌면 광주송정도서관이다. 출입구 앞 지혜의 샘터라 쓰인 바위가 눈에 들어온다. 맞다, 도서관은 마음이 말라갈 때면 찾아가는 우물가다. 지면을 가득 담은 샘은 언제나 새로이 차오르고 우리는 그곳에서 갈증을 해소하면 된다.

출입구 앞 1층 로비에서는 그림책 원화 전시를 하고 있다. 책은 2층에서 대여할 수 있다. 청소년, 큰글자책, 다문화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특별하다. 광주송정도서관에선 평소에도 어린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말과 방학에 이뤄지는 강의는 빠르게 마감되니 부지런하게 신청해보자. 상·하반기로 나눠 모집하는 프로그램의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이 흥미로운 곳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책 놀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읽었다면, 송정공원과 연결된 산책로를 걸어보길 추천한다. 아래쪽 숲길은 조용하게 사색하며 걸어보는 것도 좋다. 금선사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가면 운동기구와 놀이터, 지압 코스 등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나온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돌산, 전망대 오르는 길에 만날 수 있는 연리지 소나무가 이 공원만의 독특한 포인트다. 개화 시기에 온다면 언덕은 무궁화로도 가득할 것이다.

다시 송정공원 역으로 돌아와 지하철역 안, 광주 지하철 문학관을 구경해보자. 송정의 민족 시인 용아 박용철, 서정시인 김영랑, 이수복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토담으로 싸인 초가집 한 채, 용아 박용철 생가도 있다. 오랜 주택가 사이 숨겨진 문학의 산실을 꼭 들러보자. 도서관 앞에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걸어서 구경하기 좋은 곳들이 많으니 지하철을 이용해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시　　설 | (지하1층)서고, 기계실 /
(1층)어린이실, 장애인실, 강의실 /
(2층)문헌정보과, 간행물실(휴게실), 정보자료실 /
(3층)관장실, 협의회실, 관리과, 열람실2곳 /
(4층)강의실3곳

년　　도 |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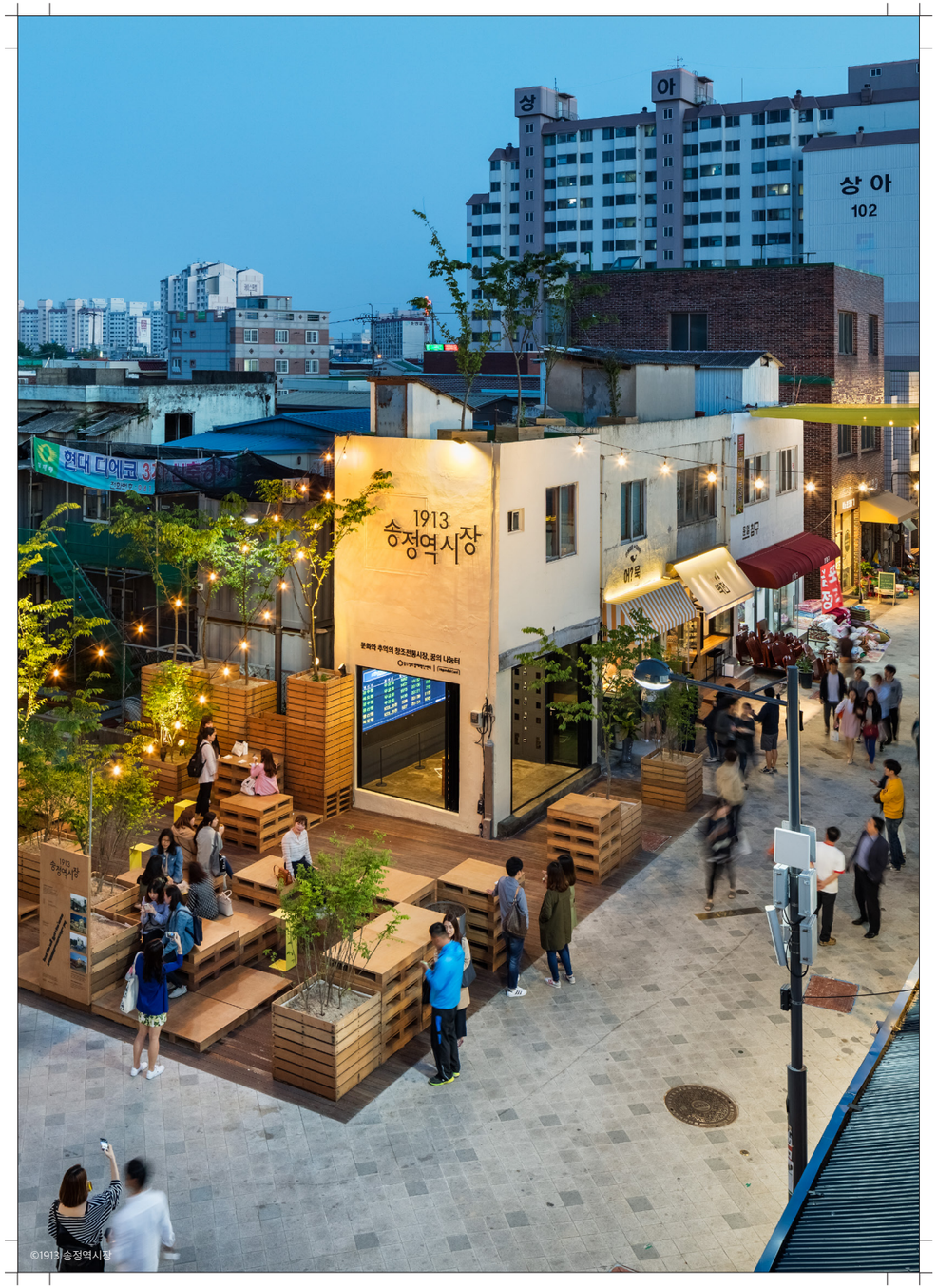
운영시간 | 열람실 기준 08:00~22:00,
정보자료실 및 어린이실 09:00~18:00
(둘째주,넷째주 월요일 휴무/개관기념일/공휴일)

주　　소 | 광주 광산구 송정공원로 8-13

연 락 처 | 062-940-8900

홈페이지 | http://lib.gen.go.kr/songjung/

주변공간 **송정공원, 광산문화예술회관, 송정공원역 지하철문학관, 용아 박용철 생가**



1913 송정역시장

온갖 이들이 오가는 역전에는 많은 이야기와 사람들의 흔적이 있다. KTX 주요 정차역인 광주 송정역 앞 횡단보도를 건너면 골목 초입의 커다란 간판이 걸음을 붙든다. 1913년 이곳에 처음 '매일 송정역전시장'이 열렸고 10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며 차츰 쇠락해가던 시장은 지난 2016년 현대카드와 함께 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1913 송정역시장'으로 이름을 바꿔 오픈했다.

골목 시장답게 동네로 이어지는 안길에 점포가 양쪽으로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이다. 이곳을 오래 지켜온 55곳 상점은 옛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요소씩은 남겨두고 바꿨다고 하니 돌아보며 찾아보자. 시장 바닥에 동판으로 새겨진 숫자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건물의 완공 연도이다. 견고히 박힌 숫자 위에 새로이 터를 잡은 점포까지 이 시장의 신구 조화를 보여준다. 오랜 것을 모조리 걷어내지 않은 덕에 시장 거리에는 여전한 정취가 남아 있다.

매스컴이나 SNS에서 가게별로 자주 소개되어 꽤나 큰 시장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는 300미터 남짓한 거리가 전부다. 그러나 주전부리 쇼핑이 시장 구경의 묘미라 여긴다면 잘 찾아오셨다. 역전답게 기차여행 전후로 들러 먹을만한 간단한 먹거리가 많다. 구슬 모양의 색색 양갱, 슬로푸드의 대표 선수들 김부각, 말랭이, 식혜도 있고 수제 초코파이, 통식빵과 계란밥도 이미 유명한 아이템이다. 광주의 지명을 딴 수제 맥주를 비롯 젊은 상인들이 지역만의 위트를 담아보려 고민한 지점이 돋보인다. 전라도의 맛 상추튀김과 영광굴비도 있다. 또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국밥은 물론 생닭을 바로 튀겨주는 닭집, 직접 농사지어 운영하는 방앗간까지 전통 강자들도 함께 자리한다. 그렇다고 해서 먹거리만 있는 밋밋한 시장은 또 아니다. 레트로 감성 톡톡히 자극하는 문구점, 오락실부터 전라도 사투리 팬시 상점까지 둘러보고 나면 그렇게 짧지 않은 여정으로 느껴진다.

시장 한복판에 있는 쉼터 겸 간이무대에서는 버스킹 공연이나 시민음악회, 공유 장터, 체험활동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과 함께 기획하는 문화 행사들이 종종 열린다. 2018년부터 '비어고을 광주'라는 맥주축제가 매년 여름 열리고 있다. 날이 맞으면 시장 입구 기준으로 도보 10분 거리에서 열리는 5일 시장(3일, 8일)을 함께 들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지역에서 이미 유명한 동해반점, 장백산부터 베트남, 타이 음식까지 광주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직접 운영해 현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아시아 음식거리에 들러 든든하게 속을 채우는 것도 좋겠다.

시　　설 | 일반상점, 식당, 간이무대, 쉼터

년　　도 | 1913. 10. 01.

운영시간 | 매일, 오전 11:00~ 오후 10:00

※ 휴무 : 매월 2, 4째주 월요일

주　　소 | 광산구 송정로8번길 13

연 락 처 | 062-942-1914

홈페이지 | https://1913songjungmarket.modoo.at/

주변공간 아시아음식거리, 송정5일시장, 광주송정역

- 색인 • Index
- 문화기반시설 현황

부록

동구 • Dong-gu	p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8
국윤미술관	16
광주극장	198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132
광주독립영화관	202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16
광주청년센터	136
김냇과	206
너릿재 유아 숲 체험원	268
무등현대미술관	16
미로센터	140
민들레소극장	210
베토벤음악감상실	214
산수도서관	272
아하갤러리	218
예술공간 집	222
우제길미술관	16
유림서점	226
의재미술관	16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구 본관)	62
전일빌딩 245	66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0
충장서림	230

서구 • Seo-gu	page
김대중컨벤션센터	144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74
만귀정	78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234
발산 벽화거리	276
벽진서원	82
상록도서관	280
상무대 옛터(5·18자유공원)	86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148
서창향토문화마을	90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26
유·스퀘어문화관	152
전평제 수변공원	284
페드로하우스+보야져스	238
풍암호수공원	26
풍암생활체육공원	26

남구 • Nam-gu	page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156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160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242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164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246
사직공원	94
양림동 오웬기념각 & 우일선 선교사 사택 & 유진벨선교기념관	98
월산근린공원	288
제봉산 마법의 숲 체험원	292
제석산	34
책문화공간봄 작은도서관	168
최승효가옥 & 이장우가옥	102
포레스트971	250
푸른길도서관	296
푸른길4구간 이음길	300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172

북구 • Buk-gu	page
국립5·18민주묘지	106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54
광주비엔날레	40
광주시립미술관	40
광주 시민의 숲	308
광주 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문화원)	258
광주어린이대공원	304
광주패밀리랜드자동차극장 광주시네마파크	262
광주호 호수생태원	312
무등도서관	316
무진고성지	110
문화공동체 아우름	176
시화문화마을문화관	180
원효사	114

광산구 • Gwangsan-gu	page
광산문화예술회관	184
광주송정도서관	320
김봉호 가옥	118
무양서원	122
수완호수공원 & 원당산공원	48
소촌아트팩토리	188
1913 송정역시장	324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48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192
월봉서원	126
풍영정천	48

동구 • Dong-gu	23개소
서구 • Seo-gu	16개소
남구 • Nam-gu	16개소
북구 • Buk-gu	14개소
광산구 • Gwangsan-gu	11개소
합계 • Total	80개소

문화기반시설 현황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9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광주광역시청 누리집(https://www.gwangju.go.kr),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등
* 기준일자 : 2019. 1. 1.

도서관

명칭	주소	전화번호
무등	북구 면앙로 130	062-613-7753
사직	남구 제중로 56	062-613-7783
산수	동구 경양로 355	062-613-7831
계림꿈나무	동구 경양로247번길 26	062-608-3920
서구공공	서구 마재로 3	062-654-4306
어린이생태학습	서구 풍암공원로 8	062-350-4584
상록	서구 상무대로1171번길 11	062-350-4591
문화정보	남구 봉선로 208	062-607-2522
푸른길	남구 금당로 140	062-607-2534
청소년	남구 제석로 100	062-607-2543
일곡	북구 일곡로 55	062-410-6889
운암	북구 북문대로 118	062-410-6957
신가	광산구 신가로40번길 24	062-960-8514
첨단	광산구 임방울대로673-12	062-960-8297
운남어린이	광산구 목련로217번길 10	062-960-8301
장덕	광산구 풍영로 179	062-960-3989
이야기꽃	광산구 선운중앙로67번길 6	062-960-6813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서구 학생독립로 30	062-221-5500
송정	광산구 송정공원로 8-13	062-940-8900
중앙	동구 장동로 23-16	062-607-1300
금호평생교육관	남구 중앙로 15	062-360-6600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서구 상무 민주로 61	062-380-8800
중앙도서관석봉분관	북구 설죽로315번길 8	062-576-8104

박물관

명칭	주소	전화번호
광주시립역사민속박물관	북구 서하로 48-25	062-613-5337
광주김치박물관	남구 김치로 60	062-613-8223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북구 설죽로 477	062-410-6642
광주교육대학교교육박물관	북구 필문대로 55	062-520-4280
전남대학교박물관	북구 용봉로 77	062-530-3584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	동구 백서로 160번지	062-220-4381
조선대학교 박물관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서석홀 2층	062-230-6333
한국미용박물관	북구 용봉로 116	062-514-6622
KJB금융박물관	동구 제봉로 225	062-239-5065
비움박물관	동구 제봉로 143-1	062-222-6668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북구 하서로 110	062-570-7000
국립광주박물관어린이박물관	광주 북구 하서로 110	062-570-7048
전남대학교광주캠퍼스박물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광주북구 용봉로77 전남대학교	062-530-3584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 북구 서하로 48-25	062-613-5337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	광주 동구 동계로 5	062-225-9966
장황남정보통신박물관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 동구 금남로 221	062-613-8204
세계조각장식박물관	광주 동구 중앙로196번길 14	
분청사기박물관	광주광역시 북구 풍암제길 14	
조선대학교치의학박물관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	

미술관

명칭	주소	전화번호
광주시립미술관	북구 하서로 52	062-613-7100
광주시립미술관하정웅미술관	서구 상무대로 1165	062-613-5390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동구 금남로 231 금남빌딩	062-222-8053
오월미술관	동구 문화전당로 29-1 2층	0507-1353-0547
한희원미술관	남구 양촌길 27-6	062-653-5435
동곡미술관	광산구 어등대로529번길 37	0507-1364-0168
은암미술관	동구 서석로85번길 8-12	062-226-6677
광주계림미술관	동구 경양로 273	
산수미술관	동구 밤실로 64-1	062-234-9789
소암미술관	남구 중앙로 83-1	0507-1491-7712
노의웅미술관	남구 수춘안길 7 노의웅미술관	0507-1316-7202
우청미술관	동구 금남로 232-4	
별밤미술관	광산구첨단중앙로182번길39	
틈새미술관	남구 용대로74번길 27	062-675-4024
진한미술관	동구 중앙로196번길 14	062-224-6601
토우미술관	남구 칠석길 1	
조선대학교미술관	동구 필문대로 309	
아시아예술창작스튜디오	광산구 용진로 303	

문예회관

명칭	주소	전화번호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산구 광산로68번길 13	062-960-8860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	남구 봉선로 208	062-670-5060, 5061
빛고을시민문화관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7	062-670-7941
동구문화센터	동구 남문로 646(소태동)	062-225-8700
광주문화예술회관	북구 북문대로 60	062-613-8333
5·18기념문화관	서구 내방로152(쌍촌동)	062-613-7911
서구문화센터	서구 마재로3(금호동)	062-654-4300

문화원

명칭	주소	전화번호
동구문화원	동구 금남로231(금남로2가)	062-225-5815
서구문화원	서구 풍금로 182(금호동)	062-681-4174
남구문화원	남구 봉선로 208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4층	062-671-7356
북구문화원	북구 향토문화로 65북구평생학습관 4층	062-527-7701
광산문화원	광산구 상무대로 265	062-941-3377

문화의집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일곡문화의집	북구 일곡로 55	062-410-6894
북구문화의집	북구 대천로 86(문흥동)	062-269-1420

광주광역시지정 문화재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증심사 삼층석탑	동구 증심사길 177	72.01.29.
광주 십신사지 석불	북구 서하로 48-25	72.01.29.
광주 십신사지 석비	북구 서하로 48-25	72.01.29.
운천사마애여래좌상	서구 금호운천길 85-15	74.09.24.
광주 재명석등	동구 문화전당로 38	74.12.26.
전남 도청 회의실	동구 광산동 11	81.10.20.
원효사 동부도	북구 금곡동 산209-13	81.10.20.
원효사 출토유물	북구 하서로 110	85.02.25.
광주향교	남구 중앙로107번길 5	85.02.25.
지산재	남구 지산재길 51	79.08.03.
병천사	서구 금호운천길 31	79.08.03.
신룡동 오층석탑	광산구 신룡동 산57-1	82.10.15.
증심사 오백전	동구 증심사길 177	89.03.20.
증심사 석조보살입상	동구 증심사길 177	89.03.20.
원효사소장만수사범종	북구 무등로 1514-35	89.03.20.
눌재집 목판각	북구 서하로 48-25	90.11.15.
사암집 목판각	북구 서하로 48-25	90.11.15.
취병 조형 유허비	광산구 비아동 689-3	90.11.15.
고봉문집 목판	광산구 광곡길 133	92.03.16.
제봉문집 목판	남구 포충로 767	92.03.16.
포충사 소장 고경명 문적	남구 포충로 767	94.07.21.
기대승종가소장문적	남구 대남대로350번길 34	94.07.21.
회재 유집 목판	서구 금화로 96	96.03.19.
전라남도 회의실 신축설계도	북구 서하로 48-25	97.07.03.
이신의종가 소장 고문서	북구 하서로 110	98.05.07.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오웬기념각	남구 백서로70번길 6	98.05.07.
덕림사지장보살상과시왕상및그권속	남구 월산로116번길 22	05.07.19.
광주 향림사 소장본 조상경	서구 마륵북개로 150-22	12.11.26.
광주 문빈정사 소장 전적	동구 증심사길 81	13.12.24.
환벽당	북구 충효샘길 일원	명승지정으로 해제고시
정지장군 예장석묘	북구 망월동 산176	75.12.30.
전상의장군예장석묘	북구 화암동 산239	77.10.20.
충효동 정려비각	북구 충효샘길 7	85.02.25.
허백련 춘설헌	동구 운림동 산151	86.09.29.
오지호가	동구 지호로 81-20	86.09.29.
포충사	남구 포충로 767	74.05.22.
양송천 묘역	광산구 동호동 산32-9	78.09.22.
빙월당	광산구 광곡길 133	79.08.03.
칠석동 은행나무	남구 칠석동 120	79.08.03.
양씨 삼강문	광산구 박호동 131-5	85.02.25.
고씨 삼강문	남구 압촌길 66	85.02.25.
용아생가	광산구 소촌로46번길 24	86.02.07.
무진고성지	북구 두암동 산136 외	89.03.20.
우일선 선교사사택	남구 제중로47번길 20	89.03.20.
충효동 왕버들	북구 충효샘길 7	천연기념물지정으로 해제고시
양림동호랑가시나무	남구 양림동 230-1	89.03.20.
화담사	서구 화운로 156번길 17-8	93.03.20.
학동 느티나무	동구 제봉로 42	94.02.18.
월계동 장고분	광산구 월계로 155	94.02.18.
금곡동 제철유적	북구 금곡동 798-1 외	94.02.18.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명화동 장고분	광산구 명화동 170-5	95.04.20.
범세동 선생묘	광산동 덕림동 산 94-1	98.02.21.
괘고정수	남구 원산동 579-1	98.05.07.
광주 북동 천주교회	북구 금재로 76	99.04.30.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상지	북구 독립로 237번길 33	99.04.30.
이장우 가옥	남구 양촌길 21	89.03.20.
최승효 가옥	남구 양촌길 29-4	89.03.20.
김용학 가옥	북구 하백로29번길 24	89.03.20.
강진김해김씨가 상여	북구 서하로 48-25	89.03.20.
입석마을 입석	광산구 산수동 225	89.03.20.
광산노씨 분묘출토 명기류	북구 서하로 48-25	90.11.15.
필문 이선제 부조묘	남구 구만산길 34	90.11.15.
광주 서원문 밖 석장승	북구 용봉로 77	17.01.01.
목장승	북구 용봉로 77	17.01.01.
증심사	동구 증심사길 177	84.02.17.
약사암	동구 증심사길160번길 89	84.02.17.
무양서원	광산구 산월로21번길 26	84.02.29.
풍영정	광산구 풍영정길 21	84.02.29.
만귀정	서구 동하길 10	84.02.29.
용두동 지석묘	서구 용두동 25-1	84.02.29.
용진정사	광산구 왕동 3-1	85.02.25.
고원희 가옥	남구 압촌길 78	87.06.01.
운림동 석실고분	동구 운림동 산18	89.03.20.
고내상 성지	광산구 송정동 250-4	89.03.20.
용진산 마애여래좌상	광산구 사호동 산136	89.03.20.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양과동정	남구 이장동 266	90.11.15.
부용정	남구 칠석동 129	90.11.15.
호가정	광산구 동곡분토길 195	90.11.15.
풍암정	북구 풍암제길 117	90.11.15.
김봉선 유품	북구 서하로 48-25	90.11.15.
삼거동 고인돌군	광산구 삼거동 산50	90.11.15.
임암동,원산동선사주거지및석곽묘	남구 임암동 산64	92.10.22.
양과동계 고문서	남구 야평길 1-2	92.10.22.
광주읍성 유허	동구 광산동 12-2번지 외	94.04.13.
유촌동 석조여래좌상	서구 유덕로 24	96.03.19.
석아정 오방정 현판	서구 풍암중앙로 68, 금호1차 107동 1503호	97.07.03.
분청사기 전라도 명항아리	북구 용봉동 1004-4	98.02.21.
수완동 왕버들	광산구 수완동 870-1,700-12	99.04.30.
김봉호 가옥	광산구 하남대로54번안길 161	00.05.16.
만취정	광산구 본량본촌길 29	02.12.27.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소강당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13	11.07.22.
창녕조씨 삼강정려	광산구 용진로 219	12.01.19.
광주 대원정사 석조보살좌상	북구 본촌동 27	13.02.25.
취가정	북구 환벽당길 42	14.01.09.

2020 광주문화공간매거진 · 2020 Gwangju Cultural Space Magazine

걷는 광주 · Walking Gwangju

발행일 2020년 12월 18일
펴낸곳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발행부서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전화 062)670-7434

만든곳 파종모종(PasonMoson)
주소 61218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13-1, 1층
메일 pasonmoson@gmail.com

글 김천응, 정혜인, 김태희, 한재섭, 심수진
사진 조현택, 이승일, 최진우
편집 파종모종(PasonMoson)
디자인 파종모종(PasonMoson)
인쇄 종로인쇄
61488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25번길 7
배포 인디펍
61180 광주 북구 용주로40번길 7, 1층 인디펍 물류센터

* 본 광주문화공간편람은 광주광역시의 출연금을 받아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문화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